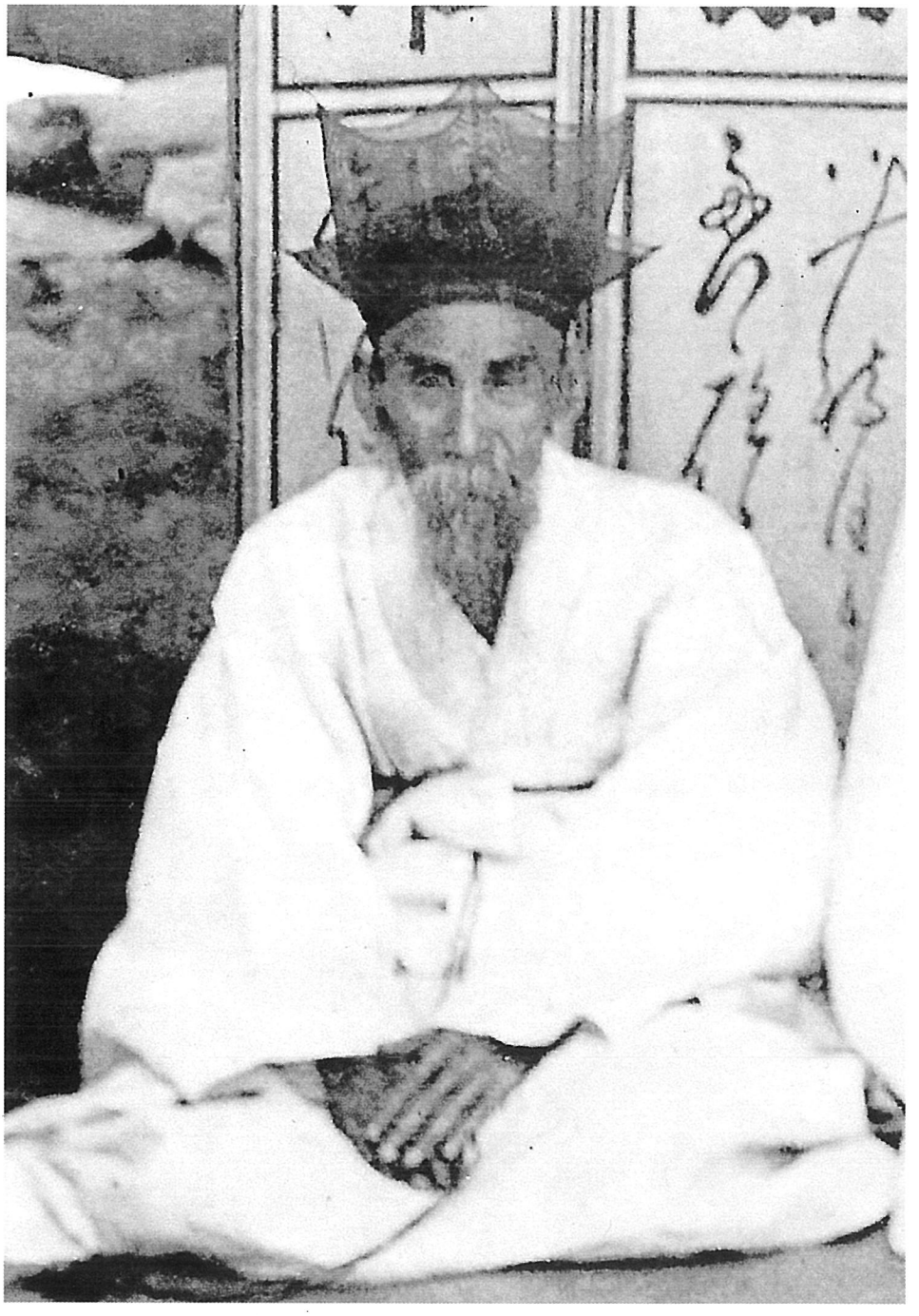
遯齋遺稿

單



遯齋李公眞影

遯齋遺稿序

文不在多　載道爲貴　詩不在巧　言志爲要　余以此言　觀近古之士莫有先遯齋李公者　因恨其遺稿之至今未梓矣　日　公之重孫寒松錫煥　奉一書　葉可一百者　來示余　且言曾王父遺稿　已畢慕菴王父之收輯　東樵先君之繕寫者　年已多矣　尚未免巾衍之藏　此無乃爲其葉之太少　而勢之未及也歟　蹉跎至今日　則王父先君若先兄次第爲青山之歸　旁無可與共憂此稿之尚未梓者　且況煥也　亦悶其葉之太單　縱欲廣其蒐輯　而力不能逮　患其稿之或泯　且欲善其保管　而事不可恃　玆以祖輯父寫之本　啓其壽世役　子於卷端　宜有一言弁　余以東樵公之半子　其於寒松子之有囑　誼難終嘿　乃整衿而復　敢曰弁哉　只具文耳　蓋子孫之於祖先文字　雖片言隻字　得之貴過於金　對之珍踰於玉者　豈以其文之篇篇皆瓊琚　詩之句句

皆珠璣哉 直以其一句一篇 莫非出於祖先之肺腑也 性情也 天下何物 其貴其珍 能先於此也 此慕菴之所以盡誠於此稿之收輯 東樵之所以竭力於此稿之繕寫者也 寒松 在兩世繼述之地 宜乎有其謀梓也 之稿之爲稿也 詩六十一、書二、祭文十、雜著三 竝附錄目錄 摠若干 以葉以弓 眞難免單弱也 然因一鱗 以味其全鼎 則其言志也 間有傷時憂國之意 慇懃於言外 其載道也 多有新亭汐社之態 莊重於物表 特擧其一例 則癸丑四月入京之吟 字不過卄八 而黍離之嘆 麥秀之歌 可謂一字一淚 且丙申日記一篇 起止未念 而韓社之鼈砲 島寇之陸梁 記不忘羞 傳以懲後 可謂一部血史 如使伊日當世責者 見之 宜有斥洋斥倭之心之感發 且使當時伏山林者聞之 不無嫉世憫俗之意之不拔矣 詩之如此者 孰不曰能於言志也 文之如彼者 孰不曰近於載道也 視諸世之自云

紳士 而行則禽犢之不若 自稱學人 而心則蛇蝎之有如者 不可同年而與語矣 葉之太單 不足爲病於付梓者 有證於此 不遷怒不貳過六字 足以明顔子之好學 告往知來四字 亦足以知子貢之言詩而一局此稿 亦足以不朽公於無窮 文何必多乎 詩何必巧乎 譯賃剞劂 皆出於寒松之弟錫健 寒松之胤炳國之囊 其爲先之誠 亦不下於寒松云

歲在玄黓 敦牂 南至日

月城 鄭東暉 謹序

돈재유고 머리말

글은 많은 것이 아니라 道가 실려있어야 貴하고 詩는 교묘한 것이 아니라 뜻을 말한 것이라고 하였다。 내가 이말로 근래의 선비들을 볼때 遯齋李公보다 앞설이가 없는데 그 유고가 지금까지 인쇄되지 못한것이 한스러웠다。

어느날 公의 曾孫 寒松錫煥이 百장쯤되는 한 책을 가져와서 나에게 보이면서 말하기를 이는 曾祖考 유고인바 慕菴祖考가 수집하시고 東樵先考가 써놓으신지가 이미 여러해인데 아직도 책괴의 소장을 면치 못하니 아니 책이 너무 작아서 였던가。 지금껏 밀려오다가

조부님 아버님 형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곁에 이책이 아직도 인쇄되지 못한것을 걱정하리 아무도 없고 또한 내가 책이 너무 작은것이 안타까워 비록 널리 수집하고 싶으나 힘이 모자라고 글이 없어질까 두려워 잘 보관하려해도 앞날을 믿을 수 없어 이에 祖와 父가 수집하시고 써두신 책을 인쇄하려고하니 자네가 이책에 序하라고 부탁하니 내가 東樵의 사위로서 寒松의 부탁에 사양키 어려워 답하기를 序라고 할 것은 못되지만 구색은 갖추워 보겠다고 하였다。

대개 子孫들이 祖先의 文字에는 비록 한쪽 말과 반의 글자라도 얻게되면 金보다 낫고 對하면 玉보다 보배롭다。 어찌 그 글이 篇篇마다 보배같고 詩가 구절 구절마다 주옥 같기를 기대하랴。 다만 그 한구절 한편이 모두 조상의 가슴에서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 세상 어떠한 보배가 이보다 앞서랴。 이래서 모암께서 정성껏 수집하시고 동초께서 힘써 초해 놓으신 것이다。 寒松이 두대가 繼述해 놓은 것을 인쇄를 도모하는 것이 마땅하다。

유고가 만들어지기를 詩가 六十一이요、書가 二요、祭文이 十이요、雜著가 三인데 付錄과 目錄을 합하여 모두 若干이다。 張數나 册으로 봐서 單弱하기 그지 없다。 그러나 고기 한점으로써 온 가마의 맛을 짐작하듯이 그 詩가 간혹 시대를 안타까워 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뜻이 말밖에 나타나고 글에는 新亭과 汐社(憂國志士가 모이던 곳)의 태도가 많이 나타나서 스스로 장중해 진다。 특히 一例를 들자면 계축四월 서울로 들어가면서 읊은 詩 二十八字에 불과하지만 망국의 탄식과 폐허의 노래로써 한자 한자가 눈물로 되었고 또한

丙申일기 한편은 기간이 二十日도 안되지만 韓國의 위험과 海賊의 침략상을 기록해 부끄러움을 잊지않고 傳하여 後世의 懲戒가 되게 하였으니 가히 一部血史라고 하겠다。

만일 그날 世上을 책임진자가 보았으면 마땅히 洋놈을 물리치고 倭놈을 물리칠 마음이 저절로 발동할 것이요、또한 당시 산야에 숨어사는 사람들도 듣게되면 모두 세상을 미워하고 풍속을 민망하게 여기는 뜻이 폭발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詩가 이러하니 누가 뜻을 잘 말했다 않겠으며 文이 저와 같으니 누가 道가 실려 있다고 않겠는가。세상에 스스로 紳士라는 분을 보면 행동은 짐승만도 못하고 스스로 學者라는 사람이 마음은 독사만도 못하니 함께 이야기나 될 수 있으랴。張數가 너무 적은 것이 印刷하는데 탈이 될 것이 없는 것이 증거가 있으니 不遷怒 不貳過는 六字에 지나지 않치만 족히 顔子의 好學을 증명 하였고 告往 知來의 四字는 子貢의 詩 잘 하는 것을 알게 했다。한권의 책 이글이 또한 公을 無窮토록 없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 文이 하필 많아야 하며 詩가 어찌 묘해야 하겠는가。번역비와 인쇄비는 모두 寒松의 아우 錫健敎授와 寒松아들 炳國의 주머니에서 나왔으니 조상을 위하는 정성이 寒松보다 못하지 않다고 하겠다。

壬午년 동짓날에

月城 鄭東暉는 삼가 序하다

遯齋遺稿目錄

卷之一

詩

癸丑四月入京……一五
七月留懷仁陽中旨……一五
九月九日過茂朱赤裳山城……一六
和滄浪亭韻……一六
鳳林即事……一七
麥秋……一七
採桑……一八
折草……一八
豐歲……一九

端午……一九
蟠木……二〇
其二……二一
石炭……二一
芭蕉……二二
羸駿……二二
送友……二三
王昭君……二四
其二……二四
自吟……二五
枯木……二五
其二……二六

夏蜨……二六
桃源……二七
子規……二八
猿猱……二九
鏡……二九
其二……三〇
誡學徒……三〇
鼎……三一
玉璽……三二
袞衣……三二
支機石……三三
簫……三四

海棠……三四
蠅……三五
閨怨……三五
歌……三六
夢……三六
桂……三七
芝……三八
科舉……三八
貘……三九
霖雨……四〇
辯士……四〇
金玉……四一

自吟……四二
三月一日病中吟……四三
與諸生觀東鶴寺……四三
殷沙夜話……四四
東社雨中……四五
贈別崔璣秀歸醴泉……四五
輓苧洞金處士……四六
輓金竹圃 舜欽……四九
輓俞公 鎭邦……五〇
其二 代……五〇
輓從姪 仁德……五一
其二……五一

輓李進士命羽○代舍季……五二
賀黃公永一晬辰……五二
賀素軒權公人夏晬辰……五四
渡漢江……五四
附贈章二首……五五
失題并小序……五六
又二……五七
又……五八
書
與艮齋田公乙卯……六〇
與黃湖宗中……六一
祭文

祭李公　文……六八
祭通政南公廷欽　文……七〇
祭趙公　文代……七四
祭申公　文……七七
祭黃公　文……八〇
祭權公翼淵　文代……八三
又代……八六
祭素軒權公人夏　文……八九
祭洪公在明　文……九三
祭　文……九五

卷之二

雜著

李氏烈事……九七
丙申日記……一〇二
湖行日記上……一二三
湖行日記下……一四一

卷之三

附錄

遯齋李公墓碣銘……鄭東暉　撰……一八一
題遯齋遺稿後……宋悌永　撰……一八六
慕菴李公墓碣銘……鄭東暉　撰……一八八
慕菴李公實蹟碑……宋悌永　撰……一九三
慕菴記……成璣運　撰……一九九
安靖公祭壇碑銘……遯齋子慕菴諱仁榘文……二〇一

固城李氏庚辰族譜序……遯齋子慕菴諱仁榘文…二一一
固城李氏思菴公派辛巳譜序……慕菴子東樵諱基福文…二一四
固城李氏思菴公派己卯譜序……東樵子錫煥文…二一七
遯齋遺稿跋……二二一

遯齋遺稿目錄終

遯齋遺稿卷之一

詩

癸丑四月入京

八年始向長安道　文武衣冠異昔時　仙李山河何處是　黃昏羌笛使人悲

癸丑(一九一三) 四月에 서울에 들어가면서

八年만에 비로소 長安①으로 향하니, 文臣 武士의 衣冠이 예전과 다르도다.
仙李②의 山河는 지금 어디메뇨? 해저물녘 羌笛③만이 나를 슬프게 하누나.

① 長安 : 中國 陝西省 長安縣 부근, 前漢, 隋, 唐 등의 首都였음. 곧 首都라는 뜻으로 여기에선 우리 나라 서울을 일컬는 말로 인용함.
② 仙李 : 中國의 古代 哲學者인 老子 李伯陽을 지칭한 말인데 여기에선 朝鮮王朝의 李氏를 가리킨 말.
③ 羌笛 : 樂器의 하나, 오랑캐들이 부는 피리. 곧 피리의 별칭.

七月留懷仁陽中旨

碧山學士先歸隱　白髮文章遠送窮　訪花虛度三春日　觀海長吹

萬里風

七月에 懷仁 陽中旨에 머물면서

碧山에 學士가 먼저 돌아와서、白髮의 文章이 곤궁을 멀리 쫓았도다。

꽃을 찾아 三春①을 헛되히 보내고、바다에 이르니 萬里風이 길이 부누나。

① 三春 : 孟春(正月)、仲春(二月)、季春(三月)을 이르는 말로 곧 봄의 석달을 이름。

九月九日過茂朱赤裳山城

德裕一枝奮北起　錦屛羅列赤如裳　誰看黃菊吟秋景　我愛丹楓坐夕陽

九月九日에 茂朱 赤裳山城을 지나면서

德裕山 한줄기가 북쪽에서 일어나、병풍처럼 늘어서 치마 같이 붉도다。

누가 黃菊을 보고 가을 풍경 읊었는가? 나는 丹楓을 사랑하여 夕陽에 앉았노라。

和滄浪亭韻

屹彼大明下　滄浪千尺深　庭蘭始抽葉　園竹已成林　細和郢中曲　靜聽海上琴　亭名何所取　不忘濯纓心

滄浪亭韻에 和答함

높다란 저 大明山 아래、 푸른 물이 천길이나 깊도다。
뜰의 난초는 잎이 비로소 나오고、 뒤안 대나무는 숲을 이미 이뤘도다。
郢中曲①을 가만히 부르는데、 파도 소리만 고요히 들리누나。
정자 이름은 무슨 뜻을 취했는가? 濯纓②의 마음을 잊지 않고자 함인가?

① 郢中曲 : 楚나라 때 郢州 지방에서 부르던 歌曲、 속된 노래로 전함。
② 濯纓 : 갓 끈을 씻는다는 말로 世俗을 초월한 뜻을 이름。 孟子의 孺子歌에 이르되 「滄浪의 물이 맑음이여! 가히 나의 갓 끈을 씻고 滄浪의 물이 흐림이여! 가히 나의 발을 씻으리라」하였다。

鳳林卽事 己未

鳳林洞裡鳳林齋　形勝有餘景色佳　蒼蘚裂皮長階竹　綠陰濃覆滿庭槐

鳳林洞(鷄龍東幹華山里)에 이르러 즉흥으로 읊음

鳳林洞 안에 鳳林齋가 있는데、 형세가 넉넉하고 경치도 아름답도다。
푸른 이끼를 뚫고 섬돌 아래 竹筍이 자라고、 푸른 그늘은 온 뜰의 槐木을 뒤덮었도다。

麥秋

南風吹雨過前隴　滿地黃雲及麥秋　十室貧人猶八九　未炊厨下穗先收

보리 가을

南風이 비를 몰아 앞 언덕을 지나거니、온 들은 누렇게 보리가을이 닥쳤도다。
열 집중에 가난한 사람 여덟아홉인바、불 못지핀 부엌엔 이삭을 먼저 거두도다。

採桑

春風桑葉漸繁茂　採綠盈筐勤飼蠶　及老就薪作成實　纖纖玉手繅盆三

뽕잎을 따는 것을 보고

봄바람에 뽕잎이 점점 번성하거니、뽕을 광주리에 채워 누에를 먹이도다。
누에가 섶에 올라 고치를 지으면、가냘프고 고운 손으로 실을 뽑도다。

折草

五月農夫勤穡事　侵晨折草負如山　水田散擲無餘土　秋後地仙

始得閒

풀을 뱀을 보고

五月의 農夫 농사에 부지런하여, 이른 새벽 풀을 베어 산 같이 짊어졌네.
논에 뿌려서 흙이 보이지 않는바, 가을에야 神仙처럼 비로소 한가하리.

豐歲

風調雨順逢豐歲　醉飽歡聲動四鄰　行不齎粮熙皞世　山無盜賊太平春

豐年의 해에

비 바람 고르고 순하여 풍년을 만났거니, 취하고 배불러 歡呼聲이 四方에 일어나도다.
행인이 식량 챙기지 않는 熙皞①의 세상이요, 山中에 도적 없는 태평한 세월이로다.

① 熙皞 : 和樂함을 스스로 얻음을 이름, 곧 백성들이 화락하게 잘 지내는 것.

端午

浴蘭佩艾斟蒲酒　佳節又當五五天　孟嘗門下懸弧日　屈子江頭

競渡年

端午에

蘭을 삶은 藥湯에 목욕하고 菖蒲酒를 마시거니、좋은 시절 五月五日을 또 당했도다。

孟嘗君① 門下에 사내아이가 태어난 날이요、屈子江② 위에 뱃놀이 경주하는 때로다。

① 孟嘗君 : 中國 戰國時代 齊나라 사람 田嬰의 아들 田文의 封號、齊의 宰相이 되어 天下의 賢士를 招致하였는데 食客이 항상 千餘人에 이르렀음。

② 屈子江 : 屈子가 빠져 죽은 강으로 汨羅水의 별칭。屈子는 戰國時代 楚나라의 文章인 屈原의 존칭。임금에게 忠諫하다가 禍를 당하여 마침내 汨羅水에 몸을 던져 죽음。

蟠木

上生轔菌下癰腫　不桷不輪嗟爾身　莫道非材爲棄物　能容蟠木有其人

蟠木①

위에는 곰팡이 먹고 아래는 옹이가 박혀、서까래도 바퀴에도 못쓰는 너의 모습이로다。재목이 못되어 버린 물건이라 이르지 말라、蟠木을 좋게 보아 쓰는 사람도 있느니라。

① 蟠木 : 이리저리 左右로 굽은 나무。

其二

古木千年餘癰節　不稱於世莫容身　如逢白傅任爲几　豈讓人

蟠木 二

千年의 오랜 나무 옹이만 남았거니、세상에 쓸데 없어 몸을 인정받지 못하누나。
만일 白傅①를 만나 几로 쓰였다면、팔을 받치고 턱을 의지함에 어느 사람만 못하랴!

① 白傅 : 唐나라 때 詩人 白居易의 별칭。字는 樂天、號 香山居士。新樂府 長恨歌、琵琶行 등 많은 傑作을 남김。

石炭

聖人達順無爲治　河出馬圖山出車　季世如何生石炭　未聞國用有贏餘

石炭①

聖人은 順理를 통하여 無爲②로 다스리사、黃河에서 馬圖③가 나왔는데、
어찌 季世(末世)엔 石炭이 나왔는데도 나라의 씀이 남음을 듣지 못하겠는지。

① 石炭 : 古代 때의 植物質이 땅 속에 묻혀서 炭化된 흑색의 돌、현대에 이르러 燃料로 쓰임。

② 無爲 : 自然 그대로 두어 人工을 가하지 않음、곧 간섭하지 아니함。
③ 馬圖 : 中國 고대 伏羲氏 때 黃河에서 높이가 八尺 이상 되는 소위 龍馬가 나왔는데 그 등에 나타난 圖形으로서 易卦의 원리가 되었음。一名 河圖라고도 일컬음。

芭蕉

愛菊愛蓮各殊性　植蕉晦父保丹心　永夜欲知風雨驗　故栽牕外不成林

芭蕉①

국화 사랑 연꽃 사랑 각기 성품이 다른바、晦父②는 파초를 심어 丹心을 보존코자 했도다。긴 밤에 비 바람의 조짐을 알고자、창 밖에 심었으나 숲을 이루지 못했도다。

① 芭蕉 : 파초과에 딸린 多年生 풀。잎은 긴 타원형이고 꽃은 황갈색으로 따스한 곳에서 남。
② 晦父 : 南宋 때 大儒인 朱熹의 別號。곧 朱子學의 鼻祖로 일컬는 晦菴 朱子를 이름。

贏駿

烏騅赤兎有名聲　房駟當年天降精　今來贏駿無人牧　海上龍芻空自生

贏駿①

烏騅②와 赤兎③는 명성이 있었거니、房駟④는 당년에 하늘에서 精氣를 내렸도다。
지금에 파리한 말은 거두는 사람이 없어、바다 위 龍芻⑤처럼 부질 없이 살도다。

① 贏駿 : 지쳐서 파리하게 여윈 駿馬。
② 烏騅 : 검은 털에 흰 털이 섞인 말。옛날 楚나라 覇王 項羽가 탔었다는 좋은 말。
③ 赤兎 : 中國 三國時代 將帥인 呂布가 탔다는 駿馬의 이름。
④ 房駟 : 房星、곧 二十八宿 가운데 一임。房四星을 天駟라 이르는데 天馬로서 車駕를 주장한다고 이름。
⑤ 龍芻 : 草名으로서 龍鬚草의 별명、東海가운데 龍駒島가 있는데 周나라 穆王이 여덟 駿馬를 기른 곳에 이 풀이 있었으므로 龍芻라 이름。

送友

雲散雨晴遇順風　青天萬里送歸鴻　停盃恨唱驪駒曲　叟得何時此會同

벗을 전송하며

구름 걷히고 비 개이어 바람도 잔잔한데、푸른하늘 만리에 돌아가는 기러기를 전송하는듯、술잔을 놓고 驪駒曲①을 부름이 恨스럽거니、어느 때 이 모임을 다시 얻겠는가?

① 驪駒曲 : 送別할 때 부르는 노래。

王昭君

國家興廢摠由色　休說明妃怨恨長　畵圖省識春風面　幾使單于枉斷腸

王昭君①

나라의 흥하고 망함은 모두 女色때문인바、明妃②의 怨恨이 길을 말하지 말지어다。그림으로 春風의 면모를 살폈더라면、얼마나 單于③의 창자가 끊어졌으리!

① 王昭君：中國 前漢 元帝의 後宮에 있었던 美人으로 本名은 王嬙이었음。匈奴의 王인 單于가 漢의 朝廷에 妻를 구함에 응하여 元帝가 시집보냈으므로 蠻公主라 불리어 同情받았음。

② 明妃：前漢 元帝의 妃 王昭君의 별칭。晋 文帝 때에 文帝의 諱가 昭인 때문에 明으로 고쳐 後世에 明妃로 일컬었음。

③ 單于：匈奴의 酋長、匈奴는 곧 北方의 오랑캐로서 蒙古、滿洲 일대의 種族을 일컬음。

其二

漢女嫁胡眞嫁禍　非徒邊塞受無憂　假使君王沈好色　荒淫亡國果誰尤

漢女를 오랑캐에게 시집 보냄은 참으로 재앙을 보냄인바, 변방 방비만이 아니라 또한 근심을 없앴도다。

가령 君王이 女色 좋아함에 빠졌더라면, 음탕으로 망친 나라 과연 누구의 허물이랴!

自吟

假我數年未學易　聖賢事業實難期　縱過八十如今日　虛費光陰豈何所爲

자신을 읊음

가령 내가 수년간 周易①을 배우지 않았다면, 聖賢의 사업을 기약하기 실로 어려웠으리! 비록 八十을 지내어도 오늘과 같을진대, 세월만 허비할 뿐 무엇이 되었겠는가?

① 周易 : 周代 文王과 周公, 孔子에 의하여 완성된 易學, 즉 易經。

枯木

門前栁木自枯立　何事未榮花發時　昨秋甚恠稀成實　今日始知病染枝

마른 나무

문 앞의 감나무가 저절로 말라 선 것은, 무슨 일로 꽃 필 때에 꽃을 피지 못하는가?
작년 가을에 열매가 적어 이상히 여겼더니, 오늘날 가지에 病든 것을 비로소 알겠도다.

其二

無葉無花自寂寞　奈何不發艷陽時　明月三更留隻影　烈風十里
過輕枝　樵老每論斧斤伐　梓人豈要棟樑爲　東君若借再生德
雨露新恩爾莫辭

마른 나무 二

잎도 없고 꽃도 없이 적막하거니, 어찌 따스한 봄볕에 피지 않았는가?
三更 밝은 달에 외로운 그림자요, 十里 세찬 바람에 가벼운 가지로다.
나뭇꾼이 매양 도끼로 찍자 하는바, 목수가 어찌 기둥으로 쓰고자 하랴.
東君①이 만약 다시 살려 준다면, 雨露의 새로운 은혜를 사양치 말지어다.

① 東君 : 太陽, 靑帝。 또는 봄을 맡았다는 神。

夏蝶

粉蝶尋花花已落　翩翩飛去又飛來　千紅萬紫衆香國　憐爾失時

晩節廻

여름 나비

흰 나비 꽃을 찾으나 꽃은 이미 졌거니、훨훨 날아 갔다가 또 날아 오누나。
온갖 붉고 붉은 향기로운 나라에、때 잃고 늦게 돌아온 네가 가엾도다。

桃源

赤松黃石遊方外　不獨朱陳能避秦　桃源眞境今何在　數畝丹田自有春

桃源①

赤松子②와 黃石公③은 方外(仙境)에 놀았으니、유독 朱陳④만이 秦皇⑤의 禍를 피한 것이 아니로다。
桃源의 眞境이 지금 어데 있겠는가? 작은 마음속에 스스로 봄이 있는 것을!

① 桃源 : 武陵桃源의 略語로 곧 別天地를 이름。中國 古代 晋나라 太元(孝武帝) 년간에 武陵 지방의 한 漁夫가 배를 저어 복사꽃이 아름답게 핀 水源池를 올라가 어떤 굴 속에서 秦의 난리를 피하여 온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그동안 바깥 세상의 변천과 세월이 지난 줄도 모르고 살고 있었다 함。

② 赤松子 : 中國 古代 전설상의 仙人、神農 때의 雨師로서 후에 崑崙山에 들어가 神仙이 되었다

함。

③ 黃石公 : 前漢의 張良에게 兵書를 주었다고 하는 老人、곧 秦의 隱士。

④ 朱陳 : 朱氏 陳氏 兩姓이 婚姻으로 친히 지낸데서 나온 말、옛날 中國 徐州 古澧縣에 朱陳村이란 마을이 있었는데 一村이 오직 兩姓으로서 대대로 婚姻하여 잘 살았음。

⑤ 秦皇 : 秦始皇의 略稱。六國을 멸하고 天下를 통일하여 스스로 始皇帝라 일컫고 咸陽으로 도읍을 옮김。刑罰을 엄히 하고 書籍을 불사르고 學者를 생매장하였으며、처음으로 郡縣制를 실시하고 匈奴를 토벌한 후 萬里長城을 쌓고 華淸宮 阿房宮을 세우는 등 위세를 떨치었음。

子規

蜀禽啼血冤何事　花滿空林月滿山　年年欲盡無窮恨　恨不如歸猶未還

子規①

소쩍새의 피나는 울음 무슨 원한이런가? 숲에는 꽃이 산에는 달빛이 가득하도다。

해마다 다함 없는 恨을 풀고자 하는바、不如歸②를 恨하면서도 오히려 돌아가지 못하도다。

① 子規 : 杜鵑、곧 두견새 소쩍새의 별명。옛날 中國 江左(揚子江 左側)에선 子規라 이르고、蜀右(巴蜀右側)에선 杜宇라 일컬었음。

② 不如歸 : 두견새、소쩍새의 별명。울음소리가 「不如歸去」의 音과 비슷한데서 이른 말。여기에선 돌아가지 못함을 뜻함。

猿猱

三聲實下杜公淚　五嶺空傷白傅心　朝三暮四何爲怒　紅樹果園到處深

원숭이

三聲①은 杜公②의 눈물을 떨어뜨리고、五嶺③은 白傅④의 마음을 상하게 했도다。아침에 셋、저녁에 넷이라 어찌 성내랴? 붉은 나무 과수원이 到處에 많은 것을!

① 三聲 : 원숭이 울음소리를 이름。白居易의 舟夜贈內詩에「三聲猿後垂鄉淚 一葉舟中載病身」이란 詩句가 있음。

② 杜公 : 唐나라 때 詩人 杜甫、字는 子美、號는 少陵、玄宗의 信望을 받았으나 安祿山의 亂으로 사방을 放浪하다가 湖南省 耒陽에서 病死함。李白과 더불어 李杜라 일컬었음。

③ 五嶺 : 中國의 山名으로 大庾、始安、臨賀、桂陽、揭陽 등 다섯 嶺을 이름。이 밖에도 五嶺으로 일컫는 곳이 몇 군데 있음。

④ 白傅 : 唐나라 때 詩人 白居易의 별칭。

鏡

以銅爲鏡顧時時　黑白妍媸不敢私　磨塵全見方塘照　懸壁能知暗室欺

거울

銅으로 만든 거울 때때로 돌아보거니, 검고 희고 곱고 미음 감추지 못하도다.
티끌을 닦으면 연못의 비침도 온전히 보이고, 벽에 걸면 어두운 방의 속임도 능히 안다오.

其二

良工造鏡昔何時　已判公心不用私　君子衣冠看可正　宮娥粉黛
畵難欺

거울 二

良工①이 거울 만듦이 옛적 어느 때런가? 이미 公心을 지녀 사사로히 쓰지 않았도다.
君子도 거울 보아 衣冠을 바로 하고, 宮女의 화장도 거울을 속이지 못하도다.

① 良工 : 재주 있는 匠人, 뛰어난 工人.

誡學徒

萬和方暢已過冬　百日枝頭花又彤　深春消息偕偕鳥　靜夜精神
咽咽蛩　好學無非半道廢　害工愼莫異端攻　引商刻羽誰能識
獨撫床琴有彼傭

學生들을 경계함

겨울 이미 지나고 만물이 화창한바, 백일홍 가지에는 꽃 또한 붉도다.
길은 봄 소식, 새들은 울부짖고, 고요한 밤 정신, 귀뚜라미 목메도다.
學問을 좋아하되 중도에 폐하지 않는이 없고, 고읍를 해치나니 삼가 異端을 따르지 말라.
商과 羽 등 五音을 누가 능히 알겠나? 홀로 거문고만 어루만지는 저 어리석은 이도 있다네.

① 異端 : 옳지 않은 道, 正統이 아닌 邪道, 곧 儒敎 이외의 佛道, 仙道 등을 이름.

鼎

九牧收金鑄九鼎　昔年夏禹享天神　大羹珍味專烹飪　滌出舊汙貴取新

솥

九牧①에서 거둔 金으로 九鼎②을 만들어, 옛적 夏禹③가 天神에 제사 지냈도다.
大羹④의 진기한 맛은 오직 烹飪⑤에 달렸고, 舊惡을 씻는데는 革新을 취함이 귀하도다.

① 九牧 : 九州의 별칭. 옛날 中國의 禹임금이 전국을 아홉개의 州로 나누었다는 行政區域, 곧 冀, 兗, 靑, 徐, 荊, 雍, 豫, 揚, 梁의 九州.
② 九鼎 : 夏의 禹王이 九州에서 金을 거둬들여 鑄造한 솥. 三代 이래로 天子의 보물로서 보존됨.
③ 夏禹 : 夏의 開國 임금. 姓은 姒氏, 號는 禹, 舜의 禪位를 받아 임금이 됨.
④ 大羹 : 워낙 맑은 국, 故事에 大羹은 不和鹽梅라 하여 맑은 국은 소금과 매실, 곧 五味로서 맛을

능히 맞추지 못한다는데서 나온 말. 즉 人治의 어려움을 이른 말.

⑤ 烹飪 : 잘 삶아 익힘. 곧 요리 솜씨.

玉璽

卞和璞玉爲眞寶　受命天王守此章　既壽永昌秦相篆　傳之萬世顯其光

玉璽①

卞和②의 璞玉이 참된 보배가 되어, 天命받은 임금이 이 印章을 지켰도다. 既壽永昌이란 秦相③이 쓴 篆字인데, 萬世에 전하여 그 빛이 드러났도다.

① 玉璽 : 임금의 도장. 玉으로 만든 御印.

② 卞和 : 周나라 때 楚王에게 寶玉을 바친 사람.

③ 秦相 : 秦나라의 宰相. 여기에선 秦始皇이 天下를 통일한 후 丞相을 삼았던 李斯를 이름. 李斯는 荀子에게 글을 배우고 韓非子의 法治主義를 실행함. 書冊을 불사르고 선비들을 生埋葬하여 思想統一을 강행하고 文字를 통일하여 小篆을 제정하고 郡縣制를 실시하는 등 秦나라의 政治가 그의 政策에 기인한 바 많았음.

袞衣

聖人蓋取乾坤象　五采彰施十二章　貴爲天子稱其服　繡繪先明

一太陽

衮衣①

聖人이 하늘과 땅의 형상을 취하여 五色으로 열두가지 무늬를 그렸도다.
귀함이 天子②라야 그 옷이 맞는 것、수 놓은 그림 太陽이 제일 먼저라네.

① 衮衣 : 衮龍御衣의 준말。곧 임금이 입던 正服。
② 天子 : 天帝의 命을 받아 天下를 다스리는 사람。皇帝。

支機石

乘槎海客到雲漢　白日不知身在天　佳人贈石河之上　歸解成都玉府仙

支機石①

海客이 뗏목을 타고 銀河水에 다달아、대낮에 자신이 하늘에 있는 줄 몰랐도다。
佳人이 黃河 상류에서 支機石을 주었던바、成都②로 돌아와 玉府③에 바쳤도다。

① 支機石 : 織女의 돌。蜀漢 때 어떤 사람이 黃河 上流를 찾다가 婦人이 빨래하는 것을 보고 물으니 그 婦人이 이르기를「이 곳은 은하수 입니다」하며 한 돌을 주었다。成都로 돌아와 卜筮人 嚴君平에게 물으니 君平이 이르기를「이는 織女의 支機石이다」하였다는 故事가 있음。
② 成都 : 中國 四川省에 속한 곳으로 옛날 三國時代 蜀나라의 都邑地。

③ 玉府 : 中國 周나라 때 官廳으로 王의 金玉 등 玩好品과 兵器등을 관장하던 곳。

簫

山空夜靜天回斗　一曲簫聲動素秋　風淸蛟舞蘇仙壁　月下鳳飛弄玉樓

퉁소

빈 산 고요한 밤에 斗牛星①이 도는데、한 가락 퉁소소리 가을 기운 통하도다。
맑은바람에 교룡이 춤추는 蘇仙②의 赤壁인가? 달아래 봉황이 날으는 弄玉③의 樓臺런가?

① 斗牛星 : 北斗星과 牽牛星
② 蘇仙 : 中國 北宋때 文章인 蘇軾의 美稱。字는 子瞻、號는 東坡니 그 父인 老泉 洵과 아우인 樂城 轍로 더불어 唐宋八大家로 일컬음。
③ 弄玉 : 春秋時代 秦나라 穆公의 女로서 퉁소의 名手였음。簫史에게 시집가서 퉁소를 배워 어찌나 잘 불던지 鳳凰이 날아와 집위에 앉으므로 穆公이 鳳臺를 지어 주었음。후에 弄玉은 鳳을 타고 簫史는 龍을 타고 함께 하늘로 올라갔다 함。

海棠

翠袖映紅暈生臉　海棠一朶倚新粧　青禽繞樹喚仙夢　肯與姚黃

爭粉香

해당화

푸른 잎 붉은 꽃이 볼에 비치거니、해당화 한송이가 새롭게 단장하누나。
파랑새는 나무를 돌며 신선꿈을 꾸거늘、어찌 姚黃①으로 더불어 향기를 다투랴?

① 姚黃 : 牧丹。곧 모란꽃의 별칭。

蠅

營營逐臭飛還聚　玉麈手中終日揮　雖有可憎難拔劒　風霜搖落見消稀

파리

냄새 따라 오락가락 바삐 날으니、손으로 玉麈①를 종일 휘두르도다。
아무리 미워도 칼을 빼기 어려운바、찬 서리 내려야 보기 드무리라。

① 玉麈 : 玉으로 장식한 파리채의 손잡이。곧 파리채 자루를 아름답게 장식한 것。

閨怨

不掃蛾眉亂蓬首　琅琅別淚乾何時　花前月下無窮恨　欲寄征衣

千萬思

閨怨①

눈썹도 다듬지 않고 쓱대머리 그대로, 구슬 같은 눈물 언제나 마를런지!
꽃 앞 달빛 아래 恨이 다함 없거니, 오직 征衣②를 부치고 싶은 생각 뿐이러라.

① 閨怨 : 부인이 그 남편과 헤어져 있는 怨恨。
② 征衣 : 戰場에서 입는 옷。 곧 軍服。

歌

竹聲非貴人聲貴　一唱雲和不勝春　戛玉鶴鳴發清喉　啼花鶯語動朱唇

노래

피리 소리보다 사람 소리가 더 좋은 바, 雲和①에 한가락 불어 봄기분 이기지 못하누나。
玉이구르고 鶴이울듯 맑은목소리가 나오니, 지는꽃을 슬퍼하는 꾀꼬리 부리를 움직이도다。

① 雲和 : 山名인데 거문고 재료가 많이 생산됨으로써 거문고의 別稱으로 쓰임。 여기에선 거문고를 이름。

夢

平晝所思發宵寐　游魂爲夢夢多春　孔聖見周莊變蝶　隨人品格露天眞

꿈

낮에 생각했던 바가 밤에 나타나거니、넋이 꿈이 되는바 꿈은 봄에 많도다。
孔聖①은 周公②을 보고 莊子③는 나비로 변한바、사람의 品格에 따라 꾸밈없이 나타난다오。

① 孔聖 : 中國의 聖人으로 儒敎의 始祖인 孔子를 이름。
② 周公 : 中國 古代 周나라 文王의 아들이요 武王의 아우임。文王과 武王을 도와 紂를 치고 成王을 도와 王室의 기초를 세우는 한편 制度와 禮樂을 정하여 이바지한 바가 컸음。
③ 莊子 : 中國 戰國時代 楚나라 사람으로 思想家인 莊周의 존칭。萬物一元論을 주창하고 南華經의 著書가 있음。

桂

廣寒宮中丹桂樹　分明花發散天香　搗藥姮娥時落子　人間亦秀九秋陽

계수나무

廣寒宮① 안에 붉은 계수나무는、분명히 꽃이 피어 향기를 하늘에 헤치도다。
藥을 찧던 姮娥②가 때때로 씨를 흘리어、人間에도 또한 九月이면 우뚝 자란다오。

① 廣寒宮 : 달 속에 있다는 宮殿。여기에선 달을 말함。廣寒殿。月宮殿。
② 姮娥 : 달나라에 산다고 하는 美女의 이름。달의 別稱으로도 쓰임。

芝

四皓當年隱商雒　得何神訣駐顔華　莫道金丹能壽世　療飢別有紫芝花

지초

四皓①가 당시에 商洛山에 숨었던바、무슨 秘法을 얻어 華顔②을 유지했던가?
金丹③으로 長壽한다 이르지 말라。療飢에는 따로 紫芝花④가 있느니라。

① 四皓 : 漢 高祖 때 세상의 어지러움을 피하여 商山에 숨었던 東園公 夏黃公、角里先生、綺里季 四人의 白髮老人을 일컬음。곧 商山四皓。
② 華顔 : 꽃다운 얼굴。아름답기가 꽃 같이 환한 얼굴。花顔。
③ 金丹 : 仙人 道士가 金으로 調製했다는 長壽의 妙藥。
④ 紫芝花 : 자주빛 나는 버섯、곧 靈芝。

科擧

國家科制三年比　天子聖明治右文　射策君門登第一　誰云難力

致靑雲

科擧①

국가의 과거를 三年마다 실시하는바, 임금이 賢明하여 文治를 숭상하도다.
射策②으로 君門에 으뜸으로 오를진대, 누가 힘으로 벼슬하기 어렵다 하는가?

① 科擧 : 나라에서 행하던 官吏 채용 시험. 科目에 따라 人材를 뽑아 쓴다는 뜻.
② 射策 : 中國 漢나라 때 科擧의 一種. 經書 또는 政事의 疑問을 策(竹札)에 써서 應試者로 하여금 각자의 능력대로 해석토록 하여 이것으로 優劣을 정하던 試驗. 곧 科擧를 말함.

貘

南方有獸其名貘　惟食鐵銅傳畵屛　天下甲兵若呑盡　可休戰伐獨肥形

貘①

南方에 맥이라 이르는 짐승이 있어, 오직 쇠와 구리를 먹는데 屛風으로만 전한다오.
天下의 甲兵②을 모두 삼켜 치울진대, 전쟁은 사라지고 그는 홀로 살찔지로다.

① 貘 : 中國 南方 산골에 있는 짐승으로 쇠나 구리를 먹고 산다고 함. 이 짐승을 그려 屛風을 만들어 머리위에 펴 놓으면 頭痛이 낳는다고 함.
② 甲兵 : 甲冑와 兵器. 곧 무기를 말함.

霖雨

浮沈水鳥投簷宿　跳躍泥蛙入戶鳴　牀牀屋漏無乾處　幾使杜翁望快晴

장마비

떠도는 물새 처마에 숨어 자고、뛰노는 개구리도 집에 들어 울도다。
곳곳마다 집이 새어 마른곳이 없는바、자못 杜翁①으로 하여금 개이기를 바랄 뿐이네。

① 杜翁 : 晋의 名將이요、學者인 杜預의 존칭。字는 元凱니 武帝 때 吳나라를 쳐서 큰 功을 세움。또한 左傳을 정통하여 春秋左氏經傳集解 및 春秋長歷을 著述하였음。

辯士

辯士最稱儀秦衍　縱橫遊說口懸河　戰國浮榮何足貴　不如商皓紫芝歌

辯士①

辯士중에 張儀② 蘇秦③ 公孫衍④이 으뜸인바、縱橫⑤을 遊說하는 입이 懸河⑥와 같았도다。
戰國⑦의 헛된 榮華가 어찌 귀하겠는가? 商山四皓의 紫芝歌⑧만 같지 못하도다。

① 辯士 : 辯說에 능한 사람。곧 말을 잘하는 사람。

② 張儀 : 戰國時代의 辯論家、蘇秦과 함께 鬼谷先生에게서 縱橫의 술책을 배움。合從連衡의 方策을 六國에 遊說하였으며 후에 秦의 大臣이 되었음。

③ 蘇秦 : 戰國時代의 辯論家、張儀와 함께 鬼谷先生의 門下에서 受學하고 六國을 돌아다니면서 六國合從策을 주창하고 六國의 大臣을 지냄。

④ 公孫衍 : 戰國時代 魏나라 사람으로 號는 犀首、秦나라를 위하여 齊、魏를 설득、趙나라를 공략함。蘇、秦의 合縱의 약속을 깨고 張儀와 사이가 좋지 않아 秦나라로 돌아갔다가 다시 魏나라로 갔음。

⑤ 縱橫 : 合縱連橫의 준말。戰國時代 韓、魏、趙、燕、楚、齊 六國이 同盟하여 秦에 대항하자는 蘇秦의 계책을 合縱이라 하고、六國이 다 秦에 복종케 함을 주장한 張儀의 책략을 連衡이라 함。

⑥ 懸河 : 막힘 없이 흐르는 河水、여기에선 거침없이 흐르는 물처럼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 것을 비유한 말。懸河之辯。

⑦ 戰國 : 戰國時代의 준말。周나라 威烈王으로부터 秦나라의 始皇帝가 천하를 통일하기까지의 약 二百年間을 일컫는 말。

⑧ 紫芝歌 : 紫府의 琴曲歌辭、商山 四皓가 산중에 隱居하여 漢 高祖가 불러도 나아가지 않고 이 노래를 지어 불렀다 함。

金玉

金玉不如雅操持　爾音其相詠於詩　百鍊益精琢成器　待時擬用

出身資

金玉

귀한 金과 玉도 고상한 志操만 못한바, 그 소리는 다만 詩 읊는데 도움이 될지로다.
백번 단련 더욱 정밀해야 그릇을 이루는바, 때를 기다려 쓰면 出身에 도움이 되도다.

自吟

依枕商量萬古雄　皇王帝覇摠空空　三國戰爭春夢裏　六朝翻覆
水聲中　唐宋文章徒自苦　元明學案亦何功　人間應有長生訣
太白願從綠髮翁

스스로 읊음

베개를 기대고 만고의 英雄을 생각해보니, 皇帝, 君王, 覇侯 등이 모두 부질없는 짓이러라.
三國의 싸움도 한마당 봄꿈 속이요, 六朝의 뒤집힘도 물소리 속이로다.
唐, 宋의 文章들은 한갓 스스로 괴로웠고, 元, 明의 學問은 또한 무슨 功이 되었는가?
人間에 응당 長生의 秘訣이 있을 것인바, 太白①도 검은머리 仙翁을 따르고자 원했도다.

① 太白 : 唐나라 大詩人 李白의 字, 號는 靑蓮이니 蜀의 四川 사람. 魁才的인 詩人으로 唐 玄宗의 부름을 받아 官界에 진출했으나 뒤에 추방되어 放浪生活을 하면서 詩作을 계속 하였음. 杜甫와 동시 詩人으로 李杜라 일컬음.

三月一日病中吟

屋上靑山屋下水　昭光又屬落花春　年年衰病恒無減　謾思宗炳臥遊人

三月一日 病中에 읊음

집 위엔 靑山이요 집 아랜 流水인데, 절서는 꽃 떨어지는 봄이 닥쳤도다.
해마다 노쇠한 病이 조금도 낳지않으니, 옛 宗炳①의 臥遊의 故事가 생각나도다.

① 宗炳 : 南宋 때 사람으로 字는 少文인데 거문고를 잘 타고 그림을 잘 그렸으며 매양 山水에 놀면서 가면 문득 돌아올 줄을 몰랐음。 元嘉 년간에 나라에서 자주 불렀으나 응하지 않고 衡山에 초막을 지어 살다가 후에 疾病이 있어 집으로 돌아와 탄식하기를 「늙음과 병이 함께 이르니 名山을 두루 보지 못할까 두렵다」하고 이미 본 곳을 모두 그려서 방에 걸어 놓고 누워서 山水의 그림을 보며 즐겼다 함。

與諸生觀東鶴寺

淸唳復聞鶴寺東　德輝將覽鳳林中　春服旣成春欲暮　緬思曾點舞雩風

여러 學生들과 東鶴寺를 구경하며

鶴의 글읊소리를 東鶴寺 동쪽에서 듣고、德의 빛을 장차 鳳林精舍 안에서 보겠도다。

봄 옷을 떨쳐 입었는데 봄이 저물어 가니、옛적 曾點①의 舞雩②의 놀이가 생각나도다。

① 曾點 : 春秋時代 魯나라 사람으로 字는 晳이니 아들 參(曾子)으로 더불어 孔子의 門人임。

② 舞雩 : 祈雨祭를 지내는 곳、여기에선 舞雩에서 놀고 詩를 읊으며 돌아온다는 뜻으로 論語에 이른 말인데 당시 魯城 남쪽에 있었음。

殷沙夜話

百年殷社夏初長　會不尋常笑一場　天宇欲濃驅雨態　邨燈將盡買月光　詩歸靈境分明畫　客到良辰次第觴　愧我半生風味薄幸逢醮幕送清香

殷沙에서 夜話①

百年의 殷沙 詩會 초여름을 당하여、특별한 모임 웃음의 한 마당일세。

하늘은 흐려 비 몰아올 기색이요、등불은 다 꺼지고 달빛만 밝도다。

詩는 靈境에 이르러 그림처럼 분명하고、손님은 良辰에 다달아 술잔이 돌도다。

나의 半生에 人品 못남이 부끄러운데、다행히 술자리를 만나 즐겁게 보내도다。

① 夜話 : 밤에 모여 앉아 이야기 함。

東社雨中

窄窄殷沙此日寬　心天釀雨要留歡　湖海歸裝將泛舶　溪山浪跡
始彈冠　酒罍興爛還酩酊　詩筵唱斷自清寒　驪駒一曲那堪聽
共把榴花仔細看

東社의 雨中에

비좁은 殷沙 오늘만은 여유롭거니, 中天에 비가 쌓여 다시 머무른다오.
湖海에 돌아갈 봇짐, 배에 띄어 보내고, 溪山에 노는 사람 갓의 먼지를 털도다.
酒幕에서 흥이 일어 도로 비틀거리고, 詩筵에 노래가 끊기니 저절로 조용하도다.
驪駒①의 한 가락을 어찌 듣겠느냐? 함께 석류꽃을 붙잡고 자세히 보도다.

①驪駒 : 검은 말. 여기에선 送別할 때 부르는 노래.

贈別崔璣秀歸醴泉庚申三月

世居同郡又同鄰　離合頻頻歎不均　畫裡江山閱千劫　門前桃李
遇三春　此夜君聽歸蜀鳥　如今我作望幷人　臨行爲贈重來約
鐵路何時無火輪

崔璣秀가 醴泉으로 돌아감을 전송하며

한 고을에 世居①하며 또한 한 이웃으로, 離合이 잦지만 고르지 못함을 탄식하노라.
그림속의 江山은 오랜 세월을 지났고, 문 앞의 桃李는 새 봄을 만났도다.
이밤에 그대는 소쩍새 소리가 들리는가? 이제 나는 幷州②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네.
길을 나섬에 다시 만날 기약을 주게나, 鐵路에 어느 때인들 汽車가 없겠는가?

① 世居 : 한 고장에서 대대로 사는 것.
② 幷州 : 第二의 故鄕이라는 뜻. 오래 살던 他鄕을 第二故鄕으로 그리워한데서 나온 말. 唐나라 사람 賈島가 幷州에 오래 살다가 떠난 후 詩를 지어 그곳을 고향처럼 그리워 했다 함.

輓苧洞金處士

兜率峯南苧洞林　公懷至寶晩登臨　英年詞賦凌雲氣　盛代經綸捧日心　劒欲衝星磨一片　梓須支厦長千尋　文章有命時將晩
富貴無心性不淫　陋巷一瓢無改樂　高山數曲自知音　元來鸞鳳高飛遠　畢竟龜龍潛伏深　邪說豈留君子耳　囂塵不上達人襟
平林香氣風前靄　空谷春聲雨後禽　白日簾垂須問石　綠疇鋤去却揮金　誨人以德由天性　敎子當官貽寶箴　情厚鄰朋無事坊

俗淳傍舍送醪斟　心魂幾惱鄉關夢　顔髮忽驚歲月侵　桑下有緣
三宿了　金丹無信一疴沈　林花紅落聽鵑淚　蘿月蒼凉怨鶴吟
不死至人猶自古　幻生才子那無今　靑蛇海上浪吟呂　赤鯉水中
乘化琴　樹穴探來環可得　寺門閉去貌難諶　春殘脩竹寥寥峽
歲暮寒楓瑟瑟潯　昔日風光歸曲水　何時雪興訪山陰　此生迷復
將安仰　淚望堂封萬木森

苧洞 金處士에 輓辭①

兜率峯 남쪽 苧洞 숲속 마을에、公이 至寶②를 품고 만년에 이르렀도다。
젊어서 詞賦③는 구름에 닿을 기개였고、왕성한 經綸④은 해를 받들 마음이었네。
칡로 벌을 찌르고자 한 조각을 갈았고、가래나무는 집을 의지하여 천길이나 높도다。
文章도 운수가 있는바 시기가 늦었고、富貴에 마음이 없어 성품이 음란치 않았도다。
陋巷의 한 표주박에도 즐거움을 고치지 않았고、高山의 몇 곡조에 소리를 스스로 알았도다。
원래 난새와 봉황은 멀리 높게 날고、마침내 거북과 용은 깊이 몰래 숨는다오。
邪說⑤이 어찌 君子의 귀에 머무르랴！囂塵⑥은 達人의 가슴에 오르지 않는다오。
펀펀한 숲에 사향노루는 바람 앞에 향기롭고、텅빈 산골에 새는 비 온 뒤에 봄 소리로다。

한낮에 발을 드리우고 모름지기 돌에게 묻고、발에서 김을 매며 문득 金을 뿌리쳤도다。
사람들에게 德으로써 가르침은 타고난 天性이고、아들에게 官職에 대한 훌륭한 경계를 가르쳤도다。
정이 이웃 벗처럼 두터워 마을이 무사하였고、풍속이 이웃 집처럼 수박하여 술을 보냈도다。
心魂은 고향 꿈에 자못 괴로웠고、顚髮은 세월의 흐름에 문득 놀랐도다。
桑下⑦에 인연이있어 사흘을 머물렀는데、金丹⑧은 믿을 수 없는바 한 병이 깊었도다。
꽃 떨어진 숲속에 두견새 소리를 듣고、싸늘한 달빛 사이에 학의 울음 슬퍼했도다。
至人⑨은 죽지 않음이 오히려 옛부터인데、才子⑩는 다시 태어남이 어찌 이제는 없는가?
푸른 뱀은 바다 위에서 풍류를 읊고、붉은 잉어는 물 속에서 거문고를 타도다。
樹穴을 더듬어와서 옥고리를 가히 얻고、寺門을 닫고 떠나니 모습을 헤아리기 어렵도다。
봄 지난 긴 대나무 쓸쓸한 골짝이요、해저문 차가운 풍나무 적적한 물가로다。
옛날 風光은 曲水로 돌아갔거니、어느때나 雪興으로 山陰을 찾을건가?
혼미한 내가 장차 어디에 의지할건가? 울면서 무덤을 바라보니 萬木이 우거졌도다。

① 輓辭 : 죽은 이를 슬퍼하여 지은 詩。
② 至寶 : 지극히 진귀한 보배。唐나라 때 詩人 白居易는 詩에 이르기를「至寶有本性 精剛無與儔」라 했던바 여기에선 本性、곧 天性을 이른 말。
③ 詞賦 : 韻字를 달아 지은 漢詩(文体의 一種)
④ 經綸 : 일을 조직적으로 잘 경영함。天下를 다스림。또는 그 方策。
⑤ 邪說 : 올바르지 않은 말。邪惡한 말。
⑥ 囂塵 : 시끄럽고 먼지가 많음。곧 俗世의 속된 생각。

⑦ 桑下 : 뽕나무 아래、여기에선 故鄕을 말함。
⑧ 金丹 : 仙人 또는 道士가 金으로 제조했다는 長壽의 妙藥、神藥。
⑨ 至人 : 德이 높은 사람。곧 聖人을 이름。
⑩ 才子 : 재주와 藝能이 갖추어진 사람。才士。

輓金竹圃 舜欽

芙蓉西屹立　何不采其薇　羶腥汙世俗　是是又非非　殷末有淸聖　卜鄰浩然歸　鳳凰飢不啄　能守丈夫節　覽德欲何之　回翔入丹穴　白日雷先發　靑山雉競悲　皇天猶有感　微物詎無知

金竹圃舜欽에 輓辭

芙蓉山이 서쪽으로 높다랗게 솟았는데、어찌 그 곳의 고사리를 캐지 않았나?
추잡한 짓은 세상의 풍속을 더럽히는바、옳은 것은 옳다 그릇된것은 그르다 하였도다。
殷나라 말엽에 淸聖①이 있었거니、이웃을 가려 浩然히 돌아왔도다。
봉황은 굶주려도 곡식을 쪼지 않으시、丈夫의 節操를 능히 지키었도다。
봉황은 德을 보고 어디로 가고자 하는가? 빙빙 돌다가 丹穴②로 들어갔도다。
대낮에 우뢰가 먼저 일어나니、푸른 산에 꿩이 다투어 슬퍼하도다。
하늘도 오히려 느낌이 있거든、微物이들 어찌 알지 못할손가?

① 淸聖 : 伯夷와 叔齊를 높여 부르는 말。
② 丹穴 : 丹砂가 나오는 구멍、여기에선 鳳凰이 사는 곳。

輓俞公 鎭邦

一瓶酒一尾魚　慇懃訪我草廬　託子斷無佗語　若成人其樂且

俞公 鎭邦에 輓辭

한 병 술과 한 마리 고기로、은근히 나의 초막을 찾아 왔도다。
아들을 부탁할 뿐 다른 말은 없었고、사람만 만들어 주면 나는 즐겁다 하였지!

其二 代人作

公性溫柔眞稟天　安於淸儉樂餘年　一子誠孝源百行　石珍黔婁美兩專

俞公 鎭邦에 輓辭 代人作

公의 성품 溫柔함은 참으로 타고 났거니、청렴 검소하게 餘年을 즐겼도다。
한 아들 孝誠은 모든 행동의 근원이었던바、石珍①과 黔婁②의 아름다움을 모두 겸했도다。

① 石珍 : 人名
② 黔婁 : 戰國時代 齊의 隱士。威王의 스승。

輓從姪仁德 二首

生同一室寓同鄰　八耋光陰白髮新　相憐同病今相別　忍送此行淚滿巾

從姪仁德에 輓辭

한 집에서 태어나 이웃에 살았거니、八十年 세월에 白髮이 새롭도다。同病을 불쌍히 여기다 이제 서로 영결하니、억지로 보내는 이 길에 눈물이 수건에 차누나。

其二

君於五福得其三　及到稀齡從子南　彩石安知非吉壤　惟望奕世最多男

從姪仁德에 輓辭

그대는 五福①에 그 세가지를 얻었거니、七十에 이르러 아들을 따라 내려왔도다。彩石里가 어찌 좋은 곳이 아니겠나? 오직 代代로 아들 많이 두기를 바라노라。

① 五福 : 다섯 가지의 복。곧 壽、富、康寧、攸好德、考終命。

輓李進士命羽○代舍季作

三綱高節一家出　名祖後孫繼大名　休道彝倫此世斁　能扶遺教遂其情

李進士命羽에 輓辭 아우를 대신하여 지음

三綱①의 훌륭한 행위가 한 집에서 났거니、名祖의 後孫으로 명성을 크게 이었도다。
人倫이 이 세상에 없어졌다 이르지 말라、능히 遺敎②를 받들어 그 뜻을 이뤘도다。

① 三綱 : 君臣과 父子와 夫婦의 道。
② 遺敎 : 前人이 남긴 가르침。遺訓。

賀黃公永一晬辰

閱覽人間世　最難者晬辰　易爲鰥寡獨　或有憂患貧　妹兄能免此　淸閒過六旬　親戚團欒面　子姪揚立身　偕老琴瑟樂　戲幼棠花春　再回始絺節　重逢設弧晨　不忘劬勞德　那無慶歡陳　花筵開四座　芳罇會比鄰　爲公有心祝　回婚何歲臻　風塵豈論

榮 荊茅善養眞

黃公永一의 晬辰①을 賀禮함

사람 사는 세상을 두루 보건대, 가장 어려운 것이 晬辰이라오.
홀아비 홀어미 아들 없는 이 되기 쉽고, 혹은 가난과 憂患이 있소이다.
妹兄은 능히 이를 면하고, 淸寒하게 六旬을 지냈소이다.
親戚들은 대하는 모습이 정답고, 子姪들은 出世하여 명예를 떨쳤도다.
부부가 함께 늙으니 금슬이 좋고, 아이들이 희롱하는 아가위꽃 봄이로다.
始絺②의 節序가 다시 돌아와, 設弧③의 生日을 거듭 만났도다.
낳아 길러 준 은덕을 잊지 않을진대, 경사스런 잔치를 어찌 베풀지 않겠는가?
환갑 잔치를 사방 자리에 열어, 좋은 술에 이웃 사람이 모였도다.
公에게 마음 속으로 축하하노니, 回婚④은 어느 해에 닥치는가?
어지러운 세상에 어찌 榮華를 논하겠나? 가난한 가운데도 眞心을 잘 기르소서.

① 晬辰 : 生日, 여기에선 回甲을 이름.
② 始絺 : 中國에서 天子가 孟夏(四月)에 처음으로 葛布를 입었던데서 나온 말로 여기에선 陰四月을 이름.
③ 設弧 : 활 쏘는 장치를 설치함. 古代 中國에서 男子를 낳으면 뽕나무 활과 쑥대 살로 天地四方을 쏘아 성공을 기원한데서 유래함.
④ 回婚 : 偕老한 夫婦가 결혼한지 六十週年의 일컬음.

賀素軒權公 人夏 晬辰

襄陽縣上素軒亭　天賦我公養性靈　生在東方君子國　壽齊南極老人星　榮溢金資耀鄉里　慶流玉樹滿階庭　文章德業觀身後時雨空山萬木青

素軒 權公 人夏의 晬辰을 賀禮함

襄陽 고을 위에 素軒亭이 있거니、천품 좋은 公께서 性情을 기르도다。
出生은 東方 君子의 나라이고、壽命은 南極 老人星과 함께 하도다。
영화는 金資에 넘쳐 鄉里에 빛나고、경사는 玉樹에 흘러 階庭에 가득하도다。
文章과 德業은 죽은 후에 드러날지니、空山의 알맞은 비에 萬木이 푸르도다。

渡漢江

白頭頻渡漢江頭　津吏皆言老可休　答曰太公年八十　却辭渭北佐西周

漢江을 건너며

白頭로 빈번히 건너는 漢江 나루에、뱃사공은 모두 老人은 쉬라 말하네。

대답하노니 太公①은 나이 八十에、 문득 渭水를 떠나 西周②를 도왔다네。

① 太公 : 周 文王 때 宰相인 太公望、 姓은 姜、 名은 呂尙、 곧 姜太公을 이름。

② 西周 : 中國 고대의 王朝이름。 武王으로부터 幽王에 이르기까지 西京(鎬京)에 도읍하였던 시대。

附黃騏夏贈章李參書

殊方喜極見情人　皓首提携錦水春　爲說今行還自洛　暮年團合與君隣

李參書가 漢城에 들어가 기한이 지난데도 돌아오지 않음으로 마음이 답답하여 三首 객지에서 기쁘게도 친구를 만나、 백발로 錦江가에서 손을 맞잡았네。 말하노니 이제 서울에서 돌아오게、 늙으막에 그대와 단란히 지내고 싶네。

二

丁寧莫買沃州山　惱被人知不自閒　是時只得幽潛在　麋鹿魚鰕共一般

二

바라노니 沃州의 산을 사지 말게나、 남이 알면 시달려 한가치 못하네。

이때에 할 수 있는 것은 깊이 숨어서, 사슴과 물고기로 함께 지내는 것일세。

三

爲荷同隣復惠規　此心依賴日遲遲　孤懷不耐登高去　胡乃征驂久過期

三

이웃에 함께있어 은혜를 입고자 했거니, 마음으로 의지한지 날이 오래 되었네。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 높은 곳에 올랐거니, 어찌 여행의 기한이 이렇게 오래 인가?

失題四

噫凡有血氣之類者　孰不欲樂生惡死　至於板蕩之世　危險之際　捐生取義　視死如歸者　其惟千百歲　一二人而已　然則夫忠臣也　而贈其職　褒其忠　烈女也　而旌其閭　彰其烈者固矣

夫而褒贈婦而旌　東國綱常萬古明　扈駕北行忠已竭　抱兒南下

志難爭　風聲可惜當年設　門戶安知是日榮　闔境衣冠趨慶宴
臨罇爲賀後孫誠

失題

아아! 무릇 血氣 있는 자로서 누군들 살기를 좋아하고 죽기를 싫어하지 않으리요만 어지러운 세상 위험한 즈음에 목숨을 버리고 義理를 취하여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기를 故鄕에 돌아가는 듯이 여기는 자는 오직 백년 천년에 한 두 사람일 뿐이다。 그러므로 무릇 忠臣에게는 官職을 追贈하여 그 忠義를 표창하고 烈女에게는 旌閭를 세워 그 烈行을 표창하였던바 참으로 그리해야 옳다。

丈夫에겐 贈職을 婦人에겐 旌閭를 표창한바、 東國의 綱常①이 만고에 밝았도다。
御駕를 호종하여 北行에 충성을 이미 다하고、 아이를 보듬고 南下함에 뜻을 빼앗기 어려웠도다。
名聲으로 당시에 설치함이 가히 중한바、 家門에 오늘의 영예를 어찌 알았으랴!
온 지역 人士들이 다달은 경사스런 잔치인바、 술잔을 대하여 후손들의 성의를 하례하노라。

① 綱常 : 사람이 행하여야 할 道理、 곧 三綱과 五常의 준말。

其二

疾風勁草中流砥　抵死不移公執心　禮俗千年能世守　老成儀範

見於今

失題

거센 바람앞에 굳센 풀과 中流砥柱①와 같은바, 죽기에 다달아도 공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도다.
禮義의 풍속 千年토록 대대로 지키어, 익숙한 바른 태도 오늘날 보겠도다.

① 中流砥柱 : 黃河 가운데 거친 물결에도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기둥 모양의 돌, 곧 亂世에 처하여 節操를 굽히지 않음을 비유한 말.

其三

珠淵沙石玉山木　榮潤厥施多歷年　風物却隨人事變　桑田碧海亦堪憐

失題

珠淵의 모래와 돌이며 玉山의 나무는, 번성하고 윤택하여 그 쓰임이 많도다.
경치는 문득 人事에 따라 변하거니, 桑田碧海① 또한 어쩔 수 없으렸다.

① 桑田碧海 :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되고, 푸른 바다가 뽕나무 밭이 되듯이 세상일이 덧없이 變遷함을 비유한 말.

其四

猿啼客散洛江頭　月吊黃昏水咽流　永夕思君君不見　泉坮將有會時不

失題

원숭이 울고 나그네 떠나는 洛東江가에、달은 黃昏을 슬퍼하는듯 물은 목메어 흐르누나。
밤새껏 그대를 생각하나 그대는 보이지 않으니、장차 저승에서나 만날 수 있으려나?

書

與艮齋田公 愚乙卯

月前華函繼到 而仁矩因事出他 今有信便 又緣山事出去安東 使渠不能修答書 感悵何言 伏惟秋候過半 道體連爲康泰 夏間泄候卽復天和 更無餘害 庇下諸節 勻穩吉否 仰溸且祝 病生 眩中添以臀腫 數月委臥 今雖完合 尙有未便 苦悶難狀 基福三母子 幸無病 是可自慰 年事 峽豐野歉 而雖無饑荒 以賦役 民情甚嗷嗷時運也 柰何 便忙 畧告安報耳 餘在追後仁矩書備告 不備謹候

上

艮齋田公에게 한 편지 乙卯

지난달에 편지가 이어 왔는데 仁矩가 일이있어 出他하였고 이제 信便이 있지만 또한 山事가 있어서 安東을 가느라고 答書를 올리지 못하게되어 미안한마음 말 할 수 없습니다。 생각컨대 가을이 반이 지났는데 道體가 계속 편하시며 지난여름 설사증후에 쾌차하여 여독이 없으시고 집안이 모두 편안하시기를 비는 바입니다。 病生은 현기증에다 둔종

으로 두어달 누었다가 이제 나았으나 아직도 불편하니 고민이 많습니다。 基福三母子가 무병해서 이것으로 自慰합니다。 시절은 풍년이 들어 굶주림은 없으나 부역으로 民心이 흉흉하오니 時運이라 어쩌겠습니까。 便이 바빠 대강 안부를 告하오니 자세함은 추후 仁矩의 答書에 告하도록 하겠습니다。

與黃湖宗中 庚申十月

學禧 窃嘗聞 孝爲百行之源 萬善之主 而孝莫如尊其祖 尊之當如何 亦不過曰究其實而稱述之 體其美而愛慕之 故子思子作中庸 述周公之德曰 夫孝者 善繼人之志 善述人之事者也 子孫之於祖先 有善而不知 有徵而不傳者 聖人固譏之以不明不仁矣 然則 其於有遺蹟 而使之泯 蒙餘烈 而不知慕焉 是豈孝子慈孫之所可忍耶 噫 惟我先祖文僖公 實爲我鐵李累百世 積仁垂裕之鼻祖 亦麗氏四百年 敵愾補闕之賢臣 公生乎高麗中葉 早孤 而學於舅氏白文節 德望顯隆 文隸名世 歷事元宗忠烈 位居總宰 攝

政三年 國無間言 留鎭機務 百僚俯聽 回鑾駕於中朝 代蓮詩而
辨惑 欽慕公義 懍然千載 公卒 命葬王禮 洞名傳今 封環四里
江山無改 龍鱗香爐 御賜赫然 泉峯故事 野老有云 文獻未徵 蹟
沒草萊 公靈陟降 儼然塋域 第恨世代沈遠 治化屢改 追慕先烈
曷勝杞宋之歎 其所幸存而未泯者 尚未能刻文竪石 以表墓道 使
祖先勳德 只有古老相傳之諺 此豈非吾一宗之遺憾 而爲子孫者
之所深憂歟 曩於甲戌之歲 族丈諱璞 幹任譜事 慨然有意於追慕
之事 設所於榆湖先齋 逮乎役畢而歸 畫付三百文 使一二宗人
幹任竪石 發凡起例 以嚴宗規 厥後 任事 莫能解意 碑不成樣
規亦靡遵 自是 蠹鼠覬覺 弊不可勝 齋宇既毁 邱隴遂赭 設壇無
據 江水反流 香火幾絶 享需沒策 遠近雲仍 莫不憂悔 拜庭省掃
豈勝歎恨 何幸 僉議發憤 改轍謀猷 享儀略備 宗規復振 昨歲奠

會設條告墓 以敦族誼 孝思惟勤 至若壇享 非徒無據 實爲未安
祖尊孫卑 理明義的 神人無異 推情可知 祖孫共室 拱奉有異 心
能安享 況乃 孫厚而祖薄 是可曰 尊祖謹奠之設 且恐無墓設壇
弊將末如何 則夫墓者 祖先體魄所安之地 仁人君子 所當盡誠者
也 若乃非其地而設奠 敬愛何由 至於先輩設壇 寔出於情迫 然
亦不過莫辨墳域 就其地近 而別設壇奠 禁護邱隴 則無敢有移其
疆 而取其便耳 情以裁之 義以斷之 質諸禮防而講辨 詢議宗席
而無疑 敢告厥由 遂掇壇獻 人神具吉 安享墓薦 且洞口碑 號云
神道 稱墓無文 謬妄莫甚 墓前表石 短碣無冠 固非大夫墓儀 故
今春 命家兒 偃碣竪碑 又除墓傍 開地爲平 以爲頒需之所 祭畢
燕飲 講究宗系 深體萬殊一源之義 相加和敬 以敦百世一家之誼
則斯豈非吾宗族修仁之幸福 抑亦文僖公陰佑其德歟 不佞 猥受

諸宗之託 忝在有司之任 病未能赴席末而敬奠 只以一言告之 夫祭 所以寓誠敬於儀物 以致孝焉 苟非其誠 神豈歆格 惟諸宗 共勉而謹愼之哉 第神道記文 前人旣誤 每欲圖新 因循未果 亦已年所矣 今則舊碑已掇 改竪未可遲延 且恐世亂此極 祖先緖餘益復難傳 記實一事 尤爲急務 惟願僉宗 亟發追慕之誠 共敦是事 顯揚祖烈 繼述先意 則不佞之所心禱 而亦一族之幸甚 共諒而深裁之焉

黃湖宗中에 보낸 편지

學禧는 일찍이 들으니 孝는 百行의 근원이요 萬善의 主가 되는 것이며 孝中에는 자기의 祖上을 尊崇하는 것이 제일인데 尊崇하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事實을 알아서 기록하고 아름다운 일을 본받고 사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子思께서 中庸을 지어 周公의 德을 기록 하시면서 말씀하시되 『대개 孝라는 것은 父母 祖上의 뜻을 잘 繼承하며 事業을 잘 記述하는 것이라고 하시었다』 子孫들이 祖先의 善行이 있어도 알지 못하고 증거가 있어도 後世에 傳할 줄 모르게 되면 聖人이 뚝뚝치 못하고 착하지 못하다고 흉을 보았다。 그렇다면 그(文僖公) 遺蹟이 있는데에도 功績을 없어지게하여 사모할줄 모르게 된다면은

이런일이 어찌 孝子와 慈孫들이 참아 할 일이더냐。 아! 우리 先祖 文僖公께서는 참으로 우리 鐵城李氏를 수백대 가도록 덕을 쌓서 뒤가 잘되도록 하신 큰 祖上이시고 또한 高麗 四百年의 忠誠스럽고 위대하신 賢臣이시다。 公께서 高麗中世에 나시어 일찍이 아버님을 여이시고 외삼촌 白文節公께 배우시어 德望이 높고 글과 글씨가 세상에 드러나서 元宗과 忠烈王을 차례로 섬기시어 벼슬이 總宰가 되시고 三년동안 임금대신 政事를 맡으셨어도 나라에 유언비어가 없었고 군기와 정무를 맡아 보실때 百官이 머리숙여 들었으며 中國에서 임금님을 모시고 돌아올 적에 蓮女의 詩를 代作하시어 여색에 빠지지 않게하시니 公의 의로움을 흠모함이 천년토록 숙연할 것이다。 公이 돌아가신뒤에 王禮로 葬事지내라 命하심으로 洞名이 지금까지 전하며 四里들레를 封한 강산이 여전하고 용을 그린 향로를 임금이 내리셔서 빛이나고 泉峯의 옛일(귀양사시던 곳)을 옛 노인들이 전하는데 文獻의 증거가 없어 자취가 풀밭에 묻혔으나 公의 영혼은 묘역에 계실것이다。 그래서 한스러운 것이 世代가 점점 멀어지고 세상이 점점 바뀌게 되면 先祖의 功績을 추모하고자 해도 증거가 없는데 어찌하랴。 사적으로 다행히 남아 없어지지 않은 것이나마 글을 돌에 새겨 墓道에 表하지 못하고 祖先의 功德이 노인들의 전설로만 전하고 있으니 이 어찌 우리 一族의 遺憾이며 子孫들의 깊은 걱정이 아니겠는가? 지난 甲戌년에 族丈 璨께서 족보를 맡아 하시면서 祖先을 追慕하는데 뜻이 있어서 楡湖齋에 보소를 차리고 족보가 끝나 돌아가기에 이르러 잔여금 三百文을 보내서 一、二일가분에게 神道碑 세울 것을 부탁하고 계획까지 치밀하게 세워주었는데 맡은 분이 그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여 碑의 모양도

갖추지 못하고 계획대로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때부터 좀벌레지와 쥐같은 무리가 끼어들어 폐단이 말할 수 없어서 齋室이 무너지고 墓所도 묵게 되었다。 근거없는 設壇이 江물이 거꾸로 흘렀고 祭享을 지내지 못하게 되고 祭需마련책이 없게되어 遠近子孫들이 걱정과 후회치 않는 이 없어서 성묘할제 탄식을 금할 수 없었다。

다행히 宗論이 일어나 계획을 바꾸어 제향준비도 약간되고 宗規도 다시 마련되었다。

昨年宗會때 宗規를 墓所에 告하고 일가간에 친목이 두터워져서 爲先心이 독실해졌다。

五世의 壇享은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실로 未安한 점이 있다。 祖가 높고 孫이 낮은 것은 이치나 의리가 분명하여 귀신과 사람이 다를게 없는 것은 정리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이다。 祖와 孫을 한곳에 모셔놓고 祭需 받드는 것이 다르게 되면 마음이 편케 흠향하실 수 있겠는가? 항차 孫은 풍성하게 祖는 박하게 한다면 이것이 조상을 높이고 제사를 조심하는 행사이겠는가? 또한 墓가 없다하여 設壇하는 폐단이 장차 어찌 될지 모를 일이다。 대개 墓라는 것은 祖上의 체백이 편안히 계신곳이라。 착한 자손들이 마땅히 정성을 다할 곳이지만 그런곳이 아닌데다가 제를 올린다면은 공경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어디서 나오겠는가。 선배들이 설단한 것이 어쩔 수 없어 했지만 그러나 분명 그곳에 분묘가 있었던 봉분을 잃었을 때 그 근처에 設壇享祀하면서 그 근처를 수호했지 감히 그곳을 떠나서 便利爲主로 했던것은 아니었다。 인정으로 헤아려보고 의리로 판단하고 예문에 근거하여 講論하고 종회에 토론하여 이의가 없음에 이르러 드디어 그 이유를 告하고 壇所를 철거하여야만 神과 人이 모두 좋아하고 墓祭를 편안히 모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洞口

碑를 神道碑라고 하는데 墓에 대한 글이 없으니 허망하기 짝이 없다。 墓앞의 表石은 작은 비에다 갓도 없어서 참으로 大夫墓의 체면이 아니어서 금년봄에 나의 자식(仁杲)을 시켜서 작은 비를 치우고 큰 비를 세웠으며 또한 산소옆에 터를 닦아서 음복할 곳을 만들어서 제사를 마치고 음복하면서 조상의 계통을 찾아 모든 일가가 하나임을 체험하여 서로 화목하고 공경하여 百世가 되어도 한집안이라는 정의를 두텁게 하게되면 이 어찌 우리 종중이 좋은 일을 하는 행복이 아니겠으며 또한 文僖公선조께서 음으로 도와주신 덕분이 아니겠는가。 제가 외람하게도 宗中의 부탁을 받아 有司의 책임에 있으면서도 病이 들어 宗席에 참여하여 享祀를 올리지 못하고 한 말씀을 올립니다。

대개 제사라는 것은 제수에다 정성을 곁들여서 孝誠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된 정성이 없게되면 혼령이 어찌 흠향하시겠습니까。 종친 여러분께서는 함께 힘쓰고 조심해 야겠습니다。

또한 神道碑의 記文은 먼저분들이 이미 잘못하여 매번 새로 세우고자 하면서 미루다가 결단을 못내려서 몇해를 지났는데 지금은 그전의 碑를 이미 치웠으니 새로 세우는 일을 지체할 수 없고 또한 세상의 어지러움이 극에 달함에 祖先의 공적이 전해지지 못할까 두렵고 事實을 記錄하는 사업이 급선무가 되기 때문에 원컨대 종원 여러분은 빨리 追慕의 정성을 내시어 함께 이일을 이루시어 조상의 공적을 顯揚하고 先人들의 뜻을 이어가는 것이 제가 마음으로 비는 바이며 또한 一族의 다행한 일이오니 함께 이해하셔서 결정해 주십시요。

祭文

祭李公　文

維歲次戊申正月丁亥朔初六日壬辰　齊衰人　固城李學禧　使家兒仁矩　哭奠于故處士月城李公之靈曰　嗚呼　公之去世　遽然二朞以我無似　失所依仗　言念疇昔　痛寫悲懷　托以瓜葛　契重管鮑　幸接芳隣　如入蘭室　老成典型　儒雅規模　敦厚周愼　外使人而觀感　謙約節儉　內正家以貞吉　嗚呼　際此時運之不淑　色鴻之擧　窟兎之計　胥息爰居於此峽中　謀身裕後之策　可謂同心相得矣　那知命道多舛　造物便猜　二竪爲祟　幽明已別　痛之何及　痛之何及　何幸四葉賢允　繼以克家　不墜先業　世人所謂死而不死　爲我公所道也　天欲曙矣　几筵將掇　書不盡言　言不盡意　靈如不昧　庶幾鑑此　嗚呼哀哉　尚饗

李公에 대한 祭文

維歲次 戊申(一九〇八) 正月 丁亥朔 初六日 壬辰에 齊衰人 固城 李學禧는 家兒 仁矩를 시켜 故 處士① 月城李公의 靈前에 哭奠②하며 아뢰나이다。

아아! 公이 세상을 떠난지 어느덧 二年이 되었나이다。 내 無似③하여 의지하는 지팡이를 잃은 사람으로써 옛 일을 생각컨대 슬픈 회포가 배우 사무치옵니다。

瓜葛④로 맺어져 그 親誼가 管鮑⑤처럼 두터운데다 다행히 이웃에 접하여 향기가 蘭室에 드는 것 같았나이다。

그리고 어른다운 모습과 바른 규모로써 도탑고 두루 삼가함은 밖에 사람들이 보고 感化하였으며 겸손하고 절약 검소함은 안으로 집이 안정되어 좋아졌나이다。

아아! 이렇듯 時運이 좋지 않은 때를 당하여 기미를 보고 놀라서 기러기가 날아가고 토끼가 굴 속으로 숨듯이 이 산골 속에서 지내면서 몸소 後孫의 福을 지을 계책을 꾀함으로써 가히 이르되 마음을 같이 함을 얻었아옵니다。

그런데 어찌 運命이 어긋짐이 많고 造物主⑥가 무득 시기하여 二豎⑦가 빌미가 되어 幽明⑧을 달리 할 줄 알았나이까? 슬픔을 어찌 다 이르고 슬픔을 어찌 다 이르겠습니까?

다행히 네 어진 아드님이 계속 집을 잘 다스려 先業을 떨어뜨리지 않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이른바 죽었어도 죽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 公을 두고 이른 말입니다。

하늘이 밝아지려 하옵니다。 几筵⑨을 거두기에 이르러 글로는 말을 다하지 못하겠고 말로는 뜻을 다 나타내지 못하겠나이다。 魂靈께서는 어둡지 않으시니 이를 밝게 헤아려

주시기 바라옵니다。 아아! 애통하옵니다。

① 處士 : 벼슬을 하지 않은 선비、 곧 세상에 나서지 않고 조용히 草野에 파묻혀 사는 선비。

② 哭奠 : 喪中에 靈座에 祭物을 올리고 號哭하는 것。

③ 無似 : 못 생긴 사람이라는 뜻、 자기를 낮추어 쓰는 말。 곧 不肖와 같음。

④ 瓜葛 : 외와 칡은 다같이 넝쿨로 자라는 풀이라는 뜻에서 一家 姻戚을 일컫는 말。 여기에선 婚姻으로 인한 姻戚을 가리킴。

⑤ 管鮑 : 管仲과 鮑叔、 모두 春秋時代 齊나라의 賢臣。 身分이 貧賤하였을 적부터 富貴한 후에까지 友情이 퍽 두터웠음。

⑥ 造物主 : 天地 자연의 모든 事物을 만들고 또한 主宰하는 神。

⑦ 二豎 : 疾病의 별칭。 옛날 中國 晋나라 景公이 병으로 앓아 누워 있을 때 꿈에 더벅머리 두 아이가 나타났다는 故事로써 곧 病魔를 이름。

⑧ 幽明 : 저승과 이승。 귀신과 사람。 冥土와 現世。

⑨ 几筵 : 죽은 이의 魂魄이나 神主를 모셔 두는 곳、 곧 靈座。

祭通政南公廷欽文

維歲次乙卯九月癸酉朔十二日甲申 即近故 通政大夫英陽南公初朞之日也 前夕癸未 誼弟固城李學禧 使舍弟學模 謹具菲薄之奠 告祭于儀床之下曰 嗚呼 吾今年七十餘矣 朋友之先後零落

者何可勝數而獨於兄慟悼傷念愈久而不忘夫以兄風格峻整意度曠遠胸懷坦夷論議不爲苛切而常持大體心術不爲剋核而總歸和平處世之規齊家之法弛張俱宜雖無博覽經史奇偉文詞殊有得於古人寬大之風豈今世齷齪瑣細程規是以昔余乙未葬親於仙川也山脊步數最近於兄之先塋故以此爲慮矣一見如舊少無拘碍許以同山遂結以管鮑之交關張之誼兄乃盛門孤族我是客地孤蹤兩孤相得可謂輔車唇齒相依也幾年前兄率令彧策款段枉臨弊廬多日談論津津道情素曇曇露肝膽保先壠之計裕後昆之策靡不畢陳而顧我朝暮人事安得無對面金石相約因以分袂矣豈意此別遂爲幽明永訣耶嗚呼兄之心德如是故福源無窮芝蘭滿庭天爵自至壽考令終此豈非天爵報施善人者歟嗟我厄眩日甚人事久廢初不能匍匐終不得一哭

只將哀辭替告 俯仰慚痛 尤難堪抑 惟冀兄靈 鑑此微誠 嗚呼哀哉慟哉 尚饗

通政 南公廷欽에 대한 祭文

維歲次 乙卯(一九一五) 九月 癸酉朔 十二日 甲申은 곧 近來의 故 通政大夫 英陽南公의 初朞(小祥)의 날입니다。 前日 癸未日 밤에 誼弟① 固城 李學禧는 舍弟 學模를 시켜 삼가 변변치 못한 祭需를 갖추어 儀床 아래에 奠祭하며 아뢰나이다。

아아! 제가 금년에 七十餘歲입니다。 朋友로서 앞뒤로 죽은 이를 어찌 다 셀 수 있으리요만 유독 兄에게 서럽고 슬픈 생각이 더욱 오랫토록 잊혀지지 않나이다。

대저 兄은 풍채가 준엄하고 도량이 큰 분으로써 생각이 평탄하여 論議에 이르러 까다롭지 않고 항상 大體②를 견지하였으며 心術은 극심하지 않아 모두 和平하게 돌리었나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규범과 집을 다스리는 법도에 있어 풀리어 늘어짐과 당기어 좨이는데 모두 마땅하였으며 비록 經史를 널리 보거나 文詞에 매우 뛰어난 점은 없었으나 특히 古人의 너그러운 風度를 얻음이 있었으니 어찌 지금 세상에 악착스럽고 모질게 따지는 規程에 비기겠습니까?

이에 내가 지난 乙未(一八九五)에 先親(先考)을 仙川에 葬事할 때 산등성마루에서 걸음으로 헤아릴진대 兄의 先塋이 매우 가까운 때문에 이로써 근심이 되어 兄을 한번 만났는

데 옛 친구와 같이 의기가 相通하여 조금도 拘碍없이 同山③을 허락하심으로써 마침내 管鮑之交④와 關張之誼⑤를 맺었나이다。

兄은 번성한 家門의 외로운 집안이요 나는 客地의 외로운 사람으로 두 외로운 사람이 상대를 얻었으니 가히 輔車脣齒⑥로써 서로 의지함이 된다 이르겠습니다。

몇년 전에 兄께서 아들을 거느리고 더딘 걸음으로 저의 집을 왕림하시어 여러 날 묵으면서 談論하셨는데 당시 진진하게 마음을 털어놓고 서슴없이 생각을 드러내어 先壠을 보전할 계책과 後孫을 福되게 할 방책을 모두 말씀하셨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저도 늙어 人事를 朝夕으로 기약할 수 없는 사람으로써 어찌 對面하여 金石의 굳은 사귐을 서로 약속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작별하였는데 어찌 그 작별이 마침내 幽明의 永訣이 될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아! 兄의 心德이 이 같았기 때문에 福祿의 근원이 다함 없고 芝蘭⑦이 뜰에 가득하며 天爵⑧이 스스로 이르고 壽考(長壽)를 흘륭히 누렸으니 이 어찌 天翁、곧 하늘이 善人에게 報施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아! 나는 몸이 쇠약하고 눈의 어두움이 날로 심하여 人事를 폐함이 오래로써 애당초 엉금엉금 기어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 나아가 한번 울지도 못하고 다만 哀辭⑩로 대신 아뢰나이다。

하늘을 우러러 보고 땅을 굽어 보되 부끄러움을 억누르기 더욱 어려운바、오직 바라옵건대 兄의 英靈께서는 이 작은 성의나마 굽어 살피시옵소서。아아! 슬프고 슬프옵니다。

① 誼弟 : 親誼가 좋은 아우라는 뜻으로 交分이 매우 두터운 사이에 상대에 대한 謙稱。
② 大體 : 事物의 전체에서 요점만 딴 줄거리。 大略、大槪。
③ 同山 : 무덤을 한데 같이 씀。 곧 한 산등성이나 골짝에 가까히 무덤이 있음을 말함。 同山所。
④ 管鮑之交 : 春秋時代 齊나라의 管仲과 鮑叔의 사귐。 썩 친밀한 교제。
⑤ 關張之誼 : 三國時代 蜀漢의 武將으로 劉備와 義兄弟를 맺고 劉備를 도와 戰功을 세운 關羽와 張飛의 親誼、 곧 아주 친한 友誼를 말함。
⑥ 輔車脣齒 : 서로 돕고 의지하며 밀접한 관계를 일컫는 말。 輔는 수레의 덧방 나무요、 車는 바퀴이며、 脣은 입술이요、 齒는 이로써 서로 떠날 수 없는 깊은 관계를 말함。
⑦ 芝蘭 : 지초와 난초。 모두 향기로운 풀。 善人과 君子에 비유함。 여기에선 子孫들을 말함。
⑧ 天爵 : 사람에게 갖추어진 자연의 美德、 곧 하늘이 준 벼슬이란 뜻。 官爵은 人爵임。
⑨ 報施 : 善行에 대하여 幸福을 베풀음。
⑩ 哀辭 :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여 지은 글、 곧 輓辭나 祭文 등의 글。

祭趙公 文

代季弟〇辛亥二月十七日

嗚呼哀哉 公之棄斯世 遽爾二朞 生之托高門 於焉三禩 居便同一鄕內 早有聲奇之相聞 地不滿半日程 嗟無儀形之承奉 猗歟靈公 漢陽名族 嶠南古家 郁郁文瀾 濟濟冠冕 世級雖云日降 人傑

自有地靈 走馬數十里 出沒奔馳 庶幾有隱君子 芙蓉千萬仞 偃蹇特秀 可知爲眞丈夫 然而室璞深藏 不售價而守質 幽蘭獨秀亦無人而自芳 心無怍於天人 豈求不義之富貴 福有餘於善慶 以遺無窮之子孫 接人以和 無非心悅誠服 睦親有道 不啻面命耳提生千里萍水 數世殷沙 魚魯未分 難免蚩蚩之習 橘淮已渡 自歎踽踽之行 晩有息女之憃愚 幸得媒妁之聽 聞令彦聲譽早著 己及淑女之求 賤息 德容未嫺 可愧吉士之擇 必有急難之所賴 結緣於薄葬 相期德音之無瑕 縡絲於柔木 此夜將晨 難見儀範 几筵方掇 此情未伸 英靈陟降 庶斯監臨 嗚呼痛哉 尚饗

趙公 에 대한 祭文(季弟를 爲한 代作)

아아! 슬프옵니다。 공께서 세상을 버리심이 문득 二年이 되었고、 제가 高門①에 의탁함이 어언 三年이 되었나이다。

住居가 문득 한 고을 안이 되어 일찌기 소문을 서로 들음이 있었아오나、 距離가 한나절 길이 채 못되는데도 儀形②을 받들어 뵙지 못한게 안타까웠습니다。

아름답도다。公이시여! 漢陽의 名族이요、嶠南(嶺南 : 慶尙道)의 古家로써 훌륭한 文筆과 많은 冠冕(官爵)이 연이었나이다。

세상이 비록 날로 그릇쳐진다 할지라도 뛰어난 人物은 스스로 영검 있는 땅에서 태어난다 합니다。山勢가 수십리를 出沒하며 바삐 달아나니 隱君子가 살곳이요、芙蓉이 천만길을 偃蹇하게 우뚝 빼어나니 가히 眞丈夫임을 알 수 있습니다。그러나 집이 구슬처럼 깊이 감추어 값을 높이지 않고 質朴함을 지키며、깊숙한 골짜기의 난초처럼 홀로 빼어났으되 또한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향기로운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天人에 부끄러움이 없으니 어찌 의롭지 못한 富貴를 바라겠으며、福이 善慶에 남음이 있으니 다함 없이 子孫에 끼치셨나이다。

사람을 접함에 온화하여 기쁜 마음으로 복종하지 않음이 없었으며、친척과 화목함에 道가 있어 직접 친절히 가르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제가 千里 타향에 내려와 殷沙에서 살기 數世에 魚字와 魯字를 분별치 못하여 어리석은 습관을 면키 어려운 처지로 橘淮를 이미 건너 타달거리며 고독한 삶을 스스로 탄식하였습니다。만년에 어리석은 女息이 있었는데 다행히 媒妁、곧 중매인의 말을 들음에 公의 아들이 훌륭한 名望이 일찍 드러나 이미 淑女를 求하기에 이르렀다 하였나이다。저의 천한 女息이 德容이 아름답지 못하여 가히 훌륭한 선비의 配匹에 부끄러우나 필시 急難을 돌보심이 있어 천박한 저희와 인연을 맺은 한편 훌륭한 명성에 欠缺이 없기를 기약하였는데 부드러운 나무에 실이 입혀진 격이 되었습니다。

이 밤이 장차 샘에 儀範을 보기 어렵게 되고 几筵을 바야흐로 거둠에 이 情을 펴지 못하게 되었는바 英靈은 오르내리사 이를 굽어 살피소서。 아아! 슬프옵니다。

① 高門 : 高貴한 家門。 勢力 높은 가문。
② 儀形 : 몸가짐 본받음。 儀表、儀範。

祭申公　文

維歲次丁酉五月己丑朔初六日甲午　即我近故處士平山申公大歸之日也　前夕癸巳　查弟　鐵城李學禧　使舍季學曾　謹具不腆之需再拜哭訣于儀床之下曰　嗚呼哀哉　古人　以修於身　爲聖賢第一件行　而不施於事　不見於言　亦可也　吾以公　以爲信然　蓋修於身者謹愼德行　無所過失也　施於事者　功業曜世　人必稱道也　見於言者　文章表著　死而不朽也　是三者　不可責備於一人　而如其文章不足見之於言　莫若功業　施之於事也　如其功業　不足施之於事莫若德行　修之於身也　今夫公　則既無文章之見於言　又無功業之

施於事 而隱居山林 經濟恒產 入孝出悌 謹信朋友 言忠行篤 敎養子孫 不以外飾而爲務 人亦不知而不慍 專以德行爲本 獨善其身 則所謂修於身者 其非斯人歟 嗚呼哀哉 公年已過知命 未可謂夭 然而舜慕之憾 萊舞之悲 未滿三月 而膏豎爲灾 扁和失技 不顧以孝傷孝之戒 逝將陪親於九原 生以順志 死以歸寧 考於古君子 可以相侔矣 嗚呼哀哉 以我無似 幸托葮緣 百歲源源 永圖依仗矣 豈意一朝 實音遽至耶 前月往吊 更不聞欣然談笑之聲 信宿歸來 又不見悵然惜別之情 哀我人事 痛之何及 嗚呼哀哉

嗚呼哀哉

申公 에 祭文

維歲次 丁酉(一八九七) 五月 己丑朔 初六日 甲午日은 곧 그래 故 處士 平山申公께서 돌아가시어 小朞(小祥) 날입니다。 前日 밤 癸巳에 查弟① 鐵城李學禧는 舍弟 學曾을 시켜 삼가 넉넉치 못한 祭需를 갖추어 儀床 아래에서 再拜하고 울면서 永訣하나이다。

아아! 슬프옵니다。 옛 사람은 자신을 닦는 것을 聖賢이 되는 첫째 행실로 삼아 일을

베플지 않고 말로 나타내지 않음을 또한 옳게 여겼는데 내가 公으로써 믿게 되었나이다。 대개 자신을 닦는 것이란 삼가 德을 행하여 過失이 없도록 하는 것이요、 일을 베푸는 것은 功業이 세상에 빛나 사람들이 반드시 일컬게 되고、 말을 나타내는 것은 文章이 드러나 죽어도 영원히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세가지를 한 사람이 완전히 갖추기는 不可하지만 만일 그 文章을 말로 나타내지 못할진대 功業을 일에 베푸는 것만 같지 못하고 만일 그 功業을 일에 베플지 못한진대 德行을 몸소 닦는 것만 같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公은 이미 文章을 말로 나타냄이 없었고 또한 功業을 일에 베풂이 없었으나 山林에 숨어 살면서 經濟로서 일정한 生業을 삼고、 집에 들어서는 孝道하고 밖에 나가서는 恭敬하며 벗과는 삼가 信義를 지키고 말을 진실하게 하고 행동을 돈독히 하며 子孫들을 가르쳐 기르고 걸치레를 하지 않고 진실을 힘쓰셨나이다。 그리고 남이 또한 자신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노여워하지 않고 오로지 德行을 본분으로 삼아 자기 몸을 착하게 다스렸으니 이른바 자신을 닦는다는 것이 이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아아! 슬프옵니다。 公께서 연세가 이미 知命② 五十을 넘었으니 夭折이라 이르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虞舜③처럼 父母를 사모하던 슬픔과 老萊子④처럼 색동옷 입고 춤을 추던 생각으로 슬퍼하시며 석달도 채 못되어 膏肓⑤의 病을 얻어 扁和⑥의 기술로도 낳지 못하기에 이르셨나이다。 이는 孝誠이 지극한 나머지 오히려 孝道를 손상한다는 警戒를 돌아보지 않고 돌아가시어 어버이를 九原(黃泉)에서 모시게 되었나이다。 살아서는 父母의 뜻을 순종하고 죽어서는 地下에 돌아가 父母에게 문안 드림이니 옛적 君子에게

비하여 볼지라도 가히 서로 같다 하겠습니다。

아아! 슬프옵니다。 나 같은 不肖한 사람으로써 다행히 婚姻의 인연을 의탁하여 百歲토록 끊이지 않고 의지하기를 길이 도모하였는데 하루 아침에 訃音이 갑자기 이를줄 어찌 생각이나 했겠나이까?

지난 달 제가 가서 弔慰할 때 기꺼운 談笑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이틀을 머무르고 돌아오면서도 또한 섭섭한 惜別의 정을 보지 못하였으니 슬픈 나의 人事로 哀痛함이 어찌 미치겠나이까? 아아! 슬프옵니다。 아아! 슬프옵니다。

① 查弟 : 친 사돈간에 자기를 낮추어 일컬는 말。

② 知命 : 天命을 알음。 論語 爲政篇에 五十而知天命이란 말로 人生 五十歲를 일컬음。

③ 虞舜 : 中國 五帝의 한 분인 舜帝。 곧 虞나라 舜帝로서 姓은 姚、字는 重華임。 孝誠과 友愛가 깊어 많은 백성이 이를 본받았음。 堯의 禪位로 帝位에 올라 善政을 베풀기 十八年만에 禹에 讓位하였음。

④ 老萊子 : 中國 周나라 때 孝子로서 나이 七十세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어린애 흉내를 내어 어버이를 기쁘게 해 드렸다 함。 老萊之戲。

⑤ 膏肓 : 膏肓의 疾病、 곧 膏는 가슴 아랫쪽、 肓은 가슴과 배 사이에 있는 얇은 膜、 명치 끝이라고도 이름。 곧 難治病을 말함。

⑥ 扁和 : 中國 古代 秦나라의 名醫였던 醫和와 扁鵲을 이름、 곧 名醫를 이르는 말。

祭黃公 文

維歲次癸巳正月乙酉朔二十三日丁未 近故處士箕城黃公 終祥日也 前夕丙午 查弟鐵城李學禧 使舍季學曾 謹具薄奠 拜哭于儀床之下曰 嗚虖 天可必乎 不可必也 君子固窮 仁者不壽 兄是 先生雲仍 古家典型 系出箕城 世居郁陽 氏族蔓延 門閥華美 以我無似 何幸托契 嗟令季兮 有緣嫻婭 始許心赤 道盡情素 踏實于天急難義氣 頻對青眼 擬依白首 達人知命 二豎爲祟 俛仰空山 草木再春 魁梧儀範 不復見眞 謦咳談笑 更何得聞 每疑樑月 謾想江雲 乃顧庭階 培植雙蘭 異日馨香 將大播傳 天其可必 必有報施 過期未畐 聊寫我哀 遙灑掬淚 以添錦流 嗚虖哀哉 嗚虖慟哉

黃公 에 祭文

維歲次 癸巳(一八九三) 正月乙酉朔二十三日 丁未는 그래 돌아가신 處士 箕城(平海) 黃公의 終喪日이옵니다。 前日 밤 丙午에 查弟 鐵城 李學禧는 舍弟 學曾을 시켜 삼가 변변치 못한 음식을 갖추어 儀床 아래에서 拜哭하나이다。

아아! 하늘은 틀림없다 말할 수 있습니까? 틀림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君子는 거의

곤궁하고 仁者는 오래 살지 못하니 말씀입니다。

兄은 곧 先生의 雲仍(後孫)으로서 古家의 본보기가 되셨나이다。

계통은 箕城(平海)에서 나와 郁陽에서 世居하였는데 氏族이 널리 퍼지고 門閥이 매우 훌륭하였나이다。

나 같은 不肖한 사람으로써 어찌 다행히 契誼를 얻어 막내 아우와 婣婭(姻戚)의 인연을 맺었나이다。

비로소 저의 참된 마음을 알아 마음속을 터 놓고 일러 주시고 天性대로 실천하여 어려움을 겁히 구제하는 義氣가 있었나이다。

靑眼①으로 자주 대해 주시어 白首에 이르시고 達人으로서 天命을 아셨는데 二豎②가 빌미가 되셨나이다。

空山을 우러러 보니 草木은 다시 봄을 맞았는데 그 魁梧(壯大)한 모습은 다시 뵈올 수 없나이다。

이야기하며 웃으심을 다시 어디에서 듣겠는지요? 매양 지붕 위 달을 의심하고 괜히 강가의 구름을 생각하나이다。

이에 돌이켜 생각컨대 집에 두 아들을 가르쳐 기르신바 후일 훌륭한 名聲이 크게 전파할 것입니다。

하늘이 그 반드시 꺼치심인바 반드시 善行에 대한 報答인 것입니다。

一年이 지나도록 나아가 저의 슬픔을 쏟지 못하고 멀리서 눈물을 웅켜 뿌림에 錦江 물

이 불어나나이다。

아아! 슬프옵니다。아아! 애달프옵니다。

① 靑眼 : 친한 사람을 대할 때의 眼球。晋나라 사람 阮籍이 자기와 가까운 사람은 靑眼으로 맞이하고 거만한 사람을 보면 白眼으로 맞았다고 함。

② 二豎 : 晋나라 景公이 病으로 누워 있을 때 꿈에 두 더벅머리 아이가 病魔가 되어 나타났다는 故事에서 나온 말로 곧 病을 이름。

祭權公翼淵文 代仲弟學淵

嗚呼 生死 天地之常理 百年人生 竟無不死 則無足可悲也 五十不稱夭 公壽 今過五十餘歲 則亦免夭 又何可悲也 然而公以花山之淸閟 承素軒庭訓 孝友恭儉 忠信篤敬 爲日用常行之規 孰不景仰而觀感也哉 爰處陸郎之五畤 不羨荀氏之八龍 則暮境棣萼 韡韡生華 而其樂也 且湛矣 滿庭芝蘭 菲菲峻茂 而其慶也 猷緜矣 嗚乎 難諶者天 世無圓福 終使瑤躔德星 晦彩韜光 是則爲公可悲也 嗟我無狀 幸因孳緣 源源拜候 視之以情素 推之以

心赤矣 自公歸後 有疑 而無處可稽 有急 而無人可告 此則在我可悲也 然則 何言生死之常理乎 及其情到 則皆有隣笛之悲也 豈曰壽夭之有異乎 至於有感 則總歸彭殤之悲也 嗚呼 升公之堂 不復覩軒昂之儀型矣 入公之門 更未聞雍容之談笑矣 今夕已闌 此懷無寓 靈或不昧 庶斯歆格

權公翼淵에 대한 祭文(仲弟學淵을 대신하여 지음)

아아! 生死는 天地의 당연한 이치로서 百年人生으로 마침내 죽지 않은 자 없으니 가히 슬퍼할 것이 없다마는

五十歲는 夭折이라 일컫지 않는데 公의 壽命이 이제 五十餘歲가 넘었으니 또한 夭折을 면한바 어찌 슬퍼하겠나이까?

그러나 公은 花山(安東)의 淸廉한 門閥로서 素軒의 家庭敎訓을 받아 효도 우애하고 공손 검소하며 충성 신실하고 독실 경애함을 날마다 행하는 規範으로 삼았으니 누군들 우러러 보고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이에 陸郎①의 제터에 살며서도 荀氏八龍②을 부러워하지 않았으니, 늙은막에 이르러 棣萼③이 무성하여 더욱 아름다운 바 그 즐거움에 또한 잠기고, 뜰에 가득한 芝蘭④은

향기롭고 무성한바 그 경사스러움은 색동옷 춤이 있었나이다。

아아! 믿기 어려운 것은 하늘인바 세상에 원만한 福이 없어 마침내 北斗의 휘황한 별빛이 德星⑤을 가리움으로써 才能과 學識을 감추고 세상을 도망하였으니 이로써 公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아아! 나 같은 不肖한 사람으로써 다행히 婚姻의 인연으로 말미암아 끊이지 않고 安候를 살폈는데 그 때마다 情素(眞心)로써 보아 주시고 心赤(誠心)으로 대해 주셨나이다。

公께서 돌아가신 후로 의심이 있어도 가히 상고할 곳이 없고、급한 일이 있어도 가히 아뢸 사람이 없으니 이는 나에게 있어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어찌 生死의 당연한 이치를 말하겠나이까? 그 情이 다다름에 이르러 모두 이웃에서 들리는 피리소리처럼 슬프옵니다。어찌 壽夭의 다름이 있음을 말하겠나이까? 느낌이 있기에 이르러선 모두 彭殤⑥의 슬픔으로 돌아가나이다。

아아! 公의 집에 다달아 다시 늠름한 容貌를 보지 못하겠고、公의 문에 들어서서 다시 온화한 談笑를 듣지 못하겠나이다。

오늘 밤이 이미 다함에 이 뜻을 부칠 곳이 없나이다。英靈은 아마 어둡지 않으시니 이에 이르러 흠향하옵소서。

① 陸郎：中國 三國時代 吳나라 사람 陸績의 別稱。字는 公紀로 孝子였음。여섯살 때 九江에서 袁術을 보았는데 袁術이 귤을 내어 주니 陸績이 세개를 품에 싸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그 母親께 주었다 함。

② 荀氏八龍 : 中國 後漢 때 사람 荀淑의 여덟 아들。 모두 德業을 갖추어 당시 사람들이 八龍이라 稱했음。

③ 棣萼 : 산매자、 또는 산앵두、 여기에선 형제간의 우애를 비유한 말임。

④ 芝蘭 : 지초와 난초로 모두 향기가 좋은 풀、 여기에선 子孫들을 비유한 말임。

⑤ 德星 : 상서로운 징조로 나타나는 별。 瑞星、 景星、 여기에선 德行이 높은 사람을 이름。

⑥ 彭殤 : 七百餘年을 살았다는 彭祖와 二十歲 미만의 젊은 죽음、 곧 長壽와 短命。

又 代季弟作

維歲次癸巳五月壬午朔二十一日壬寅 卽我近故花山處士權公之中祥也 前夕辛丑 女婿固城李學曾 謹具菲薄之羞 痛哭再拜敬奠于儀牀之下 曰嗚虖小子 贅于公門歲己十七 宿飽心德 亦慕名實 語言簡重 操守儉約 毁譽不干 窮苦無累 傳家靑氈 安分素履 親受庭訓 本厚天賦 我忝半子 依仰怙恃 見疑每質 有急必告 不棄蒙愚 特軫顧恤 期望成就 勉勵問學 敎以砭鍼 愛免禽犢 謂享頤期 永圖是賜 柰何時戒 纏爲身疾 病罔侍藥 終未屬綿 式好並五

化何獨先 聘母繼逝 又何禍愆 幸有二胤 式穀似之 季未成立 神佑格思 顧瞻彼諸 不堪慟傷 雲林寂寥 門庭蒼凉 謦咳難聞 儀形莫憑 忽焉今夕 遽然暮祥 泉坮不作 涕淚琳琅 靈如有知 庶歆此觴 嗚虖哀哉 嗚虖慟哉

또

(季弟를 대신하여 지음)

維歲次 癸巳(一八九三) 五月 壬午朔 二十一日 壬寅은 곧 근래 돌아가신 花山(安東) 處士 權公의 中祥(小祥)이옵니다。

전날 밤 辛丑에 女壻 固城 李學曾은 삼가 변변치 못한 祭需를 갖추어 儀牀아래에서 再拜하고 공경히 올리나이다。

아아! 小子①가 公의 家門에 장가든지 어느덧 十七年、일찌기 사랑을 무릅쓰고 또한 名實을 사모하였나이다。

말씀이 간결 묵중하고 마음 가짐이 검소하시며 훼방과 칭찬을 상관치 않고 곤궁함에도 아첨이 없으셨나이다。

대대로 전해온 家業을 지키어 자기 본분에 마음으로 편히 하고 친히 가정교훈을 이어받아 타고난 성품 또한 두터우셨나이다。

제가 부끄럽게도 半子②로서 怙恃(父母)처럼 의지하고 우러르며 의심되는 것을 매양

묻고 갑한 일은 반드시 아뢰었나이다。

어리석은 저를 버리지 않고 블쌍히 여겨 돌보아 주시며 成就하기를 바라시고 學問을 힘써 권하셨나이다。

砭鍼③을 가르쳐 禽犢④을 면하도록 사랑하시고 期頤(百歲)를 누리시며 길이 은혜를 주시리라 여겼습니다。

어쩐 時戒(警戒)로 病魔가 몸을 감싸서 病에 藥이 효험이 없고 마침내 돌아가심을 면치 못했나이다。

사이 좋은 다섯 同氣인데 어찌 홀로 앞서 돌아가시고 聘母(妻母) 마저 이어 돌아가시니 또한 무슨 재앙입니까?

다행히 두 아들이 있어 착하기 그지 없는바 막내는 아직 成立하지 못했으니 神이 도와 주소서!

저 하늘을 우러러 보건대 슬픔을 이기지 못하겠고、구름 낀 숲은 고요하고 집 앞 뜰은 쓸쓸하나이다。

어언 말씀을 듣기 어렵고 용모를 뵙지 못했더니 문득 오늘 저녁이 暮祥(小祥)이옵니다。

저승 길을 따르지 못하고 눈물만 구슬처럼 떨어지는바 英靈은 알으실테니 무릇 이 술을 흠향하옵소서。

아아! 슬프옵니다。아아! 가슴이 아프옵니다。

① 小子 : 아이, 小兒, 여기에선 어른에 대한 자신의 卑稱。
② 半子 : 반 자식, 사위, 여기에선 妻父母에 대한 자신의 謙稱。
③ 砭鍼 : 돌로 만든 침, 곧 옛날에 病을 치료하던 기구。
④ 禽犢 : 새와 송아지, 禽獸。

祭素軒權公 人夏 文

身修德行 識達今古 既合不器之稱 鄉無賢哲 士失宗師 咸抱摧梁之痛 拜奠今夕 墮淚後生 恭惟素軒先生 奎璧精英 淵海器度 庸學誠敬之旨 都是一心工夫 春秋義理之論 亦有百世褒貶 其爲得己也早 節儉規模 不墜古家之遺風 是以造道之深 文章德業 誰非門人之親炙乎 早廢公車 士趨正而躁競息 晩韜林壑 里仁美而宅處安 迨玆八旬之遐齡 猶有樂善之不倦 誦不忘於朝夕 恒念懿公抑戒之詩 時已及於達窮 詎無尚父果遇之望 大夫之爵位極侈 尤篤奉先思孝之誠 子孫之詩禮已傳 庶見厥後克昌之慶 一夕山頹之慟 非意所圖 四方羹慕之心 秉彝攸共 章甫聯衿 遠邇感

服 皆聞先生之風 賢愚同智 貴賤偕謀 可見君子之德 以若小子之蔑劣 何言大賢之典型 開心見誠 無分親疎而敎誨 提耳命面 不以卑下而棄抛 撤几拾筵 山岳之氣象何在 升堂入室 鍾鼓之聲音難聞 何日忘之 今夕已矣 悲風宿草 涕淚洒而不禁 落月空山 景慕深而尤切 如九原之可作 願一訴乎微衷

素軒權公 人夏 에 대한 祭文

몸소 德行을 닦고 識見은 고금을 통하여 이미 不器①의 일컬음이 합당하옵니다만、
고을에 賢人이 없고 선비들이 宗師②를 잃으니 모두 대들보가 꺾이는 슬픔이 더하옵니다。

오늘 밤 울며 奠祭함에 後生들은 모두 눈물을 떨구나이다。
삼가 생각컨대 素軒先生께서는 구슬같이 맑은 정신이요、바다 같이 깊은 도량이셨나이다。
庸學③에 誠敬의 뜻은 모두 一心을 닦는 공부였고、
春秋④에 義理의 의논은 또한 百世의 칭찬과 나무람이 있었나이다。
그 몸소 얻음이 젊은 때로써 절약과 검소의 規模는 古家의 遺風⑤을 떨어뜨리지 않았으며、

이로써 道를 닦음이 깊었으니 그 文章과 德業을 누구들 門人으로서 親炙⑥하지 않았겠습니까?

일찌기 公車(科擧)를 폐하니 선비들의 추향이 발라져 조금한 경쟁이 그치고, 늦게 林壑(草野)에 숨으니 마을의 어진 풍속이 아름다워 집에 처함이 편안하셨나이다。

八旬의 높은 년세에 이르러서도, 오히려 樂善의 게으르지 않음이 계셨나이다。

誦讀을 아침저녁으로 잊지 않고 항상 懿公⑦의 抑戒詩를 생각하셨으며, 때가 榮達과 困窮에 이미 미쳤으니 어찌 尙父⑧를 만난다는 바램이 없었겠나이까?

大夫의 爵位가 극히 호사스러움에 더욱 先祖를 받들고 孝道를 생각하는 정성이 돈독하셨으며,

子孫에게 詩禮가 이미 전해졌으니 그 후손이 매우 창성의 경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一夕에 산이 무너지는 슬픔을 뜻하지 않게 당하였는바,

四方에서 우러러 사모하는 마음은 천성으로 한가지입니다。

선비들이 옷깃을 함께 여미고 멀고 가까운 데서 감복함은 모두 先生의 風度를 들은 때문이요,

어질고 어리석은 분이 지혜를 함께 하고 귀하고 천한 분이 함께 도모하니 가히 君子의 德氣를 보겠나이다。

小子와 같이 어리석은 자로써 어찌 훌륭한 賢人의 典型을 말하겠나이까?

마음을 열고 성의를 내어 친하고 소원함을 분별하지 않고 가르쳤으며、
귀를 끌어 말하고 낯을 대하여 낮은 사람이라 해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几筵을 거듭에 山岳처럼 뛰어난 氣象을 어데서 뵈일 수 있겟습니까?
室堂에 오름에 鍾鼓처럼 아름다운 音聲을 듣기 어렵게 되었나이다。
어느 날인들 잊으리요만 오늘 저녁에 이미 끝났나이다。
바람도 슬픈 묵은 풀에 눈물을 뿌려 그치지 못하겟고、
달 떨어진 빈 산에 사모함이 깊어 더욱 간절하나이다。
만일 저승에 가서 가히 만날진대 원컨대 저의 속 마음을 한껏 호소하겟나이다。

① 不器 : 그릇에 얽메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人格、才藝가 갖추어져서 어떠한 방면에도 능함을 이름。
② 宗師 : 존경할 스승、宗匠、師宗。
③ 庸學 : 中庸과 大學의 준말。
④ 春秋 : 五經의 하나、魯의 史官이 짓고 孔子가 加筆했다는 역사책。史紀。
⑤ 遺風 : 옛부터 전해 오는 풍습、또는 남아 있는 名聲。
⑥ 親炙 : 친히 그 사람을 가까히 하여 感化를 받음。
⑦ 懿公 : 春秋時代 齊나라 桓公의 아들로 名은 商人、후에 王位에 올라 在位 四年만에 弑害당함。
⑧ 尚父 : 周 武王이 宰相 太公望(呂尙)을 尚父라 稱함。여기에선 太公望을 이름。

祭洪公在明文

維歲次丙辰四月己亥朔初五日癸卯 卽南陽洪公中祥之日也 前夕壬寅 表再從 固城李學禧 謹具數品菲薄之羞 使家兒仁矩 敬奠于儀床之下曰 嗚呼痛哉 公年於我 差池三歲 生長一里 搬移嶠南 同是離鄕 僑居此巷 追卜切隣 痛癢相關 憂樂相同 姻結異戚 情若同氣 年及七旬 白首相倚 數日不見 倘無疾病 一旬未接 我心鬱陶 化翁多猜 奪此良友 躕躇畦園 未聞謦咳 行過門楣 不覩形影 公兮公兮 去將何之 子呼父子呼父 父不答 弟呼兄弟呼兄 兄無言 公兮公兮 去將何之 歲月如流 遽當此日 痛傷何及 哀痛曷已 嗚呼痛哉 尚饗

洪公在明에 대한 祭文

維歲次 丙辰(一九一六) 四月 己亥朔 初五日 癸卯는 곧 南陽洪公 中祥(小祥) 날인데, 전날 밤 壬寅에 表再從(外再從) 固城 李學禧는 삼가 몇가지 변변치 못한 음식을 갖추어 家

兒仁矩를 시켜 儀床 아래에 공경히 올리나이다。

아아! 슬프도다。 公의 나이는 나와 세살 차이로 한 마을에서 生長하였도다。

嶠南으로 移居할 때 함께 고향을 떠나 이 마을에 거처를 바로 이웃에 정하였도다。

아프고 가려움을 서로 관심 두고 근심과 즐거움을 서로 함께 하며 異戚간에 혼인을 맺어 情은 同氣와 같았도다。

나이 七十에 이르러 白首로 서로 의지하며 數日만 보지 못해도 혹 질병이 없나 근심하였도다。

열흘을 접하지 못하여 내 마음으로 답답했더니、 化翁(造物主)이 시기가 많아 이 좋은 벗을 빼앗아 갔도다。

뒤안을 머물거려도 말씀을 듣지 못하겠고、 대문 앞을 지나더라도 모습이 보이지 않는도다。

公이시여! 公이시여! 어데로 떠나시어 자식들이 아버지를 부르고、 자식들이 아버지를 불러도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며、 아우가 형을 부르고 아우가 형을 불러도 형은 말이 없도다。

公이시여! 公이시여! 어데로 떠났는가? 세월이 물 같이 흘러 무득 오늘을 당하여 이 슬픔을 어찌 하며、 이 슬픔을 어찌 다하리까? 아아! 슬프도다。 흠향하소서。

祭　文

天摩淑氣 維公所稟 早時篤學 中年致廩 立志堅固 臨事詳審 襲世醇謹 承家典刑 鶯知止隅 鵬圖徙溟 豐峽秀白 殷岫獨青 經濟山林 優遊漁樵 千里客鴻 一枝捿鷦 何傷踽踽 其樂陶陶 爰暨暮境 以有遐心 龍岑隱映 錦波淺深 一疴不淑 三年又今 庭峙鸞鵠 階盈芝蘭 寸草報輝 薤露留乾 以我愚昧 倚公急難 今焉已矣 於乎痛哉

祭文

天摩山의 맑은 기운 오직 公이 타고 났거니、어려서 學問에 독실하여 중년에 크게 이루었도다。

뜻 세움이 굳세고 일에 임하여 자상하였거니、대대로 수후 근실함을 잇고 가정의 규범을 이었도다。

꾀꼬리가 산기슭에 앉을 줄 알고、붕새가 바다로 떠남을 도모했거니、豐基 산세가 빼어나 희고 殷沙 산 빛이 유독 푸르도다。

山林 속에서 지내면서 한가히 고기 잡고 나무하며 지냈거니、千里에 짝 잃은 기러기

요、一枝에 깃들인 뱁새로다。

홀로 타달거림을 어찌 슬퍼하랴? 그 즐거움이 도도하거니、늙으막에 이르러 高尙한 마음이 있었도다。

龍岑이 은은히 비치고、錦波가 열고 깊거니、한 病으로 돌아가시어 이제 三年이 되었도다。

뜰에는 난새와 고니가 서 있고、섬돌에는 지초와 난초가 가득하거니、짧은 글로 아름다운 뜻을 보답코자 하나 薤露①가 말랐도다。

내가 어리석어 公의 急難②에 의지했던바、이제 이미 끝났으니 아아! 애통하구려!

① 薤露 : 喪輿 나갈 때에 부르는 노래。곧 사람의 목숨이 부추잎의 이슬처럼 덧없음을 노래한 것。輓歌。

② 急難 : 위급하고 어려운 일。곧 이런 어려움을 굽히 여겨 도움을 주는 것。

遯齋遺稿卷之二

雜著

李氏烈事 戊午七月

余常歎 彝倫斁喪 綱紀頹弛 夫不夫婦不婦 罔不盡傷 歷考古人善行美蹟 至正年間 李仲義妻 劉氏名翠哥 以代夫死 釋其夫而就烹 河東驛丞 王仁妻 李氏 上訴願死 饒夫刑 而俾得歸養 開封店 斷臂潔身 清風嶺 囓指血書 此皆千古所罕之貞烈 故已載五倫行實 三綱錄 所以示樹風勵世之敎也 豈意 我大韓 順興安成玉妻李氏 亦有此烈行耶 成玉 文成公之雲仍也 李氏 完山命奭之長女也 十七 歸連山郡安氏家 孝養舅姑 善事君子矣 一日成玉自外歸路 過酒店 見二族人 與負商徐漢 先集 而徐漢 醉打一安 死而逃走 一安亦恐禍及 又逃避 成玉 於義不可避 遂通其

家官司以成玉慘知事狀還被反坐之律繫獄數月其老父累訴郡府鳴其無辜終未得釋矣會繡衣使巡察到郡李氏聞即引斧凡七斫一指烈血滿鍾遂邀里中能書者訴夫冤餘血漬數幅紙裹一斷指使族人安栽根直入官庭呈血狀于繡階繡衣使見其指血淋漓訴冤凜冽憐其義察非辜即放成玉稱賞李氏以歸之見者莫不驚動聞者無不嗟歎噫此人此行世不常有全其夫而歸養心無愧於代夫死之節婦完其命而保家德尤光於殺成仁之貞女日有安生鍾九持其母李氏事前後顛末及記善行蹟數幅示余曰渠生七歲辛卯年分遇此事變未有知覺經過幾年矣嘗考書籍得見繡衣判題與指血染紙於是不勝痛恨使此母氏之烈不可泯置於荒谷中願得一言以垂後余老且病雖不攝精然壯其烈嘉其誠略言之大抵成玉臨難不苟免通知尸家此義人也

李氏 當夫之難 視死如歸 終解其紛 此烈婦也 鍾九 爲其母氏
廣求文人 以倡母烈 此孝子也 一家之內 有此義烈孝三人 豈不
美且壯哉 此非特安門之美事 亦可爲擧國之盛化 然則曩時繡衣
旣當職任 有何顧忌 只以放釋 不即褒啓表旌 使禮義之邦 無聞
揚善倡美之風 惜哉

李氏 烈行事實

내가 항상 彝倫이 없어지고 紀綱이 무너져 남편을 남편으로 여기지 않고 부인을 부인으로 여기지 않음을 탄식하고 몹시 슬퍼 마지 않으며 古人의 착한 행실과 아름다운 사적을 두루 살펴보았다。

至正(元 順帝) 年間에 李仲義의 妻 劉氏는 이름이 翠哥이었는데 남편의 죽음을 대신하여 그 남편을 석방한 후 삶아 죽이는 참형을 받았고、河東驛丞 王仁의 妻 李氏는 上部에 자신이 죽기를 호소하였던바 이유는 남편의 刑罰을 용서하여 고향으로 돌아가 어버이를 봉양하도록 한 것으로 開封店에서 팔뚝을 잘라 몸을 깨끗이 하고 淸風嶺에서 손가락을 깨물어 血書를 썼으니 이는 모두 千古에 드문 貞烈이었다。 그로써 이미 五倫行實 三綱錄에 실렸으니 이는 風聲을 세우고 世道를 권하는 敎化를 널리 알리고자 함이었다。

생각치 않게 우리 大韓에 順興 安成玉의 妻 李氏 또한 이런 烈行이 있었으니 成玉은 文成公(晦軒 安裕)의 후손이요, 李氏는 完山(全州) 李命奭의 長女이었다.

李氏는 十七세에 連山 고을 安氏家門으로 出嫁하여 舅姑(媤父母)를 효성으로 모시고 君子(夫君)를 잘 섬기었다.

하루는 成玉이 밖으로부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酒店을 지나다가 목격한 일인데 곧 두 族人과 등짐 장수 徐漢이 먼저 모여 있다가 徐漢이 술이 취하여 한 安氏를 때려 죽이고 逃走하고 한 安氏는 또한 禍가 미칠까 두려워 바로 逃避한 후였다.

成玉은 義理上 피하지 못하고 마침내 그 집에 알렸는데 官司(官廳)에서 成玉더러 그 상황을 다 알고 속인다 하여 도리혀 反坐①의 刑律을 입히어 獄에 가두었다. 그로부터 몇 달 동안에 그 老父가 수차 郡府에 호소하여 그 罪가 없음을 알렸으나 끝내 석방되지 못하였다.

이때 마침 繡衣使(暗行御史)가 巡察 도중 이 고을에 당도하였는데 李氏가 그 소식을 듣고 즉시 도끼를 가지고 나아가 무릇 한 손가락을 일곱차례 찍어 뜨거운 피가 흘러 그릇에 가득 찼었다. 마침내 마을 안에 글씨 잘 쓰는 이를 맞이하여 남편의 원통함을 호소하는 글을 쓰도록 하였다. 한편 피에 적신 몇 폭 종이에 끊어진 손가락을 싸서 族人 安栽根을 시켜 곧바로 官廳에 들어가 피로 쓴 訴狀을 바치도록 하였다.

繡衣使가 그 손가락의 피가 뚝뚝 떨어지며 원통함을 호소한 글이 매우 늠름함을 보고, 그 義로움을 가엾이 여기고 허물이 아님을 살피어 즉시 成玉을 放免하는 한편 李氏

를 칭찬하여 돌려 보내니 보는 이마다 몹시 놀라고 듣는 이마다 감동하여 칭찬하였다。

아아! 이 사람의 이 행실은 세상에 흔하지 않은 일로써 그 남편을 온전히 구하여 집으로 돌아가 어버이를 奉養토록 하였으니 그 마음은 남편 대신 죽은 節婦에 부끄러울게 없으며、 그 목숨을 완전히 지켜 家門을 보전하였으니 그 德은 목숨을 버려 절개를 지킨 貞女보다 더욱 빛나는 것이다。

어느날 安生 鍾九가 그 모친 李氏의 사적으로 前後 顚末(始終) 및 善行을 기록한 몇폭의 글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보이며 말하기를 「제가 태어나 일곱살 되던 辛卯(一八九一) 年分에 이 변고를 당하였으나 知覺이 없이 몇년을 지냈습니다。 그 후 書籍을 살피다가 暗行御史의 判題②와 손가락피가 물들여진 종이를 발견하고 痛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 모친의 烈行을 거친 산골 속에 파묻혀 둘 수 없는지라 원컨대 한 말씀을 얻어 後世에 전하고자 합니다」하였다。

내가 늙고 또한 병들어 비록 정교하게 기록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 貞烈이 장하고 그 至誠이 아름다워 간략히 말하노니、 대저 成玉은 난처함에 당하여 구차히 액을 면하지 않고 그 집에 通知하였으니 이는 義人이요、 李氏는 남편의 어려움에 당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고향에 돌아가듯이 여기고 끝내 그 紛亂을 해결하였으니 이는 烈婦이며、 鍾九는 그 모친을 위하여 널리 文人들에게 글을 청하여 모친의 烈行을 드러내었으니 이는 孝子이다。 한 집안에 이런 義、 烈、 孝 三人이 있으니 어찌 아름답고 장하지 않은가? 이는 특히 安氏 家門만의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 또한 온 나라의 훌륭한 敎化가 되는 것이

다。 그런데 예전에 暗行御史가 이미 職任에 당하여 무슨 돌아보고 꺼림이 있길레 다만 석방만 하고 곧바로 褒賞을 청하는 狀啓를 올려 旌閭 표창을 행하지 않았는지! 禮義의 나라로 하여금 착하고 아름다운 행실을 들치는 氣風을 들을 수 없음이 애석하도다。

① 反坐 : 사람을 誣告한 자는 誣告를 입은 사람에게 科한 罪만큼 科罪함。

② 判題 : 判決의 題辭、곧 판결의 글。

丙申日記

丙申六月二十一日寅刻 倭兵萬餘 圍住闕門 一枝圍雲宮 一枝圍申大將正熙家 而以石油 灌迎秋門 焚以作穴 遂開門爛入 或以雲梯 四面踰墻而入 圍住三殿 困在核心 其圍雲宮者 槍入國太公宿所 時 太公 以泄候在靡寧中 遂強扶起坐 則彼輩見過以相見之慢 太公厲聲叱曰 吾以國太公之尊 安可屈禮於爾國之無名小卒乎 吾頭可斬 吾項難屈 彼輩遂引過 乃請入闕議事 太公曰吾年七十五矣 衰癉已極 而且不干國政 已十許年所 安知國家大計云云 因臥不起 彼輩 或以好言誘之 或以強

辭逼之　或以危言脅之　太公毫無所動　至于巳刻　中使自內而出傳旨宣國太公入宮　太公遂起坐　前中使而問曰　果是殿下親命耶中殿亦宣召耶　中使曰然矣　又問果否　中使曰何等尊嚴之地　豈有俗傳矯詔之理乎　太公遂進啜糜飲　具朝服　乘四人籃輿　張青盖而出　前左後右　重重衛護者　盡是日兵　李輔國李叅判　亦隨後陪入是時　闕內　則倭兵圍如鐵筒　水泄不通　各廳入直官僚　盡爲歐逐侍從之臣　只李捕將鳳儀　李叅判範晉　李承旨采淵　金嘉鎭　安駟壽　趙羲淵　而申將臣　及趙督辦　爲倭兵所驅脅而入　承閤及勳閤相繼而入　三殿　圍在惠敬堂　王大妃　避出洪淳馨家　侍衛兵丁盡脫軍服氈笠而逃　獨西營兵丁　五百名　分在後苑　及春生門　牢拒放砲　自上宣旨　勿爲發砲傷人　於是　西兵打破鳥銃　而散去　須臾倭兵一隊　奪取三軍府　一隊奪取統壯兩營　時砲聲如雹　哭聲如

沸 男負女戴 扶老携幼而逃者 雜沓擾聒 滿城如在天崩地塌時
倭兵 遂把守四大門 及各壁門 使之得出而不得入 鍾街大路 人
肩相磨 而滿城屋子 盡爲空殼 闕門則四皆牢閉 只通光化門西夾
而出入者 得渠公館印標然後 始無碍 盖渠主意 專在開化我國
而開化之義 則背清向倭 一變本朝舊制也 太公亦不得已勉從 曰
可從者從之云云

丙申日記

丙申(一八九六) 六月二十一日 寅時에 倭兵 萬餘名이 大闕 門을 에워싸는 한편 한 부대는 雲峴宮을 에워싸고 한 부대는 申大將 正熙의 집을 에워싸더니 石油를 迎秋門에 뿌려 불을 지르고 구멍을 내어 마침내 門을 열고 난입했던바, 혹은 높은 사다리를 놓아 四面으로 담장을 넘어 들어가 三殿을 에워쌈으로써 그 困境의 核心에 있었다。

그 雲峴宮을 에워싼 자들은 槍을 들고 國太公① 곧 興宣大院君의 宿所를 침입하였던바, 당시 國太公은 설사병으로 편치 못하던 중에 억지로 불들어 앉아 있는데 저 倭兵들이 보고 지나되 서로 대함이 거만하였다。

國太公이 성난 목소리로 꾸짖기를 「내가 國太公의 尊貴한 신분으로 어찌 너희 나라의

이름 없는 졸개들에게 가히 禮로 굴복하겠느냐? 내 머리를 가히 벨지언정 내 목은 굽히기 어렵다」하니 저네들이 마침내 허물을 뉘우치고 大闕에 들어가 일을 의논할 것을 청하였다。

國太公이 이르시기를「내 나이 일흔다섯으로 늙고 병 듦이 이미 極에 다다르고 또한 國家의 政事를 간여하지 않은지 이미 十餘年인데 어찌 國家의 大計를 알겠느냐?」면서 누워 일어나지 않으니 저네들이 혹은 좋은 말로 달래고、혹은 강한 말투로 핍박하고、혹은 위태로운 말로 협박하였다。그러나 國太公께서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더니 巳時에 이르러 中使(內侍)가 宮內로부터 傳旨②를 가져와 國太公께 入宮하도록 전하자 國太公께서 드디어 일어나 中使를 앞에 앉히고 물으시기를「과연 殿下의 親命이시냐? 中殿이 또한 부르심이냐?」하시니 中使가 아뢰기를「그렇습니다」하였다。

또 물으시기를「과연 그런가?」하시니 中使가 아뢰기를「어떤 尊嚴한 곳인데 감히 속되게 거짓으로 부를 이치가 있겠나이까?」하였다。

國太公께서 드디어 미음을 마시고 朝服을 갖추고서 四人이 메는 籃輿③를 타고 靑盖을 덮은 후에 길을 나섰는데 前後 左右로 겹쳐 호위하는 자들은 모두 日兵이었다。

李輔國、李叅判 또한 뒤따라 모시고 들어갔는데 이때 闕內는 倭兵이 철통같이 에워싸 물 샐 틈이 없었고、각 官廳의 入直官僚들은 모두 쫓겨나고 侍從하는 신하로는 다만 李捕將 鳳儀、李叅判 範晋、李承旨 采淵、金嘉鎭、安駟壽、趙羲淵 뿐이었고 申將臣 및 趙督辦은 倭兵에게 쫓겨 들어오고 承閣(承政院) 및 勳閣(忠勳府)에서도 서로 이어 三殿으로

들어왔다。

惠敬堂에 포위되어 있던 王大妃께서는 피하여 洪淳馨의 집으로 나가셨는데 侍衛兵丁들은 모두 軍服과 氈笠을 벗고 도망하였으며 유독 西營④의 兵丁 五百名이 後苑 및 春生門에 나뉘어 있으면서 굳게 막고 火砲를 쏘아 댔다。

이 때 主上으로부터 勅旨가 내려 火砲를 쏘아 사람을 상하지 말라 함으로 이에 西營의 兵丁들이 鳥銃을 깨뜨려 버리고 흩어져 도망하였다。

잠시 후에 倭兵 한 부대가 三軍府⑤를 奪取하고、한 부대는 統禦營과 壯衛營 兩營을 奪取하였는데 당시 砲聲이 우뢰와 같고 哭聲이 들끓는 것 같았다。한편 사내는 짐을 지고 계집은 짐을 머리에 이고、老人은 붙들고 어린애는 이끌고서 도망하는 자가 힘쓸려 붙잡히고 시끄러워 온 城이 마침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다。

이 때 倭兵들은 마침내 四大門⑥ 및 각 壁門을 把守하여 빠져 나가도록 하되 들어오는 자는 저들 公館의 印標⑦를 얻어야 들어갈 수 있도록 하니 사람의 어깨가 서로 맞닿고 온 城 안의 집들이 모두 텅 비었으며 大闕門은 四門 모두 굳게 닫히고 다만 光化門 서쪽 夾門만을 통하는데 出入者는 저 日本 公館의 印標를 취득한 연후에야 비로소 막힘 없이 통과할 수 있었다。저 日本의 주된 뜻은 오로지 우리 나라를 開化하는데 있었고 開化하는 뜻은 清國을 등지고 倭國을 따르게 하며 우리 朝廷의 옛 제도를 아주 바꾸고자 함이었다。國太公 또한 부득히 마지 못하여 따르며 이르기를 「가히 따를 만한 것을 따르라」云云하시었다。

① 國太公 : 朝鮮 말기 高宗의 生父인 興宣大院君 李昰應의 존칭。

② 傳旨 : 임금의 분부를 전함。 임금의 분부를 전하는 문서、 곧 임금의 命令書。
③ 籃輿 : 대나무를 절어서 만든 가마。 의자 같이 생겼음。 竹轎子。
④ 西營 : 朝鮮 때 昌德宮 서쪽에 있었던 禁衛營의 分營。
⑤ 三軍府 : 중요한 軍務를 의논하는 官衙。
⑥ 四大門 : 서울의 興仁之門(東大門)、敦義門(西大門)、崇禮門(南大門)、肅靖門(北門) 등 四門을 이름。 지금은 東大門、南大門만 남아 있음。
⑦ 印標 : 도장이 찍힌 표식으로 근래의 출입 증명과 같은 것。

二十二日 聞闕內消息 則前日太公之初入也 以手 據地於 大殿之前 而連聲大號 曰胡使國事 至於此極耶 大殿龍淚汪然 曰此莫非子之罪也 唯願父主 活我活我 中宮殿 以洋紗靑裙 黑角釵釧 口內只云 非太公 莫可解難 太公遂回視庭陛 曰萬國公法 豈有逼迫隣國之君 如是之義乎 可退一步之地 容我議事 倭兵 遂少退于閤門之外 列陣于慶會樓下 而各殿閣 諸公廨 盡爲據住內帑諸庫之許多貨幣 沒數輸運于泥峴公館 可勝痛歎 是日 傳曰虐民 即負國 民不聊生 何以爲國 一世喧傳 難掩其迹 左贊成

閔泳駿　專事聚斂　歸怨肥己　此不可尋常處之　遠惡島安置　前統制使　閔炯植　貪虐無所不至　流毒遍及隣境　遠惡島安置　前統制使　閔應植　賊營而多變更　抽稅而招物議　絶島定配　前開城留守　金世基殘而起鬧端　倖逭而壞廉防　遠惡地定配　慶州府尹　閔致憲屢典而濫分　溝壑焉無厭　遠地定配　此余所以爲生靈　亦所以保世道之苦心　幷令即速擧行　傳曰春川留守　閔斗鎬　許遞　大護軍　李奎奭　除授　傳曰　安置罪人　李容元　島配　罪人權鳳熙　安孝濟　呂圭亨　幷放　傳曰　兵曹判書　閔泳奎許遞　金鶴鎭除授　傳曰　江華留守許遞　前判書金允植除授　摠制營　革罷　海軍節制　移屬沁營　傳曰　三王不同禮　五帝不同樂　因時制宜　況政治乎　顧我邦　介在東區樞要之地　委靡不振　職由政治之頹隳紊亂　不思變通耳　夫謀國之道　用人爲先　其四色偏黨之論　一切打破　不拘門地　惟賢惟

才是擧 凡係內治外務 務從時宜 大小臣工 各修奮勵之意 克相予寡昧 以新政治 克圖保國安民之策可也 是日政事 總禦使 兼經理使 李鳳儀 右捕將 安駒壽 左捕將 李元會 壯衛使 趙羲淵 統禦使 申正熙 外務督辦 金嘉鎭 外務叅議 兪吉濬 兵判 金鶴鎭 完伯 朴齊純 沁留 金允植 百官會議政府 余以戰服往叅 京宰某某 及嶺人之住京者 盡爲來叅 面面相覷 只各相吊

同月二十二日 闕內의 소식을 들으니 전날 國太公께서 처음 들어가시면서 大殿①앞에서 손을 땅에 기대고 연이어 크게 부르짖기를 「어찌하여 國事가 이런 극도에 이르렀는가?」하시니 大殿의 임금님께서도 눈물을 뚝뚝 떨구시며 이르시기를 「이는 모두 이 자식의 죄입니다。 오직 원하옵건대 父主께서 저를 살려 주십시요。 父主께서 저를 살려 주십시요」하시고、 中宮殿께서는 洋紗 푸른 치마와 黑角 비녀의 服裝으로 입안에서 다만 이르기를 「國太公이 아니면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나이다」하였다고 한다。

國太公께서 드디어 大殿 뜰을 돌아 보시고 이르시기를 「萬國의 公法이 어찌 이웃 나라의 임금을 핍박하는 이 같은 義理가 있겠는가? 가히 한 걸음 물러나 나와 일을 의논해 보자」하니 倭兵들이 드디어 閤門② 밖으로 조금 물러나 慶會樓 아래에 벌려 陣을 치고 있

는 한편 각 殿閣과 여러 公廨를 그들이 모두 응거하고 內帑庫③ 등 여러 창고의 많은 貨幣를 온통 泥峴公館으로 실어 내니 가히 痛歎할 일이었다。

이 날 임금님께서 傳旨에 이르시기를 「백성을 가혹하게 다루는 것은 곧 국가를 저버림이라。 백성이 의지하여 살 수 없으니 어찌 국가라 하겠는가? 온 세상에 떠들썩히 전하니 그 행적을 가리기 어렵다。 左贊成 閔泳駿은 오로지 聚斂을 일삼고 怨聲을 돌리어 자기 배만 불리었으니 이는 보통으로 처리하지 못할 바로써 먼 惡島에 安置④시킬 것이며 前統制使 閔炯植은 貪虐함이 이르지 않은 곳이 없고 그 流毒(害毒)이 이웃 지경에 까지 두루 미쳤으니 먼 惡島에 安置시킬 것이며 前摠制使 閔應植은 兵營을 지어 변경함이 많고 稅金을 거두워 物議를 일으켰으니 絶島에 定配⑤할 것이며 前開城留守 金世基는 殘虐하여 시끄러운 일을 야기시키고 요행히 도망하여 廉恥와 禮防을 무너뜨렸으니 먼 惡地에 定配할 것이며、 慶州府尹 閔致憲은 여러 고을 守令을 지내면서 분수넘친 貪慾으로 백성들을 溝壑(塗炭)에 빠뜨리되 그침이 없었으니 遠地에 定配할 것이다。 이는 내가 生靈(百姓)을 위하고 또한 世道를 보전하고자 하는 苦心에서 아울러 令하노니 곧바로 속히 擧行하도록 하라」하시었다。

또 傳旨에 이르시기를 「春川留守 閔斗鎬를 교체하고 大護軍 李奎奭을 除授하노라」하시고 또 傳旨에 이르시기를 「安置罪人⑥李容元과 島配罪人⑦權鳳熙、安孝濟、呂圭亨은 모두 放免하라」하시고 또 傳旨에 이르시기를 「兵曹判書 閔泳奎를 교체하고 金鶴鎭을 除授하노라」하시고 또 傳旨에 이르시기를 「江華留守를 교체하고 前判書 金允植을 除授할 것

이며 摠制營을 폐지하고 海軍節制營을 沁營(江華營)에 移屬시키도록 하라」하시었다.

傳旨에 이르시기를 「三王은 禮를 한가지로 하지 않고 五帝도 樂을 한가지로 하지 않는 등 때에 따라 制度를 맞게 하였거니 하물며 政治인데야! 돌이켜 보건대 우리 나라는 東區의 가장 중요한 지역에 끼여 있으되 약하여 떨치지 못하였으니 곧 政治가 쇠퇴하고 문란하되 變通을 생각하지 않은 때문이다。 무릇 國家를 일으키는 道는 人才 任用을 先務로 삼아야 하나니 그 四色으로 한 黨派에 치우친 의론은 일체 打破하고、門閥에 구애치 않고 오직 어진 이와 재능 있는 이를 천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內治와 外務에 있어서는 時宜를 좇으기를 힘쓸 것이며 大小 臣僚들은 각기 분발 면려할 뜻을 닦아 德이 적고 識見이 어두운 나를 능히 도와 새로운 政治로써 국가를 보전하고 백성을 편히 하는 計策을 도모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하시었다。

이 날 政事는 摠禦使 兼 經理使 李鳳儀、右捕將 安駒壽、左捕將 李元會、壯衛使 趙羲淵、統禦使 申正熙、外務督辦 金嘉鎭、外務叅議 兪吉濬、兵曹判書 金鶴鎭、全羅觀察使 朴齊純、江華留守 金允植 등 百官이 政府에서 회의를 하였다。

나는 戰服으로 가서 참석하였는데 京城의 宰相 아무 아무 및 嶺南 사람으로 京城에 머무르는 자가 모두 와서 참석 서로 얼굴만 바라보며 서로 가엾어 할 뿐이었다。

① 大殿 : 임금이 거처하는 宮殿、또는 임금의 존칭으로도 씀。

② 閤門 : 임금이 평상시에 거처하는 便殿의 앞문。

③ 內帑庫 : 임금의 사사 財物을 넣어 두는 곳집。 임금이 사사로이 쓰는 돈을 內帑金이라 이름。

④ 安置 : 귀양간 罪人을 가두어 둠。

⑤ 定配 : 장소를 정하여 罪人을 귀양 보내는 것. 流配。
⑥ 安置罪人 : 이미 귀양을 가서 安置되어 있던 罪人。
⑦ 島配罪人 : 섬에 流配되어 있던 罪人。

二十三日 聞闕內梗槩 則日前背清之論 太公抵死不從者 猶有清兵見救之望 今始探知 則李鴻章受日人之賂 不欲動兵 袁大人亦不得已避去 目下 國君 囚在劒戟叢裏 動彈不得 安可不順彼請 不獲已 遂從背清自主之論 又從彼請 逐牙山所屯清兵 方發兵下去 前所往來日國 而主開化之論者 盡除華職 至有以主司爲承旨者 李應翼金夏英二人 閔泳達除户判 中宮殿承候官 閔泳煥 嬪宮殿承候官 閔泳韶 都下物議 清兵若不日來到 則死亡必多云 故 是日洶洶爻象 甚於前日 十里轎馬貰 至於百兩 擔貰至於三四十兩 一人渡江十五兩云耳 飯後 又造政府 會者 多於前日 見光化門內 堆積柴木 與檐齊 向南而安大砲 倭將 大鳥圭

介 乘四人轎 昂然出入 傍若無人 門樓 及丁閣 盡爲倭兵把守 近侍之持倭標出入者 只以笠子戰服 政府會者 或着戰服 或着褻衣 着小褻衣者 居多 斷去金玉貫子者無數 重臣 皆徒步而行

同月二十三日 闕內의 대강 소식을 들으니 日前에 淸나라를 배격하는 논란을 國太公이 죽기를 작정하고 좇지 않았을 때에는 오히려 淸兵이 구해 줄 바램이 있었는데 이제 비로소 더듬어 살펴 보니 淸나라 外交官 소위 北洋大臣 李鴻章이 日人의 賂物을 받고 軍兵을 움직이지 않으므로 袁大人(袁世凱) 또한 어쩔 수 없이 피하여 갔다고 한다。

당시 나라의 임금이 칠과 창이며 銃彈 속에 갇혀 있어 저들의 요청을 수종하지 않으면 편안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어쩔 수 없이 淸나라를 배척하고 自立하여 남의 보호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日人의 의논을 따르게 되었으며 또한 저들의 요청에 따라 牙山에 주둔하여 있던 淸兵을 몰아내고자 軍兵을 내어 내려 가게 되었다。

한편 전에 日本國을 왕래하며 開化의 論을 주장하던 자들은 모두 화려한 官職에 제수되었던바 主事로써 承旨가 된 자가 있었으니 李應翼、金夏英 二人이 바로 그였으며 閔泳達은 戶曹判書에 제수되고 中宮殿 承候官①에는 閔泳煥이 嬪宮殿 承候官에는 閔泳韶가 기용되었다。

이에 都下、곧 長安의 物議(評論)가 淸兵이 만약 며칠 안되어 도달할진대 死亡者가 필

시 많으리라 云云하였다。 때문에 이 때 흉흉한 조짐이 이전보다 심하여 十里를 가는데 가마 삯이 百兩에 이르고 擔貫、 곧 메고 가는 삯이 三、四十兩이며 한 사람의 江을 건너는 삯이 十五兩이라 이르더라。

食事 후에 또 政府에 나가 보니 모인 자가 전날 보다 많았다。 光化門 안을 보니 땔 나무가 처마에 닿게끔 쌓여 있고 남쪽을 향하여 大砲가 安置되어 있었다。

倭將 오오토리(大鳥圭介)는 四人轎를 타고 교만하게 드나들며 곁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 듯 거침이 없었다。 門樓 및 丁閣은 모두 倭兵이 把守를 보고 近侍로써 倭人의 信標를 지참하고 出入하는 자들은 다만 笠子、 곧 戰帽 戰服을 착용하였으며 政府에 모인 자들은 어떤 사람은 戰服을 착용하고 어떤 사람은 褧衣를 착용하고 또 小褧衣를 착용한 자가 많으며 金貫子② 玉貫子③를 떼어 버리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重臣들이 모두 徒步로 다니었다。

① 承候官 : 임금 및 王后와 世子 및 世子嬪의 起居와 安否를 묻는 官員。 宗親이나 임금의 外戚 중에서 임명됨。

② 金貫子 : 금으로 만든 網巾 관자。 正三品、 從二品의 高官이 붙였음。

③ 玉貫子 : 옥으로 만든 網巾 관자。

二十四日 聞日兵一枝 下去楊根 一枝 下去春川 一枝 下去沁都 在途擄掠無比 傳言未詳 闕內動靜 諸營軍器之奪去者 打碎堆積

于關門內 諸營所藏財幣之奪去者 亦於太公前請還納 太公曰姑爲封留爾所云云

同月二十四日에 들으니 日兵 한 부대는 楊根으로 내려가고 한 부대는 春川으로 내려가고 한 부대는 沁都(江華島)로 내려갔는데 도중에 노략질이 비할데 없다 하며 전하는 말에 大關 안의 動靜은 자상히 알 수 없으나 여러 兵營의 軍器를 탈취한 자들이 軍器를 때려 부수어 關門 안에 쌓 놓고 여러 營門에 감추어진 財物을 탈취한 자들은 또한 國太公 앞에 還納을 청하였는데 國太公께서 이르시되 「우선 쌓아 그곳에 두어라」고 云云하셨다고 한다。

二十五日 仁川電報 八尾島 自辰至巳 砲聲不絶云 日館出榜 日兵如右攘奪民財者 見奪之人來告本館云 自上命宣傳一人 持標信 舁出兵丁死者二人 于東夾門外

同月二十五日 仁川에서 電報하기를 八尾島에서 辰時부터 巳時까지 砲聲이 그치지 않았다고 한다。

日本 公館에서 榜을 내었는데 그에 이르기를 日兵이 右와 같이 백성의 재물을 탈취한다 하니 빼앗긴 사람은 와서 本館에 아뢰라고 하였다 한다。

主上께서 命하시어 宣傳 한 사람이 信標를 가지고 나가 죽은 兵丁 두 사람을 들것에 실어 東夾門 밖에 내다 버리었다。

二十六日 聞淸船二隻 見敗于八尾島 淸將死者三人 自上命仁川守逃避云 城內留住倭兵 盡爲出去 雲宮把守倭兵亦撤去 統壯兩營屯兵 及龍山倉所屯大兵 亦盡撤去 迎戰淸兵云 是日 鍾街諸廛 稍稍開市 差出會議 堂上幾人 及郎廳幾人 設會議廳于闕內 又差金晩植 爲平安監司 金春熙 爲海伯 南學熙 爲慶州府尹 金益容 爲藝文提學 韓耆東 爲同經筵 李南珪 爲承旨 可見不拘色論

同月二十六日 들으니 淸나라 兵船 두척이 八尾島에서 敗戰하여 淸나라 將帥로서 死亡者가 三人이었다 한다。

主上께서 命하시어 仁川 守令더러 逃避하라 이르시는 한편 城內에 머물러 있는 倭兵을 다 쫓아 내고 雲峴宮을 把守하는 倭兵 또한 철거시킬 것이며 統禦營、壯衛營 兩營에 주둔하는 兵士 및 龍山倉에 주둔하는 大兵을 또한 모두 撤去하고 淸나라 軍兵을 맞아 드리

도록 하라 하시었다。

이날 鍾路의 여러 店舖에서 차차 저자를 열고 會議에 차출된 堂上官 몇 사람 및 郎廳 몇 사람이 關內에다 會議廳을 설치하였다 한다。

또한 金晩植을 平安監司로 삼고、金春熙를 黃海監司로 삼고 南學熙를 慶州府尹으로 삼고 金益容을 藝文館提學으로 삼고 韓耆東을 同知經筵事로 삼고 李南珪를 承旨로 삼았으니 色論①에 구애하지 않았음을 가히 보겠다。

① 色論 : 四色黨派의 論爭。老論、少論、南人、北人간에 反目하던 論爭。

二十七日 會議廳所議 舊司官啣 盡爲改革 特設十制府 一曰宮內府 自上主之 關內各官屬之 次議政府 大臣 金弘集 衆議 鄭敬源 內務府 大臣 朴定陽 衆議 李應翼 外務府 大臣 金嘉鎭 衆議 徐相集 度支衙門 大臣 閔泳達 衆議 李源兢 法務衙門 大臣 安駉壽 衆議 金夏英 學務衙門 大臣 兪吉濬 衆議 朴準陽 農務衙門 大臣 李允用 衆議 軍務衙門 大臣 趙羲淵 衆議 權瀅鎭 工務衙門 大臣 金宗漢 衆議 金鶴羽 堂下則 只主司幾員 書

記幾員 舊司諸官 各以類分屬 而冗員 擧皆減省云 且制祿用內重外輕之制 而八路官府 只存一百郡云耳 傳曰左捕將許遞 趙羲淵除授

同月二十七日 會議廳에서 의논하기를 옛 官司의 官啣(官名)을 모두 고쳐 특히 十府를 설치하였는데 첫째 宮內府로써 主上께서 주장하시되 闕內 각 官署를 그에 예속하며, 다음은 議政府로써 大臣은 金弘集이요 衆議는 鄭敬源이며, 다음은 內務府로써 大臣은 朴定陽이요, 衆議는 李應翼이며, 다음은 外務府로써 大臣은 金嘉鎭이요, 衆議는 徐相集이며, 다음은 度支衙門으로 大臣은 閔泳達이요, 衆議는 李源兢이며, 다음은 法務衙門으로 大臣은 安駉壽요, 衆議는 金夏英이며, 다음은 學務衙門으로 大臣은 兪吉濬이요, 衆議는 朴準陽이며, 다음은 農務衙門으로 大臣은 李允用이요, 衆議는 이며, 다음은 軍務衙門으로 大臣은 趙羲淵이요, 衆議는 權瀅鎭이며, 다음은 工務衙門으로 大臣은 金宗漢이요, 衆議는 金鶴羽이다。 堂下는 다만 主司 몇 書記 몇을 두고 옛 官司의 제반 官員은 각기 분류 예속시키는 한편 쓸데 없는 人員은 모두 줄인다고 이른다。 또 制度上 俸祿은 內職을 重히 外職을 輕히 하는 制度를 쓰고 八道의 官府는 다만 一百郡을 둔다고 이른다。

傳旨에 이르시기를 「左捕盜大將을 교체하고 趙羲淵을 除授하노라」하시었다。

二十八日 聞倭兵與淸兵 對陣于小洒坪 坪卽湖西地 而湖南境也

距水原不遠 太倉所儲米穀 盡數輸運于陣所 闕內 及各營所在彈丸 幷爲輸送五江 商馬奪去者數千餘匹 袁館之帥字旗 爲日人斫倒 淸將湯大人 痛哭而去 盖兵家之搴旗 與斬將無異故也云 又聞淸兵十萬五萬 直向日本之大坂城 三萬巡北海而來 二萬來泊于小洒云耳 海伯金春熙呈單辭遞 鄭顯奭除授 李南珪長興府使除授 李采淵河東府使除授

同月二十八日 들으니 倭兵이 淸兵으로 더불어 小洒坪에서 마주 대하여 陣을 치고 있다 하는데 小洒坪은 곧 湖西의 땅으로 湖南과 경계이다。 거리가 水原에서 멀지 않아 太倉(廣興倉)에 쌓여 있는 米穀을 모두 陣所로 운반하고 闕內 및 각 營內에 있는 彈丸을 모두 輸送한다 하며 五江에서 商馬、곧 장사하는 말을 탈취해 간 것이 千餘匹이라고 한다。

淸나라 袁世凱의 館所에 있던 將帥의 깃발이 日人들의 손에 찢겨 넘어짐에 이르러 淸將 湯大人이 통곡하고 떠났으니 이는 兵家에서 깃발을 빼앗기는 것은 將帥의 목을 베이는 것과 다름 없기 때문이라 이른다。

또 들으니 淸兵 十萬 가운데 五萬名이 곧바로 日本 大坂城으로 향하여 三萬名이 北海를 돌아 오고 二萬名은 小洒坪에 와서 定泊한다고 한다。

黃海監司 金春熙가 辭職 單子를 올려 교체한 후 鄭顯奭을 제수하고 李南珪를 長興府使에 제수하고 李采淵을 河東府使에 제수하였다。

二十九日 會議所所議 吏胥 員役 盡數沙汰云 京各司 吏役輩 萬餘人 聚於闕門外 洶洶未知末梢之如何 衣制陞見之服 以帽帶 章服施行 章服窄袖 朝官燕服以 護衣 絲帶 施行 士庶人 以周衣 絲帶 施行 限七月初十日

同月二十九日 會議所에서 의논하여 吏胥、員役、곧 각 관청의 아전들을 거의 줄인다고 이르는데 京中 각 官司의 吏役輩 萬餘人이 闕門 밖에 모여 흉흉함으로 끝내 어찌 될지 알 수 없다。

衣制에 있어 임금께 謁見하는 복장은 紗帽、角帶와 章服으로 시행하되 章服은 소매를 좁게 할 것이며 朝廷의 官吏는 燕服과 絲帶를 시행할 것이며、士庶人은 周衣와 絲帶를 시행하되 기한은 七月初十日까지이다。

七月初一日 會議所議案條列 一、特派專權大臣于列國 示朝鮮自主獨立事 一、廢光緒年號 新建朝鮮年號事 一、劈破門閥

班常格式 勿論貴賤 選用人材事 一、廢文武尊卑之別 只依品階事 一、受賄賂 行強索 私官物 且誣捏無辜 及無端捉致于官府私家者 行重罪致之事 一、廢父母 妻子 兄弟 親戚 故舊連坐之律事 一、改居喪之制 雖居喪中 不妨執行公私事務事 一、解婦女再嫁妨碍事 一、廢公私賤奴婢之制 禁販賣人口子女事 一、矯定早婚之弊事 一、廢僧侶入城之禁事 一、凡係經國之事 雖賤民 有意見者 宜上書于 軍國機務與論事

七月初一日 會議所에서의 의결된 案件을 조목조목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다。

一、專權大臣을 여러 나라에 특별히 파견하여 朝鮮의 自主獨立을 알릴 것。

一、光緒(清 德宗)의 年號를 폐지하고 새로 朝鮮 年號를 세울 것。

一、門閥과 兩班 常人의 格式을 깨뜨리고 貴賤은 물론하고 人材를 골라 쓸 것。

一、文武와 尊卑의 차별을 폐지하고 다만 品階에 준할 것。

一、賂物을 받거나 억지로 搜索을 행하거나 官物을 사사로히 소유하거나 또는 아무 허물이 없는데도 꾸미어 남을 욕보이거나 아무 단서도 없이 官府나 私家에 불잡아 보낸 자는 重罪로 다스릴 것。

一、父母、妻子、兄弟、親戚、故舊에 대한 連坐의 刑律을 폐지할 것。

一、居喪의 제도를 고쳐 비록 喪中에 있더라도 公私 事務를 집행하는데 방해하지 않을 것。

一、婦女의 再嫁에 방해가 되는 것은 해제할 것。

一、公、私賤 奴婢의 제도를 폐하고 사람의 子女를 사고 파는 것을 금할 것。

一、일찍 結婚 시키는 폐단을 바로 잡을 것。

一、僧侶가 民間에 들어옴을 금하는 것을 폐할 것。

一、무릇 國家를 다스리는데 관계되는 일이면 비록 賤民이라도 의견이 있는 자는 마땅히 國政、軍事에 관한 중요한 일을 글로 올려 論할 것。

初二日 傳曰 前司諫權鳳熙 前正言安孝濟 幷 副修撰除授 傳曰 管城將李裕寅 南兵使除授 使之不多日 莅位

初二日 主上께서 傳旨에 이르시되「前司諫 權鳳熙와 前正言 安孝濟를 함께 副修撰에 除授하노라」하시고 傳旨에 이르시되「管城將(北漢山城將) 李裕寅을 南兵使에 除授하노니 며칠 내에 속히 赴任하기 바란다」하시었다。

初三日 傳曰安邊府使許遞 李範晋除授

初三日 傳旨에 이르시되 「安邊府使를 교체하고 李範晋을 除授하노라」하시었다。

湖行日記 上

辛亥五月初六日癸卯 發行 到新基安都事午料 夕宿三十里金谷鄭大門家

辛亥年(國恥後二年 西紀一九一一年)五月初六日癸卯 길을 나서 新基 安都事宅에 이르러 午料하다。 저녁에 三十里金谷 鄭大門의 집에서 자다。

初七日甲辰 到龍宮赤峴酒店午料 夕宿七十里咸昌二安酒店

初七日甲辰 龍宮赤峴酒店에 이르러 午料하고 저녁에 七十里 咸昌二安酒店에서 자다。

初八日乙巳 到愚山鄭安東家午料 因宿其家

初八日乙巳 愚山 鄭安東의 집에 이르러 午料하고 그 집에서 자다。

初九日丙午 到栗雲酒店午料 夕宿化寧錢坐 孔希伯家三十里

初九日丙午 栗雲酒店에 이르러 午料하고 저녁에 三十里 化寧 錢坐의 孔希伯 집에서

자다。

初十日丁未 到ㄴ己阿場午料 夕宿報恩馬老場 朴都事家三十里

初十日丁未 ㄴ己阿場에 이르러 午料하고 저녁에 三十里 報恩 馬老場 朴都事의 집에서 자다。

十一日戊申 玩靑山大寺田元氏村 頗爲可居之基 靑山邑午料 夕宿于沃川瘦洞村酒店

十一日戊申 靑山 大寺田의 元氏村을 구경했는데 아주 살만한 곳이었다。靑山邑에서 午料하고 저녁에 沃川 瘦洞村酒店에서 자다。

十二日己酉 渡稷谷津 午到沃川邑張友家三十里 因宿

十二日己酉 稷谷津을 건너 점심때 三十里 沃川邑 張씨 친구집에 이르러 자다。

十三日庚戌 與張友出鷲沼二十里 玩張友親山 還到張友家午飯與張友同行出西華二十里 宿杏亭宋希文家

十三日庚戌 張씨 친구와 三十里 鷲沼로 가서 張씨 친구 親山을 구경하고 張친구 집으로 돌아와 점심밥을 들고 張친구와 同行하여 西華로 二十里를 가서 杏亭 宋希文의 집에서 자다。

十四日辛亥 張友歸家 玩西華五六洞 午料于養心洞 韓生員達三家 與姜先生仁秀 爛議風土人心生理 與兩友 玩書齋洞數三處 而金鷄抱卵 則龍仁李進士墓 可謂名穴 還宿于 韓生員家

十四日辛亥 張씨는 돌아가고 西華의 五、六洞을 구경한 후 점심은 養心洞韓生員達三의 집에서 들었다。姜先生仁秀와 더부러 風土人心生理등을 난상토론하고 두 친구와 書齋洞 두세곳을 구경했는데 金鷄抱卵은 龍仁李進士의 墓로서 가히 名穴이라 이르겠다。韓生員 집에 돌아와 자다。

十五日壬子 訪上養心 徐才煥 還于宋希文家 因作別 而張友婿君 贖酒債五錢 其日 行四十里乃仁 玩浮槎渡江形 無足可觀 夕宿于 仁興里金都事天一家

十五日壬子 上養心 徐才煥을 방문하고 宋希文의 집으로 돌아오면서 작별할때 張친구의

사위가 술값五錢을 주어 받았다。 그날 四十里 乃仁으로 가서 浮槎渡江形을 구경했는데 볼게 없었다。 저녁에 仁興里 金都事天一의 집에서 자다。

十六日癸丑 與天一 同行于加川 玩天一親山 還來午料于加川店 金鱗膾 與生鮮甚美飽喫 午後 玩張友祖山 僅可用 夕還宿于天一家

十六日癸丑 天一과 加川을 同行하여 天一의 親山을 구경하고 돌아와 加川店에서 午料했는데 金鱗膾와 生鮮이 맛이 있어 飽食하였다。 午后에 張친구 祖父墓所를 보았는데 겨우 쓰겠다。 저녁 天一의 집으로 돌아와 자다。

十七日甲寅 跋涉乃仁上津 向楮谷 從某至某十餘里 出馬場村大路 至松峴三十里午料 夕到龍潭邑三十里 宿文主事宅奎家

十七日甲寅 乃仁의 上津을 건너서 楮谷으로 가는데 누구를 따라 어데로 十여리를 가니 馬場村大路가 나왔다。 松峴三十里에 이르러 午料하고 저녁에 三十里 龍潭邑에 이르러 文主事宅奎집에서 자다。

十八日乙卯 向朱子川二十里 中路層岩絶壁 架岩鑿石 通路甚爲

危險 至十里三巨里午料 踰峴値雨 而此峴 即鷄龍主脈也 嶺高無人家數十里 夕至于二十里新基店

十八日乙卯 二十里朱子川으로 가는데 中路에 層岩絶壁과 架岩鑿石이 연이어 通路가 심히 위험했다。 十里三巨里에 이르러 午料하고 고개를 넘다가 비를 만났는데 이 고개가 즉 鷄龍山主脈으로써 고개가 높고 數十里에 이르도록 人家가 없었다。 저녁에 二十里 新基店에 이르렀다。

十九日丙辰 晨發 到于云龍里查家 終日細雨

十九日丙辰 새벽에 길을 나서 云龍里查家(사돈집)에 도착했는데 종일 가랑비가 내리다。

二十日丁巳 午後 與宋友 玩雲門寺十里往還 因留查家

二十日丁巳 午后에 宋친구와 같이 雲門寺를 구경하려 十里길을 갔다가 돌아와 查家에서 유숙하다。

二十一日戊午 與田斯文同行 玩高山邑二十里 鳳翔十里 三岩洞回程 栗所崔順五家午料 向三奇洞二十里 亭子洞十里 田喪主士

順家留宿 此夕始雨 終夜連注

二十一日戊午 田斯文과 同行하여 二十里의 高山邑과 十里의 鳳翔과 三岩洞을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栗所 崔順五의 집에서 午料하다。 二十里三奇洞을 거쳐 十里亭子洞에 田喪主士順의 집에서 잤는데 이날 저녁 비가 시작하여 밤새 퍼부었다。

二十二日己未 大雨 溪水大漲 因留

二十二日己未 큰비가 내려 냇물이 크게 넘침에 그대로 머무르다。

二十三日庚申 登華山 周覽近處 與朴生員震陽 評華坪基址

二十三日庚申 華山에 올라가 근처를 두루 살펴보고 朴生員震陽과 華坪基址를 評했다。

二十四日辛酉 發行 訪德谷洞 踰鵲峴二十里 午料于恩津新基向仁乃市場十里 而訪茅村面 茅下里第二統三戶 明生員文景家字章煥 因宿 周覽村基 頗爲可居處也

二十四日辛酉 길을 나서 德谷洞을 訪問하고 二十里鵲峴을 넘어서 恩津新基에서 午料하다。 仁內市場으로 가서 茅村面 茅下里 二統三戶에 明生員文景의 집을 방문했다。 이 분의

字는 章煥이니 이곳에 머무르면서 마을터를 두루 보았는데 아주 살만한 곳이었다。

二十五日壬戌 與明友登洞後山 玩山氣則地勢平坦 山勢融結 幾百里內初見之地也 即向淡谷 訪金長津 爛議陰陽宅基 午料後與長津同行 訪笠後洞南山里朴農山乾斗字處元家 因宿

二十五日壬戌 明씨친구와 동내 뒤 山에 올라 山氣를 구경하니 地勢가 平坦하고 山勢가 잘짜여서 몇百里안에서 처음 보는 곳이다。곧 淡谷으로 떠나 金長津을 訪問하여 陰陽宅을 相議하고 午料后에 長津과 同行하여 笠後洞 南山里에 朴農山乾斗 字處元의 집을 訪問하여 자다。

二十六日癸亥 則夏至 又向茅洞 回程 至明友家作別 訪牛首里二十里宗人家 則老人父子身自耕田 故暫聞所言 則族親盡散 只存數家 沒無頭緒云 即地相別 訪玉果洞十里 族人加善大淵家午料 俄時 牛首里金長津 逐後來到牛首里 故同行至玉果洞 聞于大淵老 則下表井族人十餘家 陽甫聖洛 主張云云 午後 與金長

津三人作伴 向新都三十里洪友子元家 則洪友出他 因宿其家

二十六日癸亥 夏至日이다。 또 茅洞으로 가서 돌아오는 길에 明씨 친구집에 들러 작별하고 二十里의 牛首里 일가집을 訪問했더니 老人父子가 몸소 밭을 갈고 있었다。 잠시 말씀을 들어보니 집안이 모두 떠나고 몇집이 남았는데 두서가 없다고 하였다。 바로 작별하고 十里의 玉果洞 일가 加善 大淵을 訪問하여 午料하였다。 좀전에 金長津이 뒤쫓아 牛首里에 도착함으로써 同行하여 玉果洞까지 왔다。 大淵老人에게 들으니 下表井에 일가가 十餘집 있는데 陽甫 聖洛이 主張한다고 한다。 午后에 金長津과 三人이 作伴하여 三十里 新都 洪친구 子元의 집으로 갔었다。 洪친구가 出他했으나 그 집에서 자다。

二十七日甲子 與少主人勻杓 周玩新都基址 及東村舊墟內基 늣즈積洞回還 午料後 金長津還家 又留宿其家 此夕老主人還家 握叙情話

二十七日甲子 젊은 主人 勻杓와 新都의 基址 및 東쪽마을 內殿터를 두루 구경했다。 늣즈積洞에서 돌아와 점심을 든뒤에 金長津은 집으로 돌아갔다。 또 그 집에서 잤는데 이날 늙은 主人이 돌아와서 손잡고 정담을 나누었다。

二十八日乙丑 與主兄作伴 踰東門峴 玩上細洞 踰忽木峴 玩城

北村 酒店歇脚 此洞軒豁 羅星秀麗 千基無慮 踰散亭 行二十里到周岩崔叅奉駙永家 午料 向星田十里野中 玩洪友親山 又周玩星田 上下圓局 而夕宿洪友次子家 金哀鼎鎬 同居其室

二十八日乙丑 主人兄과 함께 東門고개를 넘어 上細洞을 구경하고 忽木고개를 넘어서 城北마을을 구경하고 酒店에서 다리를 쉬었다。 이 동내가 넓고 안산이 秀麗해서 큰 마을이 틀림없다。 散亭을 넘어 二十里를 가서 周岩에 崔叅奉駙永집에 이르러서 午料하였다。 星田十里를 가서 野中의 洪친구의 親山(父母墓所)을 구경하고 또한 星田의 上下圓局을 구경했다。 저녁에 洪치구의 두째아들의 집에서 잤는데 金喪主鼎鎬가 한집에 同居하다。

二十九日丙寅 始雨 因留宿其家 終日洽雨

二十九日丙寅 비가 시작하여 그집에서 잤는데 終日 비가 내리다。

六月初一日丁卯 雨晴 其朝 羅教官來訪 因別 與洪友 向儒城五里金友德煥家午料後 訪甲洞五里李主事東陽家 因留宿 張生員應日 同宿

六月初一日丁卯 비가 그치다。 이날 아침에 羅敎官이 찾아와 작별한후 洪친구와 儒城五里로 向하여 金친구 德煥의 집에서 午料한 뒤에 甲洞五里 李主事東陽의 집을 訪問하여 유숙하였는데 張生員應日과 함께 잤다。

初二日戊辰 洪張兩友相別 向柑城東五里 三十里金高山永珍家留宿 玩山川 則土厚水深 大江縈廻 而大江北 尖峰高秀 又其脉南走數里 重疊作華蓋形 其下有百餘户大村 問其地名 即公州三巨里林村 可謂樂土 生居莫上 其野中 有獨峯 亦有亭 謂之獨樂亭 即林氏亭云云

初二日戊辰 洪張 두친구와 작별하고 柑城五里로 떠나 三十里 金高山永珍의 집에서 머물러 지내면서 山川을 구경하니 땅이 깊고 물이 깊으며 큰 江이 둘러가고 大江 北쪽에 높은 峯이 잘 생겼는데 그 脉이 南쪽으로 數里를 달리면서 陽傘모양으로 겹쳐있고 그 아래에 百여户의 큰 마을이 있어 地名을 물어보니 즉 公州三巨里 林氏의 마을이라고 하는데 樂土로서 살기가 이보다 낳을 곳이 없을 것 같다。 들 가운데 獨峯이 있고 또한 亭子가 있어 獨樂亭이라 이르는데 林氏의 所有라고 했다。

初三日己巳 還來三十里儒城 金友家午料 向果禮二十里 金友文擧家 文擧留于下坪書室 來訪喜逢握敘 其夕 宿于南進士廷晋家與權碩士郁采 同宿 終夜論談

初三日己巳 三十里의 儒城 金치구의 집으로 돌아와서 午料하고 二十里의 果禮 金치구 文擧의 집을 찾아갔는데 文擧가 下坪書室에 머물러 있다가 찾아와 반갑게 손을 잡고 회포를 풀다。 그날 저녁 南進士廷晋의 집에서 잤는데 權碩士郁采와 함께 자면서 밤을 새우며 이야기 했다。

初四日庚午 朝 與文擧問此地山川則 無愁洞(權村) 芳山沙寒里(大田上) 石南(宋村)宋村 周原場 懷德 柳川面 茅山 康泰洞 以上懷德 皆吉地云云 與文擧同行 玩大田 則日人陸地開港 果數千户盤據 商店車路 氣勢最雄 與文擧作別 過宋村 逾一峙嶺 二十里到周原 則山氣佳麗 奇峯層巒 無秀別格 즐메난 則宋村 而有天掘處云 其下有秋洞 而趙大妃所生處 今閔判書家卜居地也 其越邊平地 有

一村 即思訥村也 閔台植 閔弘植 新卜居村 與馬山居宋炳奎 野中相逢 論山氣 而同入于閔弘植家午料 即向塔上十里宗人李淳熙淳在家 因宿

初四日庚午 아침에 文擧에게 이곳 山川을 물어보니 無愁洞은 權氏村이요 芳山 沙寒里大田上 石南은 宋氏村인데 宋村、周原場、懷德、柳川面、茅山、康泰洞 以上은 懷德인데 모두 吉地라고 했다。 文擧와 같이 大田을 구경했는데 日人들이 陸地에 開港하여 數千户가 되는데 商店과 車路를 점령하여 氣勢가 웅장하다。 文擧와 작별하고 宋村을 지나 덜치고개를 넘어 二十里의 周原에 도착하니 山氣가 佳麗하고 기묘한 봉우리들이 잘생기지 않은 곳이 없었다。 즐메는 宋氏村인데 天掘인 곳이라하고 그 아래에 秋洞이 있는데 趙大妃가 탄생한 곳인데 지금은 閔判書의 집이 卜居한 곳이다。 그 건너편 平地에 마을 하나가 있는데 思訥村인데 즉 閔台植 閔弘植이 새로 卜居한 마을이다。 馬山에 사는 宋炳奎와 野中에서 만나서 山氣를 상의하다가 함께 閔弘植의 집에 들어가서 午料하고 곧 塔上里十里에 一家 李淳(洙)熙 淳(洙)在의 집으로 가서 그 집에서 자다。

初五日辛未 向十里城主洞 族人李聖根三汝家 午料 即渡楡湖津 旺墓洞先祖文僖公墓 省墓 從主龍下十五里 文義邑安博川翊煥

宿

初五日辛未 十里의 城主洞 일가 李聖根三汝의 집으로 가서 午料하고 바로 楡湖나루를 건너 王墓洞 先祖文僖公墓에 省墓하고 主龍을 따라 十五里의 文義邑 安博川翊煥의 집으로 내려와 자다。

初六日壬申 向十里坐一 則前朝山 羅列甚好 局勢廣濶 然後龍單弱無靠托 暫發之地也 即向十里銀杏亭午料 未到此亭 江南有杏亭村 東向 申氏主張云 基址可用 即向十里悅峙峴 夕宿

初六日壬申 十里의 坐一里로 갔는데 앞의 案山이 잘 늘어 섰고 局勢가 廣濶하나 後龍이 單弱하여 의탁할데가 없어서 잠시 발복할 곳이다。바로 十里의 銀杏亭으로 가서 午料하다。이 亭子에 이르기전에 江南으로 杏亭村이 있어 東向인바 申氏가 主張한다고 하는데 터가 쓸만하다。바로 十里의 悅峙의 고개를 가서 자다。

初七日癸酉 向十里青川 沈喪人相晋家 歇脚 午前 玩青川境内山川清秀 可謂勝地 又登尤菴墓周覽 下來午料 留宿

初七日癸酉 十里의 青川에 沈喪主相晋의 집으로 가서 다리를 쉬고 午前에 青川境内를

구경하니 山川이 淸秀해서 勝地라 하겠다。 또 尤菴墓에 올라 두루 살피고 내려와 午料하고 머물러 쉬었다。

初八日甲戌 向十五里甘文川廉都事家午料 玩沈報恩相珏先墓名穴 向五里華陽洞 渡兩大川 入洞口 層崖相對 洞府深邃 及到萬東廟境 奇岩恠壁千層塔 飛瀑驚湍萬壑雷 先正遺墟 砌石荒凉 神宗廟宇 巍然顧瞻 路傍民舍門楣 邪蘇教天主學盛熾 先賢遺風 果至此境耶 慨嘆無已 轉向松面十里 石逕崎嶇 江崖壓臨 艱辛得達 到松面 則野濶山低 有李東皐 昔壬辰避亂處 瓦屋數家尚傳 果然福家也 問沈 黃龍出水形 詳玩 向十里ᄂᆞᆫ峙酒店 宿

初八日甲戌 甘文川 廉都事의 집으로 가서 午料하고 沈報恩相珏의 先代名穴墓를 구경했다。 五里의 華陽洞으로 向하여 兩大川을 건너서 洞口로 들어서니 층벽이 맞서있고 골짝이 깊고 크다。 萬東廟가 있던 곳에 이르니 奇岩恠壁이 千層塔이요、 飛瀑驚湍이 萬壑雷였다。 先正(우암선생)遺墟는 주추돌의 흔적만이 썰렁하고 神宗의 廟宇가 있던 곳은 높다랗게 보였다。 길가의 민가에는 邪蘇敎 天主敎만 성하고 先賢의 遺風은 어찌 이 지경에 이

르렀는고 탄식해 마지 못했다。 松面十里로 向했는데 돌길이 험하고 江언덕이 위험하여 간신히 松面에 도착하니 들이 넓고 山이 낮으막한데 李東皐가 壬辰亂에 피난하던 곳으로서 기와집 몇채가 아직도 남아 있는바 과연 복받은 집이다。 沈씨의 黃龍出水形을 물어 자세히 구경하고 十里 늘峙酒店으로 가서 자다。

初九日乙亥 早發 逾늘이峙朝飯 到十里壯岩 石桂洞 族人李叅奉致九家午料 向二十里上樓洞 踰高山 訪都友家 宿

初九日乙亥 일찍 길을 나서 늘이峙를 넘어 朝飯을 들고、十里의 壯岩 石桂洞 일가 李叅奉致九의 집에 이르러 午料하고、二十里의 上樓洞으로 向하여 高山을 넘어 都친구의 집을 방문하여 자다。

初十日丙子 與都友 同行至三十里栗藪 訪李主事鍾冕則不在家 即向籠岩市 逢朴友疇經 到其家 宿

初十日丙子 都氏친구와 同行하여 三十里의 栗藪에 이르러 李主事鍾冕을 訪問했더니 집에 없어서 바로 籠岩市로 向하여 朴친구 疇經을 만나 그 집에 가서 자다。

十一日丁丑 與朴友同行 逾飛峙 光大亭 玩其親山 下張主事家

午料 午後 細雨濛濛 即發 從水口 瓶泉亭下來 兩山相對 層崖絶壁 不可一足放心 世所謂 俗離山牛腹洞 洞按道里之道里也 昔日夙聞 願一見之矣 今日始得見之 可謂蜀道天險也 回還宿

十一日丁丑 朴치구와 同行하여 飛峙 光大亭을 넘어 그의 親山을 구경하고 張主事의 집으로 내려와 午料했다。午后에 이슬비가 내림에 곧 떠나서 水口를 따라 瓶泉亭으로 내려오는데 두 山이 맞다 있고 층암과 절벽이 잠시도 마음 놓지 못할 곳으로 世上에서 이르는 俗離山牛腹洞이라。洞字는 알아보니 道里라는 道里이다。옛날에 일찍이 듣고 한번보기를 願했는데 오늘 처음 보았다。可히 天險의 蜀道였다。돌아와 자다。

十二日戊寅 連雨不霽 午料後雨晴 即發 行十里鵝湖李碩士炳七字應星家 其叔元汝叅奉來留 握手叙懷 留宿

十二日戊寅 계속 비가와서 개지않았다。午料 후에 비가 개서 곧 길을 나서 十里의 鵝湖 李碩士炳七 字應星의 집으로 갔는데 그의 叔父 元汝叅奉이 와있어 반갑게 회포를 풀고 자다。

十三日己卯 雨

十三日己卯 비가 오다。

十四日庚辰 雨

十四日庚辰 비가 오다。

十五日辛巳 雨少止 大漲 江不通

十五日辛巳 비가 조금 그쳤으나 물이 크게 넘쳐 江이 안통했다。

十六日壬午 與元汝叔侄同行 渡城低堡築 飮酒作別 向十里羅川 金聞慶光濟家 遇雨 投入午料 因宿

十六日壬午 元汝의 叔姪과 同行하여 城밑 堡뚝에 가서 술을 마시고 작별했다。十里의 羅川 金聞慶光濟의 집으로 갔다。비가 와서 들어가 午料하고 자다。

十七日癸未 大雨大風

十七日癸未 큰 비가 내리고 큰 바람이 불다。

十八日甲申 發行 二十五里聞慶邑 訪李主事鍾冕 在學監 相遇

敘懷 午料 即發 向三十里葛坪李碩士周賢字泰應家 因宿

十八日甲申 二十五里 聞慶邑으로 떠나서 李主事鍾冕을 訪問했는데 學監으로 있던 중 만나서 懷抱를 풀다。午料하고 바로 떠나서 三十里의 葛坪 李碩士周賢 字泰應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유숙하다。

十九日乙酉 朝 訪李利川熙德 李英明 李德家 英明家午料 發行 逾狐項峴十里 遇雨沒霑 行二十里赤城金哥酒店 宿

十九日乙酉 아침에 李利川熙德과 李英明과 李德의 집을 방문하고 英明의 집에서 午料하다。길을 떠나 狐項고개를 넘어 十里쯤에서 비를 만나 옷을 다 적시다。二十里를 가서 赤城 金가 酒店에서 자다。

二十日丙戌 終夜至朝 終日雨 又留宿

二十日丙戌 비가 밤새 아침까지 종일 와서 또 자다。

二十一日丁亥 早發 跋涉逾德峴 不能渡澗 向偃旗洞 從回項峴 逾狗落峴 至鳴鳳酒店朝飯 凡行二十里 朝後 行新基二十里 訪

李生員相面 午料 扶渡道村川 逾吾道峴 從寶谷歸家十里 自五月初六日 至六月二十一日凡四十六日

二十一日丁亥 일찍 길을 나서 물을 건너고 고개를 넘었으나 내를 못 건너서 偃旗洞으로 向했다。 回項고개를 따라 狗落고개를 넘어 鳴鳳酒店에 이르러 朝飯을 들기까지 二十里를 걸었다。 朝飯後에 新基二十里를 걸어 李生員을 訪問하여 相面하고 午料했다。 道村川을 불들어 건너고 吾道峴을 넘어 寶谷을 따라 十里의 집에 돌아왔다。 五月初六日부터 六月二十一日까지 무릇 四十六日만에 귀가하였다。

湖行日記下

壬子二月二十二日乙卯 發行 到柳川店三十五里 午料 夕宿于聞慶三巨里四十里 金明珠家

壬子年(國恥后三年 西紀一九一二年)二月二十二日乙卯 길을 떠나 柳川店에 이르니 三十里길이었다。 점심을 들고、 저녁은 聞慶三巨里까지 四十里길을 와서 金明珠의 집에서 잤다。

二十三日丙辰 早發 渡大川 到牛池十里洞 申喪人大弼家 留宿

二十三日丙辰 일찍이 길을 나서 大川을 건너 牛池十里洞에 이르러 申喪人 大弼의 집에서 잤다。

二十四日丁巳 還送仁矩 其日 與申洛熙鉉斗 周玩山川

二十四日丁巳 仁矩(아들)를 들려보내고 그날 申洛熙와 鉉斗와 같이 山川을 두루 구경했다。

二十五日戊午 午後 與申友 同時發行 到咸昌邑 梧水井十五里 金哀漢宗家 因宿 款待

二十五日戊午 午後에 申氏 친구와 함께 길을 나서 咸昌邑梧水井까지 十五里길에 이르러 金喪主 漢宗씨의 집에서 잤는데 후대를 받았다。

二十六日己未 到柏田洞三十里 李老酒店 午料 踰北亭峴 到化寧市四十里 崔應三家 宿

二十六日己未 柏田洞 三十里길에 이르러 李老人 酒店에서 점심을 들고 北亭고개를 넘어서 化寧市 四十里길에 이르러 崔應三의 집에서 잤다。

二十七日庚申 到報恩三巨里三十里 午料 到求仁里十里 李東烈家 宿

二十七日庚申 報恩三巨里三十里길에 이르러 점심을 들고、求仁里十里길에 다달아 李東烈의 집에서 잤다。

二十八日辛酉 到北室十里 暫見村樣 向報恩邑十里 到幷院店五里 午料 此日風勢西急 揚沙不能行步 踰首利峙 懷仁邑二十五里 朴哥店 宿

二十八日辛酉 北室十里에 이르러 잠깐 마을 구경을하고 報恩邑十里길을 向하여 幷院店五里에 이르러 점심을 들었다。이날 西風이 急하여 모래가 날려서 걸을 수가 없었다。首利고개를 넘어 懷仁邑二十五里 朴가店에 이르러 잤다。

二十九日壬戌 遇鄭藥局 贊敎 談話 踰馬九里峴 文義花山張判事家二十里 午料 過文義邑十里前店 德留三里朴哥店 宿

二十九日壬戌 鄭藥局 贊敎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馬九里고개를 넘어서 文義 花山 張判

事의 집 二十里에서 점심을 들고 文義邑十里前店을 지나 德留三里의 朴가店에서 자다。

三月初一日癸亥 發行 急雨驟至 到十里五加里 避雨 渡龍津 經鐵路十里 沙日市十里 午料 渡江 到黃友致穆留所 薄雲十里 宿

三月 初一日癸亥 길을 나섰는데 소나기가 내려 五加里十里에 이르러 비를 피하고、龍津을 건너서 鐵路를 건너 十里길이요、沙日市 十里에서 점심을 들고 江을 건너서 黃씨친구 致穆이 있는 곳 薄雲里十里에서 자다。

初二日甲子 微雨 與黃友 翫上下薄雲 午到儒城三十里 訪金友作西行不還 前市午料 到星田五里 周玩 到伏龍洞一里 訪李進士公八家 宿

初二日甲子 이슬비가 오는데 黃氏친구와 위薄雲里와 아래薄雲里를 구경하고 儒城三十里에 金氏친구를 방문하였으나 서울에 가서 돌아오지 않아 앞의 市場에서 점심을 들었다。星田五里에 이르러 두루 구경하고 伏龍洞一里에 이르러 李進士 公八氏를 방문하여 자다。

初三日乙丑 申哀 頰腫大作 因留

初三日乙丑에 申喪主가 볼에 종기가 크게 나서 그로 인하여 머물렀다。

初四日丙寅 與李上舍 玩朴氏山 行牛耕田形 其日又信宿 其夕嶠南三四老 遊覽次 會到主家 同宿

初四日丙寅 李上舍와 같이 朴氏산소를 구경하였는데 行牛耕田形이었다。 그날 또 유숙하는데 저녁에 영남 老人 三四人이 유람차 주인집에 이르러 함께 자다。

初五日丁卯 玩新基 身添感寒 煎藥服

初五日丁卯 新基를 구경하는데 感氣가 있어 藥을 다려먹다。

初六日戊辰 與申哀分離 申哀還程 吾則先發 踰揷峙 石峰酒店午料 入北門峙 到洪友家 留

初六日戊辰 申喪主와 작별하여 申은 돌아가고 나는 먼저 나서 揷峙를 넘어서 石峰里 酒店에서 午料하고 北門고개를 넘어서 洪氏친구집에 이르러 유숙하다。

初七日己巳 與洪友張雅 訪墨坊里崔委員正甫 午料 與崔友 同

爲作伴 周玩佛岩等地 同宿洪友家

初七日己巳 洪友와 張雅와 같이 묵방리 崔委員正甫氏를 방문하여 午料하고 崔친구와 동행하여 佛岩里등을 두루 구경하고 함께 洪友집에서 자다。

初八日庚午 與洪星汝 玩連山鳳谷 午料于徐龜城家 與龜城 同玩無難里 蓮花浮水 還宿于龜城家

初八日庚午 洪星汝와 함께 連山 鳳谷을 구경한 후 徐龜城의 집에서 午料하고 龜城과 함께 無難里 蓮花浮水形을 구경하고 돌아와서 龜城의 집에서 자다。

初九日辛未 玩黃土峙新基地 與金進士漢慶 同玩新基址 而作別向漢三川 山回水轉十餘曲 行數三十里 午料西羊店 玩漢三川還來時 踰鳥峙 玩旺臺里 連山金墓 眞爲大名山 又玩九禮室名基 行十餘里 過豆溪 夕食 月下 行五里坪村 宿李賢國家

初九日辛未 黃土고개 새터를 구경하고 金進士漢慶과 같이 새基址를 구경한 다음 작별하고 漢三川으로 向하는데 山도 돌고 물도 돌기를 十여굽이처서 數三十里를 나갔다。 西

羊店에서 午料하고 漢三川을 구경하고 돌아오면서 새재를 넘어 旺垈里 連山金氏墓를 구경하였는데 참으로 大名山이었다。 또 九禮室 名基를 구경하고 十여리를 걸어서 豆溪를 지나 저녁을 들고 달밤에 五里를 걸어서 坪村 李賢國의 집으로 가다。

初十日壬申 與賢國同行 玩鷄龍東幹 野中基址癸坐基 還來洪友家 午料後 玩佛岩南邊基址 及鍾路基 又向白岩洞五里 玩基址而宿朱樟浩家

初十日壬申 賢國과 함께 鷄龍山 東쪽줄기 野中에 癸坐의 基址를 구경하고 洪友의 집에 돌아와서 午料하고、佛岩里 南쪽 基址와 鍾路터를 구경하고 또 白岩洞五里를 가서 基址를 구경하고 朱樟浩의 집에서 자다。

十一日癸酉 詳見白岩閔氏火燒基址 回來鳳林五里宿 其夕偶逢姜秉玉 誠是意外

十一日癸酉 白岩洞閔氏의 불탄 基址를 자세히 보고 鳳林洞五里로 돌아와서 자다(화산리) 저녁에 姜秉玉을 우연히 만나니 참으로 뜻밖이다。

十二日甲戌 與洪雅同行 玩升方谷 梨洞化鶴谷 踰大嶺 玩長谷白石 新沼 泛甫長 凡四十里 宿魯城前酒店

十二日甲戌 洪雅와 같이 뒷방골과 배실, 化鶴골을 구경하고 큰 고개를 넘어서 長谷 白石 新沼 泛甫長 등 四十里를 구경하고 魯城앞 酒店에서 자다。

十三日乙亥 遇雨 午後發行 玩十里村酉峰尹氏村 臥牛形 遇雨回程 到二十里魯城鉢伊岩張鳳傑家 宿

十三日乙亥 비가와서 午后에 떠나 十里의 酉峯 尹氏村에 臥牛形을 구경했다。 비를 만나 돌아서서 二十里의 魯城鉢伊岩 張鳳傑의 집에 이르러 자다。

十四日丙子 到公州大壯鄭校理同(缺)宅寅億家 宿

十四日丙子 公州大壯 鄭校理宅에 이르러 同(缺)(빠짐)宅 寅億의 집에서 자다。

十五日丁丑 玩大壯北道人寓所 則亦可卜居無害 直向北十里 新元寺局內 又向北五里 玩陳氏村中 甲寺洞口踰峴 玩清沼內外村 回程數十里 踰西門峙 石逕崎嶇 經龍沼下來 到鳳林 則日已暮矣

十五日丁丑 大壯의 北道사람이 사는 곳을 구경했는데 살만한 곳이었다。 바로 北으로 十里 新元寺局內로 向하였다。 또 北으로 五里의 陳氏村으로(甲寺洞口) 向했다。 고개를 넘어 清沼內外村을 구경하고 數十里 길을 돌아서 신도안 西門고개를 넘는데 돌길이 험하였다。 용추로 내려와서 鳳林洞에 이르니 해가 저물었다。

十六日戊寅 與洪雅同行 訪青松李雅 則上去連天寺不遇 回到石溪村 訪李申兩先生談話 又訪德川金老人 則本居人金老人 李碩士 皆是好主人 李雅家午料 洞中 有一欲賣家坐 故推以問之 則京來徐僉知家云云

十六日戊寅 洪雅(洪氏선비)와 같이 青松에 李雅를 訪問했더니 連天寺에 올라가서 못만나고 石溪村으로 돌아와서 李氏와 申氏 두 先生을 訪問하여 談話하고 또 德川에 金老人을 방문했더니 그곳에 사는 金老人과 李碩士가 모두 좋은 主人이었다。 李雅(李氏선비)의 집에서 점심했다。 마을에 집과 터를 팔겠다는 사람이 있다고하여 물어본즉 서울에서 온 徐僉知의 家坐라고 하였다。

十七日己卯 探知徐宅 則有先言者 事不成 此日 與張友洪友同

行 訪青松李藥局 回程 訪李賢國家 遇雨 同宿

十七日己卯 徐氏의 家坐를 탐지해 본즉 먼저 약속한 곳이 있다고하여 일이 안되었다。
이날 張氏 洪氏친구와 함께 걸어서 青松 李藥局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李賢國을 訪問했는데 비가 와서 함께 자다。

十八日庚辰 回來鳳林洞 宿

十八日庚辰 鳳林洞으로 돌아와서 자다。

十九日辛巳 與洪雅季氏張雅同行 踰北門 又踰揷峙 來星田二十里 金喪人家 宿

十九日辛巳 洪선비 아우와 張선비와 함께 걸어서 北門을 넘고 또 삽재를 넘어서 星田二十里 金喪主의 집에서 자다。

二十日壬午 到儒城金友家五里 不遇 到後薄雲三十里 黃致穆學房 訪姜北青 宿

二十日壬午 儒城 金氏친구 집을 五里길에 가서 못만나고 뒷 薄雲里三十里 黃致穆書堂

에 이르러 姜北靑을 방문하여 자다。

二十一日癸未 與黃友同行 到月田 訪成主事周英家 午料 謁梅竹堂成三問廟 黃友作別 渡黔水津十里 又到蓉浦十里 李生員英默家 宿

二十一日癸未 黃氏친구와 함께 걸어서 月田에 이르러서 成主事周英의 집을 방문하여 점심을 들고 梅竹軒成三問사당을 拜謁했다。黃친구와 작별하고 금수나루를 건너 十里를 가고 또 蓉浦十里 李生員英默의 집에 이르러 자다。

二十二日甲申 與主人 玩家垈 及前後山岡 陰宅所占處 懷仁南二十里 陰中地 陽中地 永堂酒店 蓉浦李英默家 午料 到三十里鳥致院 又五里燕岐薪洞 訪族人李種玉家 宿 問龍植氏家 則無后 仁植氏有孫種億 可以克家 種玉有子政烈 可謂出等人物 必有成就事業 可嘉

二十二日甲申 主人과 함께 家垈와 앞뒤의 山에 墓자리 정한곳을 구경하고 懷仁南쪽 二

十里에 陰中地 陽中地와 永堂酒店을 지나 蓉浦李英默의 집에서 午料하였다。三十里烏致院을 지나 五里燕岐薪洞에 이르러 일가 李種玉의 집을 방문하여 자면서 龍植氏집을 물어본즉 아들이 없다하고 仁植氏는 孫子種億이 있어서 잘되고 種玉은 아들 政烈이 있어서 人物이 월등하여 반드시 事業을 成就할 것이라고 하니 반가운 일이다。

二十三日乙酉 留宿

二十三日乙酉 머물러 자다。

二十四日丙戌 朝前 與政烈種億 玩洞後先山 及洞基 朝後發行 種玉俱錢一兩五錢 贐行作別 多情慇懃 到全義三十里午料 到天安四十里沈濟州 宿

二十四日丙戌 食前에 種億 政烈과 같이 동내뒤 先山과 洞基를 구경하고 朝飯後에 떠나는데 種玉씨가 노자 一兩五錢을 마련해 주면서 작별하니 은근한 情이 많았다。全義三十里에 이르러 午料하고 天安四十里 沈濟州댁에 이르러 자다。

二十五日丁亥 終日細雨 留宿

二十五日丁亥 終日 가랑비가 와서 자다。

二十六日戊子 到素沙店五十里午料 到振威前店崔姓人家 宿

二十六日戊子 素沙店五十里에 이르러 午料하고 振威前店 崔가의 집에 이르러 자다。

二十七日己丑 到水原三十里 午料 到果川葛山五十里 宿

二十七日己丑 水原三十里에 이르러 午料하고、果川葛山五十里에 이르러 자다。

二十八日庚寅 渡漢江 入南門內四十里午料 入漢洞 主宅太平

又午料酒食 與主台 同遊城北洞 句溪洞山亭 宿

二十八日庚寅에 漢江을 건너 南門안으로 들어가 四十里에서 午料하고、漢洞主人宅에 들리니 太平하여 또 午料와 酒食을 하다。主人台監과 함께 城北洞 句溪洞 등지를 유람하고 山亭에서 자다。

二十九日辛卯 午時 還漢洞

二十九日辛卯 점심때 漢洞으로 돌아왔다。

三十日壬辰 聞李炳華上京 使人探問 則不知所在處 入京留二十

餘日 玩長湍長巴洞 龍仁山曾里 楊州議政府

三十日壬辰 李炳華가 서울에 올라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시켜서 探問했으나 있는 곳을 알지 못했다。 서울에서 二十餘日간 머물면서 長湍 長巴里와 龍仁 山曾里와 楊州 議政府를 구경했다。

四月二十日壬子 午發程 渡銅雀灘 過果川 宿廣州沙近內五十里

四月二十日壬子 午時에 길을 떠나 銅雀나루를 건너 果川을 지나 廣州 沙近內까지 五十里길에 와서 자다。

二十一日癸丑 到水原烏山七十里 午料后 乘火車 到文義蓉浦一百七十里 宿李進士泰鉉家

二十一日癸丑 水原 烏山 七十里에서 午料했다。 火車(汽車)를 타고 文義 蓉浦 一百七十里에 이르러 李進士泰鉉의 집에서 자다。

二十二日甲寅 與李進士 玩拜千洞飛鳳歸巢形 萬代榮華地 則眞未料量 龍賤穴疑 知者何人

二十二日甲寅 李進士와 같이 拜千洞 飛鳳歸巢形의 萬代榮華地라는데를 구경하였는데 참으로 알 수 없었다。 龍도 못생겼고 穴도 의심스러워서 아는 분이 누구인지?

二十三日乙卯 發向淸州山東垈田 自蓉浦 與李英默同行 踰車逾峴外川酒幕 踰呂出이高介 到雲橋三十里午料 遇雨 晡時 冒雨到杏亭五里 申主事龍休家 宿

二十三日乙卯 淸州 山東 垈田으로 向해 나섰다。 蓉浦에서부터 李英默과 함께 걸어서 車逾峴外川酒幕을 넘고 여출이 고개를 넘어서 雲橋三十里에 이르러서 午料했다。 비를 만나서 저녁때 비를 맞으며 杏亭五里에 이르러 申主事 龍休의 집에서 자다。

二十四日丙辰 訪花山二里許 張判事錫運家 午料 向淸州山東逾먹유미峴 從水下 到甘棠里李源杓家酒會 過米院 到松亭金司果商佶家 三十里宿

二十四日丙辰 花山二里쯤에 張判事錫運의 집에서 午料하고 淸州山東을 向하여 먹유미고개를 넘어 물을 따라내려가서 甘棠里 李源杓의 집 酒會에 이르렀다。 米院을 지나 松亭 金司果 商佶의 집까지 三十里길에 이르러 자다。

二十五日丁巳 還過米院 下青石橋 到垈田盧氏家后 詳玩 又玩萬溪村 及松湖 玉湖 洪淳一家午料 還向米院 到三十里垈洞李老人壽永家 宿

二十五日丁巳 도로 米院을 지나 靑石다리로 내려와서 垈田 盧氏집뒤에 이르러서 자세히 구경하고 또 萬溪村 및 松湖 玉湖를 구경하고 洪淳一의 집에서 午料하고 米院으로 돌아서서 三十里 垈洞 李老人壽永씨의 집에 이르러 자다。

二十六日戊午 向飛鴻十里 踰新峴 下飛鴻李秉鉉家午料 與卞老舜佐 玩基址 夕食卞舜補家 宿于舜佐家

二十六日戊午 飛鴻十里를 向하여 新峴을 넘어 飛鴻으로 내려가 李秉鉉의 집에서 午料하고 卞老人舜佐와 같이 터를 구경하고 저녁은 卞舜補의 집에서 먹고 舜佐씨의 집에서 자다。

二十七日己未 過細橋 又楓井十里 淸州邑三十里 逢卞巡檢午料后 到十五里龍井閔泳會家基址 到十里八峰宋欽慕希仲家 宿食

玩其洞中 下二十里蓉浦 宿

二十七日己未 細橋와 楓井十里를 지나 淸州三十里에서 卞巡檢을 만나서 점심을 먹은후에 十五里 龍井의 閔泳會의 집터를 지나 十里의 八峰宋欽慕希仲의 집에서 宿食하면서 洞內를 구경하고 二十里蓉浦로 내려와 자다。

二十九日辛酉 向公州三巨里二十里林村 路上 有華麗舍廊 訪其主人卽任先生子舍 主事光宰 終日穩討 玩其基址 與加鶴洞內午料後 玩獨樂亭 徒涉錦江 宿 客主林聖信

二十九日辛酉 公州三巨里二十里의 林氏村으로 向하였다。길가에 화려한 舍廊이 있어 主人을 訪問하니 즉 任先生의 아드님 집이었다。主事 光宰와 終日 이야기 하고 집터와 加鶴洞內를 구경하고 午料後에 獨樂亭을 구경하고 錦江을 발벗고 건너 客主林聖信의 집에서 자다。

五月初一日壬戌 渡狗岩川東五里 訪金高山永珍 午料後 踰方東峴 遇雨添衣 下心方洞 入洪文三家 避雨 夕宿

五月初一日壬戌 狗岩川을 건너서 東쪽으로 五里쯤 金高山永珍을 방문하여 점심을 들은

뒤에 方東고개를 넘다 비를 만나 옷을 적시며 心方洞으로 내려와 洪文三의 집에 들어가서 비를 피하고 자다。

初二日癸亥 午霽 午料後 踰范越峴 入刷羽里 李命燮家 玩基又玩孔岩徐孤靑院基 訪吉方谷 金魯陽白樵家 宿

初二日癸亥 낮에 비가 개서 午料後에 范越고개를 넘어 刷羽里 李命燮의 집에 들어가서 터를 구경하고 또 孔岩 徐孤靑 書院터를 구경하고 吉方골 金魯陽白樵의 집을 訪問하여 자다。

初三日甲子 與白樵 玩下新沼 別後 玩元田上五里 李生酒店午料 到鳳林 則仁矩亦先一時來到 喜聞家信

初三日甲子 白樵와 같이 下新沼를 구경하고 작별후에 元田上五里를 구경하고 李가네 酒店에서 점심을 들고 鳳林洞에 이르니 仁矩(아드님)가 한시간 전에 와 있어서 반갑게 집 소식을 들었다。

初四日乙丑 留

初四日乙丑 쉬었다。

初五日丙寅 送仁矩于月下洞 與洪友同行 玩連山郡前 鐵鼎 周四十二指 深半丈 午料于連山邑 向南二十里茅村明章煥家 又午料后 到丹谷 遇雨 避雨于磨室 乘暮到笠洞朴農山家 留宿

初五日丙寅 仁矩를 月下洞으로 보내고 洪友와 同行하여 連山郡앞에 가마솥을 구경했는데 둘레가 四十二指(뼘)이고 깊이가 반길이었다。 連山邑에서 午料하고 南쪽으로 向하여 二十里 茅村 明章煥의 집에서 또 점심을 한뒤에 丹谷에 이르러 비를 만나 磨室에서 비를 피하고 해저물녘에 笠洞에 이르러 朴農山의 집에서 자다。

初六日丁卯 又雨留 與崔斯文固菴 相從遊

初六日丁卯 또 비가내림에 머물러서 崔斯文固菴과 놀다。

初七日戊辰 朝食于姜應律家 與洪友 玩東山里 道井里 仁川市道里坪 回于農山家午料 發行金梁鎭大汝同遊 作別 茅洞章煥家宿

初七日戊辰 아침을 姜應律의 집에서 들고 洪友와 같이 東山里 道井里 仁川市 道里坪등

을 구경하고 農山의 집에서 午料하고 떠나서 金梁鎭大汝와 같이 놀다가 작별하고 茅洞 章煥의 집에서 자다。

初八日己巳 發行 與洪友分道 踰細峴 到論山三十里午料 向扶餘大旺三十里 宿于柳斯文秉蔚學舍 與李斯文喆榮同宿 永夜談話世事 玩大旺山川 可謂爲名基

初八日己巳 떠나면서 洪友와 길을 달리해서 細峴을 넘어서 論山三十里에 이르러 午料하였다。扶餘大旺三十里를 向하여 柳斯文秉蔚씨의 書堂에서 잤는데 李斯文喆榮과 함께 자면서 밤이 오래도록 세래를 이야기 했다。大旺山川을 구경했는데 가히 名基라 이를만하였다。

初九日庚午 玩扶餘校村 與邑基 渡白江 玩李白江基址 午料 向窺岩 上水北亭金氏亭 亭臨江上 奇絶無等 下來 訪金羅州聖基家主人在京不來 到內里李固城海成家 主人出他 訪李長興章鎔家家己賣於李龍九 移居隣家 訪其主人 則老人迎接 乃是長興之父

親 李燦判載駿 字景進 號梅農 一面如舊 靈犀相通 留宿

初九日庚午 扶餘校村과 邑터를 구경하고 白馬江을 건너 李白江의 基址를 구경한후 午料하고、窺岩위에 水北亭(金氏亭)으로 갔는데 亭子가 江위에 있어서 奇絶함이 비할데 없었다。내려와서 金羅州聖基의 집을 訪問했더니 主人이 서울가서 않왔고 內里의 李固城海成의 집에 갔더니 主人이 出他하였고、李長興章鎔의 집을 訪問하였더니 집을 이미 李龍九에게 팔고 이웃집으로 이사해서 찾아갔더니 老人이 맞이하는데 이분이 長興의 父親 李燦判載駿이시니 字는 景進이요 號는 梅農인데 처음 만났으나 오랜 친구 같이 마음이 서로 상통하여 이곳에서 유숙하다。

初十日辛未 與主翁同行 玩盤山先墓 及朴尚毅 所店 玉兎望月形 回來 午料 又同行 玩十里村 杏岸基址 與所占處 還宿

初十日辛未 主人老人과 함께 盤山의 先塋과 朴尚毅가 잡은 玉兎望月形을 구경하고 돌아와서 점심요기하고 또 함께 十里의 杏岸基址와 잡아 놓은 터를 구경하고 돌아와 자다。

十一日壬申 因留休息

十一日壬申 머물러 쉬다。

十二日癸酉 與梅農同行 玩二十里境 看梅農親山 回于黃山金姓家午料 遇暴雨 雨後作別 到曲阜朴承旨家 則爲學校生徒大會 先生李叅奉相麟 主人朴主事東翻 出他 夕宿于朴東夔家 主人四兄弟名 夔 嵩 說 衡

十二日癸酉 梅農과 함께 二十里쯤되는 梅農의 親山을 보고 黃山으로 돌아와 金씨네 집에서 午料하는데 폭우를 만나 그친 뒤에 작별하고 曲阜의 朴承旨의 집에 이르니 學校學生을 위하여 大會가 있었다。 先生 李叅奉相麟과 主人 朴主事東翻은 出他하였다。 저녁에 朴東夔의 집에서 잤는데 主人四兄弟의 이름이 夔、嵩、說、衡이었다。

十三日甲戌 與主人兄弟說 玩局勢 回抱朝案雖奇絶 主峰軟弱欹側 且堂局崎嶇 所見不如所聞 即發向定山巷村 踰小峴 入坪村 兪叅奉鎭疇家 閔中隊泳訥 自京來留 飮酒談話 午料后 玩其基址 下砂雖弱 平原朝對 可爲卜居 然已爲兪氏世居 即發渡旺津 十五里 過旺津店 踰峴行十五里 公州三街里李老店 宿

十三日甲戌 主人兄弟와 집터를 보았는데 쌍임과 안산이 비록 기묘하나 主峯이 약하고 기우렸으며 또한 堂局이 험하여 보는게 듣기만 못하였다。 곧 定山 巷村으로 향하여 작은 고개를 넘어서 坪村 兪叅奉鎭奭의 집에 들어가니 関中隊泳訥이 서울에서 와 있어서 술마시며 談話했다。 점심요기하고 집터를 구경하니 안산이 비록 약하기는 하나 平原이 앞에 있어서 살만한 곳이었다。 그러나 이미 兪氏의 世居地가 되었다。 곧 떠나서 旺津을 건너서 旺津店十五里를 지나 고개를 넘어 十五里쯤 와서 公州 삼거리 李氏老人店에서 자다。

十四日乙亥 問宣德里 則已過三里 還下宣德林宅圭家 與宅圭玩其先山 午料后 到利仁十里 又踰兩小峴十里 宿盤松高哥店 宿

十四日乙亥 宣德里를 물으니 이미 三里를 지났다고하여 도로 宣德里林宅圭의 집으로 내려갔다。 宅圭와 같이 그의 先山을 구경하고 午料后에 利仁十里에 이르러 또 작은고개들을 넘어 十里 盤松 高가의 店에서 자다。

十五日丙子 到魯城佳谷二十里 訪豐壤趙璋夏家 休息留宿

十五日丙子 魯城佳谷二十里에 도착하여 豐壤趙璋夏의 집을 訪問하여 휴식하고 자다。

十六日丁丑 午料后 與璋夏玩其先山 登魯聖山元龍 作別 下柒

洞宗人李行仁家 宿

十六日丁丑 午料后 璋夏와 같이 그의 先山을 구경하고 魯聖山主龍에 올라가 작별하고 柒洞에 일가 李行仁의 집으로 내려와서 자다。

十七日戊寅 與行仁玩其洞壑先山 午料后 向大明洞十里 踰大峴(맨재)下佛岩 到鳳林洞 宿

十七日戊寅 行仁과 같이 그의 先山을 구경하고 午料後에 大明洞十里로 向하여 큰 고개(맨재)를 넘어 佛岩里로 내려와서 鳳林洞에 도착하여 자다。

十八日己卯 朝雨洒終日 困惱 休息

十八日己卯 아침비가 종일 계속함으로 피곤하여 쉬다。

十九日庚辰 崔正甫早來 朝后 相與談話 午料后 同行五里 飮酒相別 到豆溪 付京札文義札 此日十元貨 出給勻杓 夕宿于美林金進士永學家(子琮洙)

十九日庚辰 崔正甫가 일찍와서 朝飯后에 談話하고 午料后에 함께 五里를 가서 술마시

고 작별했다。 豆溪에 가서 서울과 文義편지를 부치다。 이날 十元을 勻杓에게 주다。 저녁에 美林 金進士永學(子琮 洙)의 집에서 자다。

二十日辛巳 朝后 玩其基址 到世室徐龜城午料 與龜城同行 玩黑石基址 還宿

二十日辛巳 朝飯后에 집터를 구경하고 世室 徐龜城宅에 이르러 午料하고 龜城과 同行하여 黑石里 基址를 구경하고 돌아와 자다。

二十一日壬午 龜城作伴徐庭圭 踰薪峴 到珍山鶴坪金生家午料 玩其從氏山 到十里多福洞後 玩其洞后山地 相別 踰峴 到撐坪酒店朴姓家 宿

二十一日壬午 徐龜城과 徐庭圭와 함께 薪峴을 넘어서 珍山 鶴坪 金生家에 이르러 점심을 들고 그의 從氏山所를 보았다。 十里의 多福洞에 이르러 동네뒤 산소를 구경하고、 작별한 후 고개를 넘어 撐坪酒店 朴가네 집에 이르러 자다。

二十二日癸未 踰小良峴 玩權都元帥大捷堂 行十里玩高霽峰殉

節碑 回向張斗翰張斗南兄弟家午料 留宿 是日夕 喜雨終夜 人心洽然

二十二日癸未 小良峴을 넘어서 權都元帥大捷堂을 구경한후 十里를 걸어서 高霽峰殉節碑를 구경했다。 돌아가서 張斗翰 張斗南 兄弟의 집에서 午料하고 머물러 잤는데 이날 저녁 반가운 비가 밤새도록 내려서 사람들이 기뻐했다。

二十三日甲申 到趙重峰從容堂書院 玩七百義塚 到十里桐谷劉議官秉斗家午料 到濟原李中寅家 玩基址 宿

二十三日甲申 趙重峰 從容堂書院에 이르러 七百義塚을 구경하다。 十里의 桐谷 劉議官秉斗의 집에 이르러 午料하고、 濟原에 李中寅의 집에 이르러 基址를 구경하고 유숙하다。

二十四日乙酉 到龍湖書堂 金通政榮基家午料 到十里不二洞吉民九家 玩百世清風碑 吉治隱遺墟碑 宿書堂 與金嘉義允弘 永夕談話

二十四日乙酉 龍湖書堂에 이르러 金通政榮基의 집에서 午料하고、 十里의 不二洞에 吉民

九의 집에 이르러 百世淸風碑와 吉冶隱遺墟碑를 구경하고 書堂에서 자면서 金嘉義 允弘과 밤새 오래도록 이야기 했다。

二十五日丙戌 與吉民九 吉應中同行 去十里平村飮酒 玩堡處 渡江玩新村堡處 及坪原田畓 午料后 飮酒作別 到機勿里 至十里明谷酒店 宿

二十五日丙戌 吉民九 吉應中과 함께 十里쯤의 平村에 가서 술을 마시고 堡를 구경하고 江을 건너서 新村의 堡와 들의 田畓을 구경하고 점심과 술을 마시고 작별한후 機勿里 十里쯤의 明谷酒店에 이르러 자다。

二十六日丁亥 曉雨 朝飯后 發向天乙里 踰文峙 下十里酒店午料 到宋斯文義文家 晡時 又灑雨宿

二十六日丁亥 날이 새면서 비가조금 내렸다。朝飯후에 天乙里로 향하여 文峙를 넘어서 十里쯤 내려가서 酒店에서 점심을 들고、宋斯文 義文씨집에 도착하였는데 申時 다시 비를 뿌려서 자다。

二十七日戊子 發向沃川邑張鑑家 則主人不來 邑中午料 北行踰

小峴十里 渡漠其津 又踰大峴十里 宿陽地洞朴永熙家

二十七日戊子 沃川邑 張鑢씨의 집으로 갔는데 主人이 오지 않아서 邑內에서 점심을 들었다。北쪽으로 조그마한 고개를 넘어서 十里쯤에서 漠其津을 건너고 또 큰고개를 넘어서 十里쯤에서 陽地洞 朴永熙씨의 집에서 자다。

二十八日己丑 到板藏洞金性默家午料後 適遇金士維 談話送去留宿

二十八日己丑 板藏洞 金性默씨의 집에 이르러서 점심을 마친뒤에 마침 金士維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떠난 뒤에 留宿하였다。

二十九日庚寅 到龍湖里士維家 午料留宿 夕雨

二十九日庚寅 龍湖里 士維의 집에 이르러 午料하고 유숙하는데 저녁때 비가 오다。

六月初一日辛卯 雨連日雨

六月初一日辛卯 비가 계속 오다。

初四日甲午 大雨

初四日甲午 큰비가 오다。

初六日丙申 大雨越浦

初六日丙申 큰비가 와서 물이 넘치다。

初七日丁酉 少晴

初七日丁酉 약간 개임。

初八日戊戌 雨晴 凡其間七八日 與士維同舍廊主人南議官龜桓遨遊談論消日 晡時 與士維 徃陽中地趙叅奉東雨家 玩基址 雖吉運 基則可用 主人沽酒款待 因論懷鎭名基 還宿龍湖

初八日戊戌 비가 그치다。그 사이 七、八일을 士維로 더불어 사랑 主人 南議官龜桓과 함께 談話하면서 날을 보냈다。申時에 士維와 같이 陽中地의 趙叅奉 東雨의 집을 찾아가서 집터를 구경하였는데 運이 좋고 터도 쓸만하였다。主人이 술을 받아와 후대를 받았다。懷德·鎭岑의 名基를 의논하고 龍湖里로 돌아와서 자다。

初九日己亥 發行 渡獅子灘 踰峴 過梧桐塔山 到沙峴店午料 到

道士里四十里宋斯文熙卿家 宿

初九日己亥 길을 나서 獅子灘을 건너고 고개를 넘어서 梧桐塔山을 지나서 沙峴店에 당도하여 午料하고 道士里 四十里의 宋斯文 熙卿의 집에 당도했다。

初十日庚子 即中伏 東風甚凉 陰陰細雨

初十日庚子 中伏날인데 東風이 심히 서늘하고 날이 침침하여 가는비가 내리다。

十一日辛丑 與宋寅健 其從宋寅星同行 歷瓦旨 至沙蘭 宋叅判炳大 宋直閣龍在 宋約齋炳華家 龍在家午料 到完田李圭煥家到無愁權進士景采駙采家十五里 宿

十一日辛丑 宋寅健과 그 從氏 宋寅星과 함께 瓦旨를 거쳐 沙蘭里 宋叅判炳大 宋直閣龍在 宋約齋炳華의 집에 이르러 龍在의 집에서 점심을 들고 完田里 李圭煥을 방문하고 無愁里 權進士景采 駙采의 집 十五里에서 자다。

十二日壬寅 約齋與龍在 諸從七八人 來到無愁洞山上通奇 即與駙采景采同行 盡日遊 玩朴氏責山處 午料後作別 向安坪 渡二

江 至槐外里 日暮 僅到佳水院 陳叅奉在舜家 宿

二十二日壬寅 約齋와 龍在 諸從氏 七、八人이 無愁洞山上으로 온다는 기별이 와서 바로 駙采와 景采와 함께 가서 종일 놀면서 朴씨가 팔은 山도 구경했다。 점심식사후에 作別하고 安坪으로 向했다。 江 둘을 건너서 槐外里에 당도하니 날이 저무러 겨우 佳水院 陳叅奉在舜의 집에 이르러서 자다。

十三日癸卯 入龍首徐都事丙胄家子貞贊 午料 終日陰雨

十三日癸卯 龍首 徐都事丙胄의 집으로 들어가서 午料했는데 종일 흐려 비가오다。

十四日甲辰 到雌牛岩洞午料 玩李氏臥牛形

十四日甲辰 雌牛岩洞에 이르러 午料하고 李氏의 臥牛形을 구경했다。

十五日乙巳 又玩烽火洞臥牛形 無可觀處 午料后作別 到刀磨橋 玩南進士家坐 夕宿下坪南進士家

十五日乙巳 또 烽火洞 臥牛形을 구경했는데 볼것이 없었다。 午料후에 작별하고 刀磨橋에 이르러 南進士의 집터를 구경하고 저녁에 下坪 南進士집에서 자다。

十六日丙午　訪坪里宋文達　沽酒款待午料　作別南進士　到果禮吊金錫奎　又問宋喪人在龍　玩大田市場　到道士里宋斯文家　宿

十六日丙午　坪里　宋文達을　訪問했더니　술을　사오고　점심을후대를　받았다。南進士와　작별하고　果禮에　이르러　金錫奎를　吊問하고　또한　宋喪主在龍을　문상했다。大田市場을　구경하고　道士里　宋斯文댁에서　자다。

十七日丁未　與主人玩三政洞　又玩雙清堂墓　歸來宿

十七日丁未　主人과　三政洞을　구경하고　또　雙清堂墓를　구경하고　돌아와　자다。

十八日戊申　與主人同行　到十里注山洞　玩宋墓所云　天掘處兩山　訪宋黃澗昌老家午料　到十里寬洞　玩山後　熙景歸家　夕宿宋齋裵家　夜與宋宗孫錫九子斗永　終夜談話

十八日戊申　主人(直閣宋龍在)과　同行하여　十里注山洞에　이르러　宋氏묘소와　동굴이　있는두　山을　구경했다。宋黃澗昌老의　집에서　午料하고　十里寬洞에　山을　구경한　후에　熙景이　돌아와서　저녁에　宋齋　裵가의　집에서　자다。밤에　宋氏　宗孫　錫九의　아들　斗永과　밤이새도록　이야기　했다。

十九日己酉 與斗永玩柳夫人墓 及其人祖妣山 山上作別 到文義佳灘十里 渡江 訪金高靈愙鎭家午料 宿

十九日己酉 斗永과 같이 柳氏夫人墓와 그 祖妣山所를 보고 山上에서 作別했다。 文義佳灘十里에 이르러 江을 건너 金高靈 愙鎭의 집을 訪問하여 午料하고 자다。

二十日庚戌 玩局內山川

二十日庚戌 局內山川을 구경했다。

二十一日辛亥 與主人進士佐漢 玩十里楡湖閔氏家垈 午料 還宿

二十一日辛亥 主人 進士佐漢과 十里의 楡湖(누룩구지)閔씨의 집터를 구경한후 午料하고 돌아와 자다。

二十二日壬子 休息

二十二日壬子 쉬다。

二十三日癸丑 又休息

二十三日癸丑 또 쉬다。

二十四日甲寅缺

二十四日甲寅

七月初九日己巳 午後 到懷仁新基 申議官鎭模家 宿

七月初九日己巳 午後 懷仁新基 申議官鎭模의 집에 이르러 자다

初十日庚午 到十里能岩 玩鄭先達家 遇雨 逾能岩後嶺 到忠店 趙進士應龜家 宿

初十日庚午 十里의 能岩에 이르러 鄭先達의 집을 구경하는데 비를 만나 能岩 뒤 고개를 넘어서 忠店 趙進士應龜의 집에 이르러 자다。

十一日辛未 即處暑也 幸晴 午前 自忠店到柿洞 昷齋卞鎔家 幸逢克齋魚斯文允績 終日酬酢 聞所居 則奉天省盛京 本溪湖蹇馬集干溝也 問其所居光景 則山川明麗 人物繁華 地名鳳凰山下

鳳凰城去百餘里也 是日 逢農谷居 池聾菴一源 梨木亭居 素堂金斯文濟煥 同宿

十一日辛未 處暑인데 다행히 날씨가 좋았다。午前에 忠店으로부터 柿洞 勗齋 卞鎔의 집에 이르러 다행히 克齋 魚斯文允績을 만나서 종일 酬酢하고 사는 곳을 물어보니 奉天省 市內 本溪湖寬馬集干溝라고했다。사는 곳 光景을 물어보았더니 山川이 수려하고 人口가 많으며 地名은 鳳凰山아래인데 鳳凰城이 百里쯤 된다고 한다。이날 農谷에 사는 池聾菴一源과 梨木亭에 사는 素堂金斯文濟煥을 만나서 함께 자다。

十二日壬申 別後 逾三日嶺 到懷仁塩屯 方主事家午料 夕至報恩宮坪金烝奉錫熙 主事文熙家 宿 聞其先外五代祖 即昌城公固城李氏也 其山在於文義旺墓洞山內 懷德周原派云云 甚可喜幸 將歸考譜牒

十二日壬申 작별한뒤에 三日嶺을 넘어서 懷仁 塩屯에 이르러 方主事의 집에서 午料하고 저녁때 報恩宮坪에 이르러 金烝奉錫熙 主事文熙의 집에서 자다 들으니 그 先外五代祖가 곧 昌城公으로 固城李氏인데 그 山所가 文義 王墓洞局內에 있으며 懷德周原派라고 하

여 매우 기뻤다。 돌아가 족보를 참고해 보아야 겠다。

十三日癸酉 與金主事 訪許書房家 飮酒 與某某友同行玩山 而水尺洞朴面長炳圭家午料 夕至十里栗星洞林仲會家 宿

十三日癸酉 金主事와 같이 許書房집을 찾아가 술을 마시고 몇몇 친구와 함께 山을 구경하고 水尺洞 朴面長炳圭의 집에서 午料하고 저녁때 十里의 栗星洞 林仲會의 집에서 자다。

十四日甲戌 踰山尺峴 行十五里吉串洞 趙鳳圭(子鏞閣)家午料 逾十里兩峴 過屯地黃村 到九良里安孝舜子弘遠子鍾健家 宿

十四日甲戌 山尺고개를 넘어 十五里를 가서 吉串洞 趙鳳圭(子鏞閣)의 집에서 午料하고 十里쯤 두고개를 넘어 屯地 黃村을 지나 九良里 安孝舜(子弘遠子鍾健)의 집에서 자다。

十五日乙亥 玩金積山下地形

十五日乙亥 金積山 아래를 구경했다。

十六日丙子 休息 午後 與成晩植號伯居諸友 川獵于江上

十六日丙子 휴식하고 午後에 成晩植號伯居의 여러 친구들과 江上에서 川獵을 하다。

十七日丁丑 向仙宜室 至二十里東大同里陸澄淵家午料 與陸老同玩局內 西踰峙 過栗里 踰峴 至龍首 又踰峴 至十五里畓洞李公老家 宿

十七日丁丑 仙宜室로 向하여 二十里동쪽 大同里 陸澄淵의 집에 이르러 午料하고、陸老人과 局內를 구경했다。西쪽고개를 넘어 栗里를 지나 고개를 넘어서 龍首에 이르렀다。또 고개를 넘어 十五里의 畓洞 李公老의 집에 이르러 유숙하다。

十八日戊寅 訪地境 卓寬齋 午還陰中地

十八日戊寅 地境터 卓寬齋를 방문하고 낮에 陰中地로 돌아오다。

十九日己卯 與士猷 到陽中趙叅奉家

十九日己卯 士猷와 같이 陽中地趙叅奉집으로 갔다。

二十日庚辰 向漁城 宋德用惠元家 午料 渡江玩舍音洞 漁夫洞 回還陽中

二十日庚辰 漁城으로 向하여 宋德用惠元의 집에서 午料한후 江을 건너 舍音洞 漁夫洞을 구경하고 陽中으로 돌아오다。

二十一日辛巳 與士維 南委員 同行 到長城宋議官學房 飮酒 宋省三家午料 訪宋喪人元禮飮酒 回向漁城 見宋義中 宋惠元家飮酒

二十一日辛巳 士維와 南委員과 같이 同行하여 長城에 宋議官書堂에 이르러 술을 마시고 宋省三의 집에서 午料했다。宋喪主 元禮를 訪問하여 술을 마시고 漁城으로 돌아와 宋義中과 宋惠元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二十二日壬午 與柳景明同行 到沃川芳湖景明家 玩洞壑 又玩飛龍望海宋哥塚 乘暮 還芳湖

二十二日壬午 柳景明과 同行하여 沃川芳湖에 景明의 집에 이르러 洞내를 구경하고 또 飛龍望海 宋가묘를 구경하고 날저물녘 芳湖로 돌아오다。

二十三日癸未 朝后細雨 午料后 與柳友 同還陽中地

二十三日癸未 아침식사후에 가랑비가 왔다。午料한 뒤에 柳씨친구와 같이 陽中地로 돌아오다。

二十四日甲申 雨陰夜大雨 至午后雨止

二十四日甲申 음침하게 비가 내리더니 밤에 큰비가 오고 午后에 이르러 비가 그치다。

二十五日乙酉 發向佳灘江外 午后至金高靈宅宿 與宋都事淳晦及主翁 永夜談論

二十五日乙酉 佳灘江外에 가다。午后 金高靈댁에 이르러 자면서 宋都事淳晦와 主人과 같이 밤이 오래도록 이야기하다。

二十六日丙戌 李仁發 相晤即別 去鎭岑后 與高靈父子 玩家后山地 即向榆湖 拜省旺墓洞 文僖公山所 渡江 至閔忞奉忠基家 金士猷來到此家 午料后相別 向星周院 到三政洞 玩閔氏山 到渼湖 訪車容謙子政均家宿 夜大雨

二十六日丙戌 李仁發과 만나자 작별하고 鎭岑 뒤로 가서 金高靈 父子와 같이 집뒤 산소

를 보고 바로 榆湖로 떠나서 王墓洞 文僖公 山所를 拜省하다。 江을 건너 閔忞奉忠基의 집에 이르니 金士猷가 이집에 와 있었다。 午料후에 작별하고 星周院으로 向하여 三政洞에 이르러 閔씨 山所를 구경하고、 渼湖에 이르러 車容謙 아들 政均의 집에서 잤는데 밤에 큰 비가 오다。

二十八日戊子 陰 午后 向沙日 鐵道渡問江 到後薄雲 逢黃友詳聞鄕信

二十八日戊子 흐림。 午后에 沙日로 向하다。 鐵道로 江을 건너 뒷 薄雲에 이르러서 黃氏친구를 만나서 집 소식을 자세히 들었다。

二十九日己丑 訪姜北青洪道 午后 訪儒城金雅不遇 訪星田金喪人午料

二十九日己丑 姜北青洪道를 방문했다。 午后에 儒城 金氏 젊은이를 訪問했으나 못만나고 星田 金喪主를 訪問하여 午料하다。

遯齋遺稿卷之三

附錄

遯齋李公學禧墓碣銘

余曾因崔岳母言　心知遯齋李公之爲韓季偉人　而言出家庭　疑其阿好　後從其重孫許　得覽遯齋逸稿者　雖寥寥單弓　文之典重　詩之雅爽　已足於徵公之爲公　且特其丙申日記一篇　起止未望　文不過六七葉　而時況之罔測　倭燄之不軌　一一臚擧　有若檮机之記垂　生長箕域　粗具理義者　讀此　將字字釀淚　句句砭骨　莫不扼腕樂赴於枕戈待旦之列也　則公之以筆鼓民　功亦不在當日衛王殉國諸氏下　此乃偉人所圖　可知崔言匪阿　而顧此無似之銘其阡　亦與有榮者　玆樂重孫請而述之　公諱學禧　字汝慶　遯齋　其號　景陵　乙巳十月七日　以敦寧都正廷馥　暨其繼配南陽洪氏之男　降于

朔州之鄉第 在都正 爲次子 而在洪氏 育居第一 先是 鄉氓 欽都正之德 謂有名胤 至是 公生而貌秀聲宏 左右以鄉言 爲有中及受書 過耳即解 經目即誦 弱冠讀遍四三 傍及百家 而心於小成 猶有不安 曾云 朔非民止 挈家而南 奠居嶠之豐基 奠已 遊京 穎錐脫囊 時宰 皆抑節與之交 且爭欲置其門 而交口譽薦 庚子 順陵叅奉 辛丑 惠民院叅書 所在稱職 牛刀將試 邦運一否 庚戌漸近 公 履霜知氷 乃豹隱湖之鷄龍山下鳳林洞 唯以札牘 論道議時於一世儒碩 若田艮齋 金炳菴 最其莫逆而兩翁 曾道公之高蹈曰 韓季偉人 噫 田金兩翁 精於時義 非苟譽人者 而於公稱有如此 文潞公明道之題 孰謂不稱於程伯淳之沒也歟 若其居家之孝友睦婣 在朝之侃侃誾誾 五世壇獻之據義撤去 文僖墓享之殫力措辦 于公 亦屬小節 貞石之短 不須細刻也 固城氏 鐵嶺

君璜 始著於譜 或謂隴西后 累世 文僖尊庇 大提學 入鮮 左相原 笙篁英陵 治致唐虞 累傳 署令滂 直舌忤旨 黜宰朔州 因致任以居 自玆距都正 世凡十四也 公以辛酉三月卄九日歿 初葬南星谷 甲子 改卜文義九龍卯坐 配凡二 西蜀明氏 生甲辰 卒丁卯青松崔氏 生己酉 卒辛巳 墓合祔 崔氏性好賑與 信手不較 生一男一女 實孿生 而男仁榘 女李栽基 孫男基福 基善 而崔岳母即基福之齊 有閫儀 李壻男 仁植 南植 文植 其餘曾玄 善業繼述 實有可記 而不記者 石短也 銘曰

材大用小 大我小天 在我者具 在天寧論

檀紀四三二一年戊辰三月 日

曾孫壻 月城 鄭東暉 謹述

내가 일찍이 丈母 崔氏의 말을 들어 遯齋 李公이 韓末의 偉人이었음을 알았으나 丈母의 말씀이 家庭的인 말이기 때문에 阿好(가까운 사람에게 아첨함)가 아닌가 의심하였더니 그 뒤 遯齋

公의 曾孫에게서 遯齋逸稿라는 책을 얻어 보니 비록 얼마 안되는 單卷의 册이나 글의 典重함과 詩의 雅淡함이 족히 公의 사람됨을 알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丙申日記 한편은 처음부터 끝까지의 기간이 보름이 못되고 글 또한 六七張에 불과하지만 그때 형편의 罔測함과 왜놈 氣勢의 음흉함을 하나 하나 列擧해 마치 檮机(史記)의 책과 같으니 箕域(朝鮮)에서 태어나 義理를 多少아는 사람이라면 이 글을 읽음에 글자 글자마다 눈물이 맺히고 귀절 귀절마다 뼈를 깎는듯 하여 팔뚝을 걷어 메고 枕戈待旦(義兵으로 일어남)의 마당으로 달려가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公이 붓끝으로 당시 百姓들의 사기를 진작시킨 功이 당시 임금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 몸바친 여러분보다 못할 것이 없으니 이 점이 바로 偉人이 한 일로 丈母 崔氏의 말씀이 阿好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못생긴 내가 이러한 분의 墓銘을 짓는 것은 榮光된 일이기에 이에 公의 曾孫의 請文에 기꺼이 글을 쓰노라。 公의 이름은 學禧 字는 汝慶이요 遯齋는 별호로 景陵(憲宗) 乙巳 十月 七日에 敦寧都正인 廷馥과 그 분의 繼配인 南陽洪氏의 아들로 朔州 시골집에서 태어나니 都正(廷馥)에게는 次子가 되고 洪氏에게는 큰 아들이 되는 셈이다。 얼마전부터 이웃 사람들이 都正의 德을 欽慕한 나머지 『반드시 이름날 아들을 둘 것이라』말하더니 이때에 이르러 公이 태어남에 용모가 청수하고 음성이 우렁차니 주위 사람들이 『전에 이웃 사람들이 한 말이 들어 맞았다』고 말하였다。 글을 배움에 당하여 귀로 들으면 바로 알고 눈에 스치면 바로 외울 정도여서 이십이 못되어 四書三經을 모두 읽고 百家까지도 통하였으나 마음은 小成(작은 성공)에 편안치 않았다。 일찍이 말하기를 『朔州는 백성들이 살 곳이 아니다』하여 식

구를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와 경상도 豐基 땅에 자리를 잡았다。 이사가 끝남에 서울로 올라가 穎錐(흘륭한 材質을 말함)가 주머니에서 나오니 당시의 재상들이 모두 위치를 자세치 않고 더불어 벗하며 또 앞다투어 자기의 門客으로 삼고저 하였다。 서로 서로 칭찬하고 추천해 庚子에 順陵叅奉 辛丑에 惠民院의 叅書를 역임하게 되니 있는 곳에 따라 職分을 충실히 이행하여 牛刀(흘륭한 能力)를 앞으로 써보게 되었더니 국가의 운수가 한번 비색해짐에 庚戌의 國耻가 점점 가까워졌다。 이에 公은 서리를 밟고 얼음을 알듯이 세상에서 물러나 충청도 鷄龍山 아래 鳳林洞에 숨어 오직 書札로 당시의 儒碩들과 聖道를 論하고 時事를 상의하였다。 田艮齋(田愚) 金炳菴(金駿榮) 등은 公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는데 두분이 일찌기 公의 고상한 행실을 가리켜 『韓末의 偉人이다』하니 아! 田艮齋 金炳菴 등 두분은 時義에 몹시 밝아 남을 아무렇게나 칭찬하는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公에 대한 칭찬이 이같으니 文潞公(文彦博 宋人)이 쓴 明道의 名題를 누가 程伯淳(程灝 宋儒)에게 맞지 않는다고 말하겠는가? 집안에서의 孝友睦婣과 朝中에서의 侃侃闇闇과 五世의 壇享을 義에 의하여 撤去함과 文僖公의 墓祀에 힘을 다하여 措辦함 같은 것은 公에게는 小節에 속하는 일로서 짧은 빗돌에 구태여 다 기록할 필요가 없다。 固城李氏는 鐵嶺君 璜이 처음으로 족보에 드러났는데 或者는 隴西의 后孫이라고 말한다。 여러 代 내려와 文僖公 尊庇는 大提學이었고 조선조에 들어와 左相 原은 英陵(世宗)을 도와 唐虞의 정치를 이루었다。 여러대 내려와 署令 滂은 곧은 말을 하다가 임금의 뜻을 거슬려 朔州郡守로 쫓겨나 그곳에서 임기를 채우고 인하여 사니 바로 都正(廷馥)의 十四代祖이다。 公이 辛未 三月 二十九日에 돌아가 처음에는 南星谷에

안장하였더니 甲子年에 文義 九龍村 卯坐로 이장하였다。 부인은 두분이니 西蜀明氏는 甲辰에 태어나 丁卯에 돌아갔으며 靑松崔氏는 己酉에 태어나 辛巳에 돌아갔는데 두분 모두 公과 합장하였다。 崔夫人의 성품이 남 구제함을 좋아해 남을 줌에 손맞는대로 주고 계교치를 않았다。 一男一女를 낳으니 사실은 쌍둥이로 아들은 仁榘이고 딸은 李栽基에게 출가하였다。 손자는 基福 基善인데 丈母 崔氏는 바로 基福의 아내로 여자의 범절이 있었다。 李堉의 아들은 仁植、南植、文植이다。 그나머지 증손 현손은 조상의 유업을 잘 繼述해 기록할만한 것이 있으나 기록치 않는 것은 빈돌이 작기 때문이다。 銘에 이르노니

『재목은 큰데 세상에 쓰임은 작으니、큰 재목은 나한테 있지만 작은 쓰임은 하늘에 달려 있도다。 나한테 있는 재목이 갖추어졌으니 하늘에 달려 있는 쓰임을 어찌 말하랴』

題遯齋遺稿後

遯齋李公 特立獨行之士也 公以魁偉之姿 生詩禮故家 漸漬者深 充養者厚 一副肝腸 爲鐵爲石 百閱艱險 確乎不拔 終焉 天柱摧 地維絶 而公亦老白首矣 無所於歸 自嶠南 遯居湖右之鷄龍山中 顔居齋曰遯 徧訪先賢遺躅 及當世宿德 消遣餘日 攷諸逸稿 可知其槩矣 豈不誠 特立獨行之士歟 顧今閉塞之會 風氣益變 無

往非盲進冥馗 東顚西沛 脂韋之是痼 羽毛之是倫 如公特立獨行之士 復何處得覩耶 只切慨恨也已

壬戌暮春節

恩津 宋悌永 敬題

題遯齋遺稿後

遯齋 李公은 特立獨行之士①이다。

公은 魁偉(壯大)한 자품으로 詩禮의 故家에서 태어나 庭訓을 받음이 깊고 修養을 쌓음이 두터웁더니 한덩이의 肝腸(心性)이 쇠와 돌과 같아 백번 괴롭고 험난함을 당할지라도 확연하여 흔들리지 않았다。

마침내 하늘을 받치는 기둥이 꺾어지고 땅을 얽어 받드는 밧줄이 끊어지듯 祖國의 社稷이 망하기에 이르고 公 또한 늙은 白首로써 돌아갈 곳이 없자 嶠南(慶尙道)으로부터 湖右(忠淸道)의 鷄龍山中으로 자취를 숨겨 지내면서 거처하는 집을 遯齋라 이름하였다。 이로부터 先賢의 遺蹟 및 당세의 學德 갖춘 분들을 두루 찾아 餘年을 보냈으니 逸稿를 상고하여 보면 그 대략을 가히 알 것인바、 어찌 진실로 特立獨行之士라 이르지 않겠는가?

돌이켜 보건대 지금 닫히고 막힌 時期에 風氣가 더욱 변하여 장님이 어두운 아홉거리에 나아가 동쪽으로 자빠지고 서쪽으로 넘어지며 時俗에 아첨하여 세상과 함께 浮沉하는 것이 痼疾이 되고 날으는 새와 달아나는 짐승처럼 無禮하고 추잡한 사람으로 더불어 무리를 짖지 않음이 없는데 公과 같은 特立獨行之士를 다시 어느 곳에서 볼 수 있겠는가?

다만 한탄하고 원망할 따름이다。

壬戌(一九八二) 暮春節(三月)에

恩津 宋悌永 삼가 지음

① 特立獨行之士 : 자기 스스로 믿는 바를 지켜 世俗 밖에 홀로 우뚝 서서 初志를 貫徹한 선비。

慕菴李公 仁榘 墓碣銘

慕菴李公 即世之卅七年戊辰 其孫三昆季 並力揭德 責不佞 銘其所揭者 誼不固於辭 謹按 公諱仁榘 字 敬循 慕菴 其號也 在麗 諱璜 封君鐵嶺 是爲李之鼻祖 鐵嶺 即今之固城也 厥後 世其名碩 至文僖公尊庇 門緖遂大嫡焉 墓 今在文義 累傳 杏村品謚文貞 筆宗一世 入鮮 容軒原 相英廟 選清白 四傳 署令滂 孝陵乙巳 言事忤旨 黜守寧塞 樂其山水 致任因居 若劉巨敷之爲而昆裔大昌 遂推署令爲北祖 北祖之十有四世 都正廷馥 十有五世 叅書學禧 號遯齋 胥宇于嶠之豐基 寔爲公祖若父 延安明氏 青松崔氏 妣有二 而崔氏擧公 高宗庚寅窮月之晦 貌魁碩 性重

厚 喜怒 不於色 戲俚 不於口 稍長 擧止殊凡兒 言無浮實 行不宿諾 傑然有遠到像 舞勺 擇師 輕累百里 抵天安之金谷 立臼翁門外雪 翁晩其至 朝勉夕勵 所受是極 而行益修 學益進 鍾翁之愛 登其胤甥館 丁巳 處仁于鷄龍之陽 斁徒嚴課 尤致謹於王覇人獸之別 德譽四馳 戶屨恒滿 事親怡愉 志物無或偏 晨昏侍遯齋側 評事批物 孝慈互盡 人謂父子間知己 丁憂 三日不水醬 柴毁骨立 送終凡什 不爲天下儉 從晦翁寒泉故事 廬墓傍 盡其期性於施與 仁撫九族 素乎寒蹇 自奉蔬糲 而奉先則 殫誠於文義修譜則 主務於庚辰 報賜 又特於倫 自啓足 至刻稿 罔事不竭力及閱墻之起 匪嶺匪湖 獨完鏤役 人謂孔門七十子 不足過也 且於南祠忠院 贊劃虔奉 泮館之變 黜及宋賢 鬻土上洛 鳴鼓謀復而因拘未遂 仍得憤冤壹鬱之疾 竟以生世六十三年之壬辰三月卄

六日 皐復 葬南星谷乾原 實公守制處 而甲子 谷入邦用 移窆于文義九龍里子原 配潭陽田氏 晦九女 即臼翁孫女而 古稱生于匠石之園者 早從乃翁讀小學書 言無疾 色無遽 明於踐禮 精於持身 生丁亥卒戊辰 墓祔 育二男 基福 基善 長房男女 各三 男錫羲 錫煥 錫健出 女爲鄭東暉 孫炳權 韓大洙妻 次房系男錫健 女爲鄭瑍薰妻 曾玄不記 噫 公於天畀 有近仁之木訥 就正 得及時之化雨 浴德敬義 內外交致 澡身繩墨 足目幷高 軒軒然霞擧而不群 朗朗乎山行而無滯 此可騰諸口碑 不壞千秋者 且況紀碑屹然 照耀人耳目 今何溢美 招人阿好之誚哉 仍銘曰

內賢父外嚴師 一猶難兩兼之 奚原明獨成器 紫陽氏在於斯 載善行樹人規

檀紀四三二一年戊辰三月 日

孫壻 月城鄭東暉 謹撰

慕菴 李公이 돌아간지 三十七年만에 손자 三兄弟가 힘을 합하여 碑를 세움에 나에게 글을 부탁하니 정의에 굴이 사양할 수 없어 삼가 글을 쓰노라。公의 이름은 仁榘 字는 敬循이요、慕菴은 別號이다。고려때에 璜이 鐵嶺君에 봉하니 이 분이 固城李氏의 시조인데 鐵嶺은 곧 지금의 固城이다。그뒤 대대로 훌륭한 분이 있어 文僖公 尊庇에 이르러 門戶가 크게 赫赫하였는데 그 묘소가 지금 文義에 있고 杏村 滈은 글씨로 당세에 으뜸이었으며 朝鮮朝에 들어와 原은 世宗때의 宰相으로 淸白吏에 뽑혔고 四代 내려와 署令 滂은 仁宗 乙巳에 國事를 말하다가 임금의 뜻을 거슬려 寧塞을 出守하다가 임기가 끝남에 그곳에 머물러 살아 후손이 크게 번창하니 후손들이 드디어 署令(滂)을 建威將軍인 鄭曄과 같다하여 北祖(入北한 先祖)라 불렀다。北祖(滂)의 十四代孫이 都正인 廷馥이고 十五代孫이 叅書인 遯齋 學禧니 이분들이 公의 祖와 父가 되며 어머니는 西蜀明氏 靑松崔氏 두분인데 崔氏가 高宗 庚寅 三月 三十日에 公을 낳았다。용모가 碩大하고 성품이 重厚해 기쁘고 슬픔을 얼굴에 나타내지 않고 희롱과 속된 말을 입에 내지 않으며 자람에 행동이 보통아이와 달라 거짓말과 거짓 행동이 없어 우뚝하게 遠到(훌륭한 사람이 됨)의 기상이 있었다。十五歲가 됨에 스승을 찾아 수백리나 되는 天安 金谷에 이르러 白翁(良齋의 一號)의 문인이 되니 翁은 公의 옴을 오히려 늦다 생각하고 아침 저녁으로 힘써 가르쳤다。公은 이에 가르침을 힘껏 받아 행동이 더욱 닦이고 배움이 더욱 앞으로 나가 翁의 사랑을 받아 마침내 翁의 아들의 사위가 되었다。丁巳에 雞龍山 남쪽으로 이사와 아이들을 교육함에 學課를 엄격히 하고

더욱 王覇와 人獸의 나눔에 삼가하니 명성이 사방에 알려져 손님이 항상 자리에 가득하였다。 부모를 섬김에 怡愉롭게 하고 志物 어느것 하나 빼놓치 않으며 아침 저녁으로 아버지 遯齋를 모시고 古今의 事物을 평론함에 孝慈가 서로 극진하니 남들이 가리켜 父子間의 知己(친한 친구)라고 말하였다。 부모상을 당함에 三日 동안을 水醬을 끊어 몸이 뼈만 남을 정도로 말랐고 初終의 모든 것을 마음껏 마련하였으며 晦翁(朱子)의 寒泉故事(廬墓)를 따라 부모 산소 옆에 여막(廬幕)을 치고 그곳에서 三年을 마쳤다。 성품이 남에게 주기를 좋아해 仁으로 九族을 어루만지고 고생을 달게 생각해 本人의 지냄은 蔬糲를 보통으로 알았다。 先祖를 받듦에 文義에 文僖公 산소에 성의를 다하고 族譜를 편수함에 庚辰譜의 主務를 맡았다。 스승을 섬기는 정성이 보통에 뛰어나 啓足(先生의 돌아감)에서 刻稿(文集을 板刻함)에 이르기까지 어느일 하나에도 정성을 다하지 않은 것이 없었고 嶺湖의 是非가 일어남에 公은 嶺派에도 湖派에도 가담치 않고 홀로 板刻의 일을 마치니 남들이 『孔門의 七十子도 公보다 지나 갈 수 없다』고 말하였다。 또 南澗祠와 忠賢書院의 虔奉을 맡아 도왔고 成均館에서 宋朝 五賢을 黜享함에 이르러 公은 토지를 팔아 서울로 올라가 罪人을 성토하고 宋朝五賢의 復享을 꾀하다가 구애됨이 있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憤世壹鬱의 병만을 얻어 끝내 六十三歲되던 壬辰 三月 二十六日에 돌아가 鷄龍山 남쪽 南星谷 乾坐에 안장하니 그곳은 公이 일찌기 侍墓하던 곳이다。 甲子에 南星谷을 국가에서 사용함으로 因하여 文義 九龍里 子坐로 移葬하였다。 부인은 潭陽田氏 晦九의 딸로 할아버지인 艮齋에게 小學을 배워 여자의 범절이 갖추어져 평생에 굽한 말 굽한 태도가 없었으며 喪祭에 익숙하고 모든 일

에 정결하였다。 丁亥에 태어나고 戊辰에 돌아가 公의 墓에 합장하였다。 二男을 두니 基福 基善이다。 長房(基福)에서 三男三女를 두니 아들은 錫羲 錫煥 錫健인데 錫健은 양자 갔고 딸은 鄭東暉 孫炳權 韓大洙의 아내가 되었으며 次房(基善)의 양아들은 錫健이고 딸은 鄭瑆薰의 아내가 되었으며 증손은 현손은 기록치 않는다。 아! 公이 하늘에서 얻은 것은 近仁한 木訥의 자품이었고 스승에게 배운 것은 及時의 化雨를 얻어 敬義로 德을 닦음에 內外가 똑같고 繩墨으로 몸을 다스림에 足目이 함께 높아 우뚝하게 뛰어나 무리에 섞이지 않고 깨끗하게 움직여 어느 한곳에 막히지 않았다。 이 점이 가히 남의 口碑(입으로 칭찬함)에 올라 千秋에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또 더군다나 紀蹟碑가 우뚝하게 세워져 많은 사람의 耳目에 빛나니 이제 무슨 지나친 말을 써서 阿好의 꾸짖음을 부르겠는가? 인하여 銘에 이르노니

『안으로는 어진 아버지가 있고 밖으로는 엄한 스승이 있으니 이중에 하나도 어려운 것인데 公은 두가지를 모두 兼하였도다。 어찌 原明(呂希哲의 字)만이 홀로 그릇을 이루었던가? 紫陽氏(朱子를 가리킴)가 오늘에 있다면 이 善行을 기재해 인간의 규범을 세우리……』

慕菴李公實蹟碑

湖之西 鷄龍山南石溪之里 即慕菴李公廬墓講學之所也 公歿三十有一年壬戌 諸門人及諸孫 欲表章公孝學 合謀竪碑 丐余語

顧今天下之學 只知有 清 蔡美林 曰 藤德花之論 功利是尚 不知天典之何物 遺君後親之徒 接迹於世 人道化爲夷狄禽獸矣 然則今日此擧 儘重陰之一寸陽光也歟 遂不以蕪拙辭 謹按狀 公諱仁榘 字敬循 貫固城 麗朝 大提學 諡文僖 諱尊庇 鐵城府院君 諡文貞 杏村 諱嵒 大提學 諡文敬 平齋 諱岡 國朝 左議政 諡襄憲 容軒 諱原 其上世顯祖也 祖 敦寧都正 諱廷馥 考 叅書 遯齋 諱學禧 贈淑夫人延安明氏 永奎女 淑夫人 青松崔氏 允哲女 其妣也 崔夫人 生公于 高宗庚寅三月三十日 形容端正 才氣凝重 幼有屹然大人志也 年舞勺 隨遯齋公 贊謁艮齋先生 聞聖學眞詮 朝朝暮暮 矻矻孳孳 磨礱浸灌 一動一靜 循蹈繩墨 志苟定雖刀鉅鼎鑊 莫之敢奪 艮翁 以長房女妻之 居家事親 暫不離側 談論古今治亂 王伯儒釋之辨 盈虛消長 進退行藏之幾 融融和

氣發露於問答之間丁外內憂啜粥廬墓拜跪處草爲之不生服闋猶日必展省哭之甚哀同門熹泉成先生取大舜終身慕之義扁楣慕菴作記而贈之其見重師友類此也艮翁歿心喪三年巨帙文集獨自板刻成剞劂之功嚴於尊攘勇於衛闢強此艱彼教子孫門人不擇智愚一以扶綱常辨義利爲主使不迷趨向豈非明斯理行斯道不失聖學之眞詮者耶宜乎諸門人及諸孫之久而不忘表之章之也夫噫學者學爲人而爲人之道明倫是也蓋自無極二五之眞精妙合而生萬物人得其秀而爲心未發也五性具焉已發也七情出焉見諸行事則爲愛親敬兄忠君悌長之道此所謂天敍之典而人之所以最靈於萬物者也故學者之曰無極曰二五曰心曰性皆將欲明斯理而行斯道而已苟非然者雖理窮玄奧論極幽微不過鸚鵡焉猩猩焉奚足以有補於人道哉若以公

孝學 得志斯世 其有補於人道 不但止於一家一鄕 而運值陽九
滅影窮山 蘊未克施 可恨也已 然高情逸想 與晋之陶靖節 宋之
謝文節 尚友千古則 亦奚恨乎公之不遇也哉 公之歿 壬辰三月卄
六日 壽六十三 葬在石溪里先兆右枕乾原 從治命也 配潭陽田氏
考晦九 子基福 基善 曰錫羲 錫煥 錫健 其孫也 銘曰
學雖本於天之道 學又爲達道之本 孝雖本於性之仁 孝又爲行仁
之本 凡後之君子 必以公爲軌範 而務其本

壬戌之冬十月下澣 德殷 宋悌永 謹撰

檀紀四千三百十六年癸亥三月 日

事一楔員一同 謹竪

湖의 西쪽이요 鷄龍山 남쪽 石溪里는 곧 慕菴李公이 廬墓하고 講學하던 곳이다。 公이 歿하신지 三十一年 壬戌에 門人과 諸孫들이 公의 孝行과 學問을 나타내고자 碑를 세울 것을 꾀하면서 나에게 글을 청하였다。 돌아보건데 오늘날 天下의 學者들이 다만 淸의 蔡

美林과 日의 藤德花의 論만 있는 것으로 알아 功利만을 숭상하고 天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임금을 버리고 부모를 뒤로 하는 무리들이 世上에 가득하여 사람의 道理가 야만과 짐승이 되었다。 그러한 즉 오늘날 이 일이 참으로 칠흙같은 밤에 한점의 빛이라 할것이다。 그러므로 송씨 없다 사양치 못하고 삼가 狀文을 살펴보니 公의 諱는 仁榘요 字는 敬循이니 本貫은 固城으로 高麗朝에 大提學 諡文僖 諱尊庇와 鐵城府院君 諡文貞 號杏村 諱嵒과 大提學 諡文敬 號平齋 諱岡과 李朝에 左議政 諡襄憲 號容軒 諱原은 윗대의 드러난 祖上이다。 祖는 敦寧府都正 諱廷馥이요 考는 叅書官 號遯齋 諱學禧이며 贈淑夫人延安明氏 永奎의 女와 淑夫人靑松崔氏 允哲의 女는 어머님이시다。 崔夫人이 高宗 庚寅三月三十日에 公을 낳으니 용모 단정하고 재질이 훌륭하여 어려서부터 大人의 뜻이 있었다。 十五세에 遯齋를 따라 艮齋先生을 뵈옵고 聖人의 學問의 참뜻을 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갈고 닦아 一動一靜을 규범에 맞게 하였으니 뜻을 한번 정하면 어떠한 위협도 막지 못하였다。 艮翁이 長孫女壻를 삼았다。 집에서 父母님을 섬김에는 잠시도 옆을 떠나지 않았으며 古今의 治亂과 王伯과 儒釋의 분변과 盈虛와 消長과 進退와 行藏의 기미를 談論함에 화한 기운이 問答하는 가운데 드러났다。 父母님의 喪을 당하여 죽을 마시며 墓밑에 살면서 哭하고 절하던 곳에 풀이 나지 않았으며 三喪을 마친 후에도 날마다 墓所를 살피고 哭하기를 심히하니 同門의 慮泉成先生이 옛날 舜임금이 終身토록 父母님을 사모했다는 고사를 取하여 慕菴으로 號를 쓰고 記文을 지어 주었으니 그 師友間에 돈보임이 이와 같았다。 艮翁께서 歿하시후 心喪三年하였고 巨帙文集을 혼자의 힘으로 板刻하여 竣

功保存하는 한편 中華를 숭상하고 夷狄을 배척하는데 嚴하였으며 聖學을 護衛하고 邪敎를 물리치는데 용감하여 이쪽을 강하게 저쪽을 약하게 하였다。 子孫과 門人을 가르침에 智愚를 가리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綱常을 扶持하고 義와 利를 분별함에 힘써서 세상 살아가는데 혼미하지 않도록 하였으니 어찌 이 이치를 밝히고 이 道理를 行하여 聖學의 참뜻을 잃지 않도록 한 분이 아니겠는가?

門人과 子孫들이 오래도록 잊지 못하여 드러내려 함이 마땅하도다。

아! 배움이라 함은 사람됨을 배움이요 사람되는 道理는 五倫을 밝히는 것이다。

대개 無極의 眞과 陰陽의 精이 妙合하여 萬物이 生成하는데 사람이 그 중 우수한 것을 타고나 心理가 되었는데 發現되지 않았을 때에는 仁義禮智信 五性이 갖추어 있고 이미 發現되어서는 喜怒哀懼愛惡欲 七情이 나타나서 行事에 나타난다。 즉 父母를 사랑하고 兄을 공경하며 임금에게 충성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도리이니 이것이 이른바 하늘이 내리신 法典이요 사람이 萬物보다 가장 영특하다는 것이다。 그럼으로 學者가 말하는 無極이니 陰陽이니 心이니 性이니 하는 것은 모두 이 理致를 밝혀서 이 도리를 行하고자 하는 것이다。 진실로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玄妙한 이치와 치밀한 論理라도 앵무새와 원숭이보다 나을 것이 없는 것이니 사람이 할 도리에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만일 公의 孝와 學問이 이 세상에 뜻을 얻게 되면 人道에 도움을 끼침이 一家一鄕에 그치지 않았을 것인데 時運이 없어 窮山에서 세상을 마치어 포부를 펴지 못하였으니 恨스럽도다。 그러나 높은 정취와 초월한 사상은 晋나라의 陶靖節과 宋나라의 謝文節로 더불

어 千古에 벗이 될 것이니 公의 때를 못만난 것을 어찌 恨할 것이 있으랴。公이 壬辰 三月二十六日에 돌아가시니 壽가 六十三으로 墓는 石溪里 先考墓右便 乾原에 있었는데 뒤에 文義 九龍里로 옮기었다。配는 潭陽田氏니 그 考는 晦九이다。子는 基福과 基善이요 錫羲 錫煥 錫健은 그 孫子이다。銘에 이르노니、

學問이 비록 하늘 道에 근본하였으나 學問이 또한 道를 通하는 근본이 되고、
孝行이 비록 天性의 仁에 근본하였으나 孝行이 또한 仁을 行하는 근본이 되나니、
무릇 뒷세상 君子들은 반드시 公으로 모범을 삼아 그 근본을 힘쓸지어다。

壬戌年 겨울 十月 下旬에

恩津 宋悌永은 삼가 지음

慕菴記

孝者 百行之源 人若有立於此 餘無可問而知其爲善人也 慕菴李君仁榘敬循甫 是其人乎 天性孝友質直 早從我艮齋先生學 洽聞義理之正 而志苟一定 雖刀鉅鼎鑊 莫可奪也 居家事親 生養死祭 極盡其誠 及當母夫人喪 既葬而虞 叫扣莫逮 廬于墓下 朝夕哀痛 三年如一日 拜跪成臼 草爲之不生 涕淚著樹 風爲之悲鳴 行路之人 指點嗟歎曰 孰非人子 奚獨如此 余取終身慕之義 表

廬以慕菴矣 居然之頃 君旣歿 而祔葬于此先塋右側 亦從其志也
胤哀春 値此風雨晦冥 干戈搶攘 大懼先蹟之泯沒 曳衰勤訪 求
此菴記 蓋人之一生一死 命數使然 誰能免此 豈意強壯者 先我
謝世 使此奄奄者 永抱踽凉之歎也耶 悲夫悲夫 然抑又思之 擧
多草亡木卒 死而無聞 君則能行孝而有聞 將王者作 而以孝爲治
則 有司擧而告之 必旌其閭 而爲世道勸矣 且胤哀 繼述志事 能
荷其析薪 詩所謂孝子不匱 永錫爾類者歟 究其要則 質直爲其根
蒂 有此成立 而仍作世傳之規範也

憩泉 成璣運 記

효도는 모든 행실의 근원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일 이를 세우게 되면 나머지는 물어볼 것 없이 착한사람인 것을 알 수 있으니 모암 이군 인주 경우이 곧 그분이다。 천성이 효우하고 정직하더니 일찍이 간재선생에게 글을 배워 의리의 바름을 흡족히 들어서 뜻이 한번 확정되면 비록 두려운 위협이라도 막지 못하였다。 집에서 부모를 모심에 살아 봉양할 제나 돌아가 제사할제 정성을 다하였으며 어머님상을 당하여 장사와 우제를 마치고 애통

망극하여 묘밑에 여막하고 조석으로 애통하기를 삼년동안 한결같아 절하던 자리에 풀이 나지 못하고 눈물이 나무에 묻어 바람이 슬피우니 지나는 사람이 가리키며 탄식해 말하되 어느 누가 남의 자식이 아니리오마는 어찌 홀로 저다지도 지극한가 하였다。 내가 『평생토록 부모를 사모했다』는 고전의 뜻을 취하여 그 여막을 모암이라 표하였다。 어느덧 그대가 이미 돌아가 선영의 오른쪽에 묻혔으니 또한 본인의 뜻을 좇은 것이다。 맏자제 春이 어지러운 세상에 전쟁이 연속되는 때를 당하여 先人의 행적이 없어질까 심히 염려하고 상중에 나를 방문하여 모암의 기문을 청하였다。 대개 모든 사람이 한번 태어나 한번 죽는 것은 하늘의 명령이니 누가 감히 모면하리오만은 뜻밖에 건강하던 분이 나보다 먼저 세상을 하직하여 이 목숨만 붙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방황하며 한을 품게하는가? 아!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이 초목처럼 말라 죽어 소문이 없으나 그대는 능히 효도를 행하여 소문이 있으니 앞으로 王者가 일어나 효도로써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관리가 나라에 알려 그 마을에 정표하여 세인을 위하여 권면할 것이고 또한 맏자제가 뜻과 사업을 잘 이어서 기록할 것이니 『詩에 이르되 孝子가 끊기지 않아 길이길이 그 자손에게 내릴 것이라』는 말과 같을 것이다。 그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면 사람됨이 정직한 것이 바탕이 되어 이같은 효행을 이루어 후세에 전할만한 모범이 된 것이다。

檢校門下侍中固城君諡安靖李公祭壇碑銘 並序

孔子 叙武王周公之孝 仍及祭祀之禮 而曰事死如事生 事亡如事

存 此古今上下貴賤之一也 然三代之制 官師以上 祭於廟 庶人祭於寢 是爲禮之本經矣 周禮所謂 冢人墓祭之說 蓋先王所以許人情之所不忍者 而秦漢以來 遂盛行之 馬醫夏畦之鬼 無不受子孫之追養 不亦風俗之厚者乎 由是 有宋程張朱諸賢 皆以爲無害於義理 或自行之 又或爲之儀式 垂訓後世 則士大夫家 毋敢忽焉者矣 以此推之則 代遠失墓之祖 亦可追祭 故近世 多有設壇行之者 而於禮無據 然 孔子 亦嘗許無廟者 向墓遙爲壇以祭 有墓且然 況失墓乎 湖西之尼連間 故家鐵城李氏 有察乎此 爲說其先祖安靖公 壇於其世阡五佳洞艮坐之原 並其夫人而歲祀之 今將立石紀蹟於壇側 後孫種玉種德 奉其家狀 訪余于大田寓舍 責玄晏之事 辭不獲已 謹按狀檃括 又參之史乘 撰次爲文 曰鐵城李氏之自中州隴西 出爲東國鉅姓者 遠而高麗世則 壁上三韓

三重大匡翊祚功臣鐵城府院君 諡文僖公 諱尊庇 門下侍中 判兵曹事 鐵城君 諡文憲公 諱瑀 都僉議侍中 鐵城府院君 諡文貞公杏村先生 諱嵒 三世最著焉 文貞公 娶三韓國夫人洪氏 右代言判密直司事 諱承緒之女 以忠肅王十三年丙寅 生公于開京 諱崇字崇之 生而穎悟絶人 又有食牛氣 博覽經史 傍治司馬法 早登武擧 恭愍王六年丁酉 以泥城萬戶 陞爲朔州分道將軍 尋又陞龜州兵馬使 以備胡 八年己亥 與中郎將柳塘 討毛賊於龍灣 大破之 追至靜州 又破之 十年辛丑 紅巾賊 寇義州 以門下評理從我太祖 擊走之 十三年甲辰 奸臣崔濡等 以元兵犯境 聲言廢王 立前忠宣王子德興君 從都巡慰使崔瑩 擊之 逐出塞外而還王嘉之 賜厩馬 翌年乙巳 陞西北體覈使 兼安北大都護府使 特賜奮忠定遠功臣 兼同知藝文館事 又未幾 進階御史大夫 爲同知

經筵事 仍擢爲檢校門下侍中 恭讓王時 私田爲弊 女壻趙浚 欲改田制 每與牧隱李穡 前侍中李琳 大將軍曺敏修 相持 恐清議有敗 公與鄭圃隱 居兩間 依違不決 遂喻之曰 田制不可不革 急之則邦本撓矣 民力疲矣 及我太祖龍興 壯其勳勞 愛其才藝 特拜檢校侍中 三年甲戌十二月十五日 以病卒 享年六十九 訃聞 謚曰安靖 自官辦備葬事 夫人清州李氏 祔焉 夫人 尚書西原伯珽之女 男女八人 而男長岷 大司成 次嶙 司宰監 次峙 府使 季延壽 牧使 長女壻 崔安璿 知州事 次 崔有慶 叅贊 謚平度公次即浚 領議政 謚文忠 季金祉 奉禮郎 孫曾以下 多不盡錄 嗚呼 公之勳業 若彼其燀赫 且其官庇之葬 則宜永世無恙 而不幸爲兵燹亂民之所毁傷 石獸金盌 亦不知落在何處 故 疑天之報公者 何其厄也 今見其子孫 復爲蕃衍 圖公香火不絶 則益信其天

之有定也　或曰同一天也　何爲而厄也　何爲而定也　余曰剝而復大易之理也　方其剝也　萬物皆消　方其復也　萬物皆生　然其種之無仁者　必朽敗自盡　惟有仁者然後　能復生　吾於公之香火既絶而復續者　知公種之有仁矣　或又曰　公之墳塋　雖無傳　其譜牒　既載在某原則　今此之壇　就其近處爲設　無乃可乎　余曰不然　人之神於天下　無往不在　若水之於地中　故　眉山蘇氏　既有鑿井得泉之譬　且退溪先生　嘗言　誠之所在　爲神之所臨　今公後孫之誠　既如此則　公之神　豈其不臨假也哉　就無徵處　欲爲有徵　還爲區矣　或人唯唯而退　並記問答之說　繼之以銘曰

文武兩藝　萃公一身　出爲將帥　入爲儒臣　勘亂輔政　護國安民　聖祖龍興　先降絲綸　及其捐館　恩命荐臻　官庇葬事　應具麒麟　滄桑屢易　兵亂頻頻　毁傷曷故　可問水濱　雲仍復盛　設壇精禋　又欲紀

蹟 竪此貞珉

李仁榘 撰

安靖李公 祭壇碑銘

孔子께서 武王과 周公의 孝行을 叙述하시고 인하여 祭祀의 禮를 행함에 이르러 말씀하시기를 「죽은 사람 섬기기를 산 사람 섬김과 같이 하고 없을 때 섬기기를 있을 때 섬김과 같이 하라」하셨는데 이는 古今、上下、貴賤을 물론하고 한가지이다。그러나 三代의 制度는 官吏와 스승 이상은 廟宇에서 祭祀를 받들고 庶人은 正寢에서 祭祀를 받들었으니 이는 禮를 행하는 근본 법이다。

周禮에 家人①이 墓祭를 지낸다는 說은 대개 先王께서 人情으로 차마 행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허락하신바 秦나라 漢나라 이래로 드디어 盛行하여 馬醫나 農夫로 죽은 귀신까지도 자손의 追養②을 받지 않음이 없었으니 또한 風俗의 두터운 것이 아니겠는가?

이로 말미암아 宋나라 때 程子、張子、朱子 등 여러 賢人들이 모두 義理에 해로움이 없게 생각하고 혹은 스스로 행하고 또는 혹 儀式으로 만들어 후세에 가르침으로써 士大夫家에서 감히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것이다。이로 미루어 생각컨대 代가 멀어 묘소를 실전한 祖上 또한 가히 追祭할 수 있으므로 近世에 壇을 설치하여 祭祀를 행하는 자가 많기에 이르렀다。이것이 禮에 근거는 없으나 그러나 孔子께서도 또한 일찌기 祠堂 없는 자에게도 허락하시어 묘소를 향하여 멀리서 壇을 쌓아 祭祀를 받들었던바 묘소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그러하였거늘 하물며 묘소를 실전한 경우인데야!

湖西(忠淸道)의 尼山 連山 사이에 故家인 鐵城李氏 家門에서 앞서 말을 고찰하여 그 先祖 安靖公의 壇을 그 世阡인 五佳洞 艮坐의 언덕에 설치하고 그 夫人도 아울러 歲一祀를 행하고 있다。 이제 壇 곁에 빗돌을 세워 그 事蹟을 기록하고자 后孫 種玉과 種德이 그 家狀을 모시고 大田 寓舍로 나를 찾아와 그 사실을 글로 써 줄 것을 부탁하니 끝내 사양치 못하고 삼가 家狀을 살펴 간추리고 또 史乘을 참고하여 글을 짓는다。

鐵城李氏는 中國 隴西로부터 나와 東國의 巨姓이 되었으니 멀리 高麗 때에 壁上三韓三重大匡 翊祚功臣 鐵城府院君 諡文僖公 諱 尊庇와 門下侍中 判兵曹事 鐵城君 諡文憲公 諱 瑀와 都僉議侍中 鐵城府院君 諡文貞公 杏村先生 諱 嵒、三世가 가장 드러나셨다。

文貞公께서 三韓國夫人 洪氏 右代言 判密直司事 諱 承緖의 女에게 장가 들어 忠肅王 十三年 丙寅(一三二六)에 開京(開城)에서 公을 출생하시었다。

公의 諱는 崇이요、字는 崇之인데 태어나면서부터 총명함이 남보다 뛰어나고 또한 소라도 삼킬만한 氣槪가 있더니 經傳과 史紀를 널리 보고 아울러 武術을 익히어 일찌기 武科에 급제하였다。

恭愍王 六年 丁酉(一三五七)에 泥城萬戶로써 朔州分道將軍에 승진하였더니 곧바로 또 龜州兵馬使에 승진하여 北方 오랑캐들을 방비하였다。

八年 己亥(一三五九)에 中郎將 柳塘으로 더불어 龍灣에 주둔하고 있던 毛賊을 쳐서 大破하고 靜州까지 추격 또한 크게 무찔렀다。十年 辛丑(一三六一)에 紅巾賊이 義州를 침범하자 門下評理로써 우리 太祖(李成桂)와 함께 물리쳐 퇴각시키었다。

十三年甲辰(一三六四)에 奸臣 崔濡 등이 元兵의 國境 침범을 이유로 들어 王을 廢位하고 前忠宣王의 아들 德興君을 옹립할 것을 公言하여 밝히었다。 이때 都巡慰使 崔瑩과 함께 그를 무찔러 변방으로 쫓아 버리고 돌아오니 왕이 아름답게 칭찬하고 말 한필을 下賜하였다。

이듬해 乙巳(一三六五)에 西北體覈使 兼安北大都護府使에 승진되고 아울러 奮忠定遠功臣 兼同知藝文館事에 特賜를 무릅썼다。 또 얼마 안되어 御史大夫에 進階되어 同知經筵事가 되었더니 이어 檢校門下侍中이 되었다。

恭讓王 때 私田③에 폐단이 있어 女壻 趙浚이 田制를 개혁하고자 함에 이르러 매양 牧隱 李穡、前侍中 李琳、大將軍 曺敏修로 더불어 相持④함으로써 淸議⑤가 깨질까 두려웠었다。 公이 鄭圃隱(鄭夢周)으로 더불어 양쪽 사이에 들어 조정하려다가 依違⑥를 결단할 수 없으므로 公이 깨우쳐 이르기를 「田制는 마땅히 改革해야 하나 급히 할진대 邦本(國基)이 흔들리고 民力이 피폐해진다」하였다。

朝鮮 太祖가 王位에 오름에 이르러 公의 勳勞를 장히 여기고 또한 그 才藝를 상량하여 특별히 檢校侍中에 임명하였다。

甲戌(一三九四) 十二月十五日에 病으로 卒하니 享年 六十九세였다。

訃音이 들림에 安靖으로 諡號를 내리고 官府로부터 儀物을 마련하여 葬事를 치루고 夫人 淸州李氏를 祔葬하였다。

夫人 李氏는 尙書 西原伯 珽의 女로 男女 八人을 두었다。

男에 맞이 岷은 大司成이요、둘째 嶙은 司宰監이요、셋째 峙는 府使요、막내 延壽는 牧使이며、女壻에 맞이 崔安璿은 知州事요、둘째 崔有慶은 叅贊으로 諡平度公이요 셋째는 곧 趙浚이니 領議政으로 諡文忠公이요 막내 金祉는 奉禮郎이다。孫과 曾孫 이하는 많아서 다 기록하지 못한다。

아아! 公의 勳業이 저 같이 찬란하고 또 官庇⑦로 葬事를 치루었으니 마땅히 永世토록 아무 탈이 없을 것인데 불행히도 兵燹(戰亂)에 亂民의 毁傷한바 되어 묘소에 있던 石物 등이 또한 없어져 어느 곳에 있는 줄 알지 못하기에 이르렀다。때문에 하늘이 公에게 보답하는 것이 어찌 그토록 困厄스러운지 의심스러웠는데 이제 그 자손이 다시 번성하여 公의 香火를 그치지 않게끔 도모함을 보니 그 하늘의 정함이 있음을 더욱 믿겠도다。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하늘은 한가지인데 어찌하여 厄運이 되고 어찌하여 安定이 되는 것인가?」하였다。

내가 이르기를「剝(亂)하고 復(治)함은 大易(周易)의 理致로써 그 剝에 이르러서는 萬物이 모두 消滅하고 그 復함에 이르러서는 萬物이 모두 生成하는 것이다。그래서 그 種子가 仁함이 없는 것은 반드시 썩어 스스로 없어지고 오직 仁함이 있는 후에 능히 다시 生成하는바 내가 公의 香火가 이미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지는 것을 보고 公의 種子가 仁함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하였다。

어떤 사람이 또 이르기를「公의 墳塋(墓所)이 비록 전함이 없으나 그 譜牒에 이미 某山某原이라 실려 있으니 금번 이 壇을 그 근처에 나아가 설치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하

였다。

내가 이르기를 「그렇지 않다。 사람의 神靈은 天下에 어디든 가지 않음이 없어 물이 땅 속에 있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眉山蘇氏(老泉 蘇洵)는 이미 샘을 파서 물을 얻는다는 비유를 하였고、 또 退溪先生(李滉)은 일찌기 誠意가 있는 곳에 神靈이 임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이제 公의 후손들의 誠意가 이미 이 같으니 公의 神靈이 어찌 이 곳에 임하지 않겠는가? 증험 없는 곳에 나아가 증험이 있게 하고자 함은 도리혀 구차하게 되는 것이다」하니 그 사람이 「예예」 공손히 대답하고 물러났다。 함께 묻고 대답한 말을 모두 기록하고 이어 銘辭를 지어 이르노라。

文武의 두 재주、 公의 一身에 모였거니、 나가선 將帥요 들어와선 儒臣이셨도다。
난리 평정 政事 보필 護國安民하시니、 太祖께서 開國하사 맨먼저 絲綸⑧을 내렸도다。
公이 세상을 버림에 恩命이 거듭 내려、 官庇로 葬事했으니 응당 훌륭히 갖추었으리。
滄桑⑨이 자주 바뀌고 兵亂이 빈번했거니、 毁傷은 무슨 까닭인가? 물가에 물을지어다。
후손이 번성하여 設壇 享祀하면서、 사적을 기록하여 이 碑를 세우도다。

① 冢人 : 公共의 墓를 관리하는 사람。 곧 공동묘지 관리인。
② 追養 : 追後 奉養의 준말、 곧 지나간 뒤에 받들거나 돌아가신 뒤에 祭祀 지냄을 이른말。
③ 私田 : 개인 소유의 田地、 곧 科田、 功臣田、 別賜田 등 官僚、 貴族、 功臣들에게 갈라준 땅。
④ 相持 : 서로 사양하지 않고 자기의 고집만을 내세움。
⑤ 淸議 : 고상하고 올바른 의논。 바른 公論。
⑥ 依違 : 依는 의지하고 좇음을 뜻하고 違는 어기고 떠난다는 뜻으로 무슨 일을 결정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모양。 분명치 않음。

⑦ 官庇 : 官廳의 庇護, 곧 관청의 도움。

⑧ 絲綸 : 詔勅。 임금의 말씀이 실과 같이 가늘어도 신하는 몸에 차는 官印의 끈과 같이 중하게 마음 속에 간직한다는 뜻。 즉 임금의 말씀。

⑨ 滄桑 : 滄海가 桑田이 되고 桑田이 滄海가 되듯이 세상의 변화가 無常함을 이름。

固城李氏庚辰族譜序

天生萬物 惟人 最貴者 以有靈覺也 有靈覺 故 能追本 而敦族雖然 苟無文獻之可紀則 限耳目所及以外 只矇矇然無所攷據 此孔聖 發杞宋之歎也 今吾宗 追惟本源 太上無徵 文獻之可據 僅及數十代而止 繼是不講則 懼夫愈久而復泯 歲戊寅冬 各省諸宗咸是之憂 齊發修譜之論 同聲相應 同氣相力 族孫尙遊甫 另出巨金而助 越二周星霜 功告訖 其規模節目 遵往例 參時宜 有所損益 誠吾宗之一部惇史 而可徵於來後 噫 顧今寰宇滄桑 彝倫日下 虞廷之五敎 周家之三物 尤末由聞焉 世渾渾然 幾乎無分

是譜也 上自祖先 以及宗族 脉胳相連 氣血流通 由是而推究焉則 其於親親之道 敦睦之義 有足以講而明之 古人所謂 孝悌之心 油然而出者 豈欺我哉 於是乎 父父 子子 以及兄弟夫婦之道 自此而行焉 則其於挽回世敎 亦不可不謂之一助也 凡我諸宗 盍勗勉哉

歲庚辰南至日

後孫 仁榘 謹題

固城李氏庚辰年族譜序

하늘이 萬物을 生成했는데 사람이 가장 귀한것은 靈覺①이 있기 때문이다。 靈覺이 있기 때문에 능히 祖上을 추모하고 일가간에 친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文獻의 기록이 없게되면 귀와 눈으로 보는데에 그쳐서 그외에는 캄캄해서 근거할 곳이 없는것이다。 그러므로 孔子가 杞나라와 宋나라를 탄식한 것이다。 이제 우리 李氏도 근본을 생각해보면 윗대는 증거가 없다。 文獻의 증거는 겨우 수십대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이어 밝히지 아니하면 오래되어 다시 없어질까 염려되기 때문에 무인년(단기四二七一年 서기一九三八年) 겨울에 각처 일가분들이 모두 이것을 걱정해서 족보를 하자는 여론이 일제히 나와서 같은 소리가 메아리 치고 같은 기운이 서로 협력하였다。 族孫 尙遊씨가 거금을 내어서 협조하였다。 二年이 지

나서 완성하였는데 그 규모와 차례는 지난 例를 따르고 시의를 참작하여 가감하였으니 참으로 우리 집안의 진실한 역사가 되어서 장래의 증거가 될만하다。 도리켜 볼때 세상이 변해서 人倫이 날로 땅에 떨어져 虞②나라의 五敎와 周③나라의 三物④을 들을데가 없어서 어지러워 분간이 없게 되었다。 이 족보가 위로는 祖上으로 부터 일가에 이르기 까지 맥이 이어지고 피가 통해서 이로부터 추구해 나가면 친할이를 친하는 도리와 화목을 돈실하게하는 뜻을 강의하여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옛분들이 말하기를 족보를 보면 효제의 마음이 저절로 우러난다고 한말이 어찌 사람을 속이랴。 이리하여 아비가 아비노릇하고 자식이 자식노릇하여 兄弟와 夫婦간의 도리가 이것으로부터 행하여진다면 좋은 세상으로 되 돌리는데 一助가 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모든 일가들이 어찌 서로 힘쓰지 않으랴。

庚辰년 동지일에

후손 인주 삼가씀。

① 靈覺 : 영혼의 깨달음。

② 虞나라 : 中國古代 舜임금의 나라이름。

③ 周나라 : 中國古代 文王의 나라이름。

④ 三物 : 三物은 三事와 같음。

첫째는 六德이니 智와 仁과 聖과 義와 忠과 和요、 둘째는 六行이니 孝와 友와 睦(일가간)과 婣(외척간)과 任(친구간신의)과 恤(이웃간구빈)이요、 셋째는 六藝니 禮와 樂과 射와 御와 書와 數이다。

固城李氏思菴公派譜序

蓋根深而枝蕃　流長而派分　理之昭然　不待辨以明者也　惟我固城之李　貫源久矣　子姓之繁衍　如碁星之布列　或處畿甸　或在嶺湖　蔚然以盛　而吾派之遐居關西　始於署令府君之遷謫寧塞　雲仍漸蕃　遂成巨族　然　世益遠而親愈疎　若非一統以譜　則無以明所由生所由分　將不免於塗人相視　此吾宗之所共憂歎　而今　吾譜之所以成者也　況吾宗派譜　作於　英廟丁亥　已爲百七十有五年之久　而蠹魚灰燼　存者無幾　間或有數回之續修　然　未免偏私　且多舛錯　每欲詳據會通　而末由及焉　何幸　今者　八域齊論大同修譜　迺訏裝登程　不憚險易　遍踏關塞　收合單錄　族祖允植　族孫裕岦　參據諸籍　正其訛舛　補其闕略　吾宗文獻　可謂述備　而物力相助　族姪尚遊　另出巨金焉　譜既成　遂簡出　府君脚下派錄三卷　幷以

首編 合爲二冊 俾傳各家 爲省費而便於考覽 其序次節目之比前異例 因時從約也 噫 吾先 肇自麗代 赫赫名碩綿聯 國朝 爲世望族 一自遐遷 寥寥無聞 心常恨盡 然 裔孫之散處列邑者 指數萬千 抑亦府君 見機積累之效也歟 凡我同譜諸宗 胥講敦睦 以體一視之義 克念克修 用光先德 是所顒祝 至若 玆書之 嗣而新之 續而勿替 爲後來者責 不必贅說焉

歲重光大荒落清暑節

署令公十七世孫 基福 謹書于大田寓舍

固城李氏思菴公派譜序

대개 뿌리가 깊으면 가지가 번성하고 물흐름이 길면 물결이 나뉘는 것은 이치가 소연하여 말을 기다릴 것 없이 분명한 것이다。

우리 固城李氏가 本貫이 오래되어 子孫이 번성하여 바둑이나 별처럼 나열되어 혹은 경기지방에 살고 혹은 嶺湖南에 살면서 번성하였다。 우리派가 멀리 關西에서 살기는 署令府君께서 寧塞으로 左遷되면서 시작하여 子孫이 점점 번성하면서 드디어 巨族을 이루었

다。 그러나 代가 멀어지면서 親分이 더욱 소원해져서 만일 하나로 엮어 譜冊을 아니하면 어디서 생겼는지 어디서 나누어졌는지를 알 수 없어 길가는 사람을 보듯함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점이 우리 일가들이 함께 걱정되어 이제 派譜가 이루어진 것이다。 하물며 우리의 지난派譜가 英廟丁亥年에 되어 이미 百七十五年의 세월이 가서 좀이먹고 타서 없어져 남은 것이 거의 없고 그간 數回에 修譜를 했으나 편벽되고 잘못되어서 항상 자세한 증거에 의거하여 만들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던中에 이제 다행히 八道에서 大同譜를 하자고 議論이 돌아 이에 짐을 싸서 길을 떠나 어려움을 무릅쓰고 關塞(平安北道)을 두루 다니면서 收單을 하였다。 族祖允植과 族孫裕岦이 여러 書籍을 증거로 잘못을 고치고 부족한 점을 보충하여 우리의 文獻이 모두 갖추어졌고 물질적으로 도아준 분은 族姪尙遊가 특별히 巨金을 내었다。 大同譜가 다된뒤에 署令府君의 子孫세권冊에다 首編을 더하여 두권을 만들어서 각기 보관토록 하였으니 경비도 덜들고 참고하기 쉽게 하였다。 그 차서와 절목은 옛날보다 다르게 하였으니 時宜에 따라 줄였다。

아! 우리 조상이 麗朝부터 혁혁한 名人이 國朝까지 이어져서 세상에 선망하는 族閥이 되었었다。 한번 멀리 左遷됨으로서 적막하게 들림이 없어 항상 한스러웠으나 子孫들이 各邑에 흩어져 사는이 萬千으로 세게 되었으니 署令府君께서 그미를 보시고 떠나시어 積德을 하신 효험이 아니겠는가? 우리 族譜를 함께한 一家는 敦睦을 서로 講究하여 하나로 보는 조상의 마음을 본받아서 조상을 생각하고 몸을 닦아 先祖의 德을 빛나게 하기를 바라고 빌 뿐이요、 이 譜冊을 이어 새롭게하고 계속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것은 뒤에오는

子孫들의 責任이니 굳이 군소리를 하지 않겠다。

辛巳年淸暑節에 署令公十七世孫 基福은 大田寓舍에서 쓰다

固城李氏思菴公派譜序

夫修譜之義 在於序其昭穆 明其宗支 俾同族同譜之覽者 興其紹述之孝思 而守其敦睦之嘉風 其有助於人之爲人 家之爲家者 豈不重且大歟 惟我鐵城之李 根自隴西 東來鰈域 而鐵嶺君諱璜 崛起麗季 奕然啓貫 爾後 若文僖 文憲 文貞 文敬之巍名高德 容軒思菴之偉業賁宦 前焉後焉 世世不乏 其紹述之思 敦睦之風 不待有譜 而自有其興 自有其守矣 逮鮮中葉 而族漸茂 世漸遠也 文光公靑坡翁 特慮其興之或斷於漸茂 且懼其守之或失於漸遠 手撰八寸圖 啓其修譜之嚆矢 樹其敦宗之良規 是豈無事之杞憂 且況鰈域 文運大闢 而有姓有族者 無甲無乙 莫不有譜 奚獨於吾鐵城氏 而晏然無事於此也 於是乎 吾李之譜 式遵文光良

規 前修後續 至于今日者 曰丙午 曰癸酉 曰丁卯 曰甲戌 曰乙卯 曰庚辰 曰丙辰 事凡七擧 克不失其良規之樹 嗚乎幸哉 而奈何挽近 東之禮義 被壞西潮 曩日承裕 無地可尋 且尤族巨勢大者 麗不止萬 全譜不易 而兼以修譜無用之言 講睦不緊之論 竟至於同族可婚之議 如竹筍之發於雨後者然 怪何極也 嘆何深也 戊寅之臘 以派祖思菴之昆裔 有憂於時況之岌嶪者 京鄉若干氏團合一席 咸歎人心之不古曰 縱云無用而譜不可不修 縱云不緊而睦不可不講 立構諭文 輪告諸族 不日而纂 不時而梓 而一帙三册 頁近三千 寔吾思菴脚下創有之派譜 而其講睦之苦心 則根乎文光之手圖八寸 其述裕之赤忱 則法乎曩世之七度續修 唯願其同譜者 宜將此册 而尊閣床頭 朝披暮閱 使今日講睦之意 不歸於潢潦之朝滿夕除 顒望顒望 若其編次之或舛 字句之或誤 覽

者 倘恕以掃塵之役之不易 則是爲細幸 而背不無愧汗之浹也耳

檀君紀元四三三二年己卯春三月 日

思菴公二十一世孫 錫煥 謹序

무릇 族譜를 만드는 義는 昭穆을 순서대로 기록하고 宗支를 밝혀 同族으로서 同譜한 사람들로 하여금 譜를 볼때 紹述의 孝思를 갖도록 하고 敦睦의 嘉風을 지키도록 함에 있으니 族譜가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하고 가정이 가정답게 유지됨에 도움을 줌이 어찌 重大하지 않겠는가?

우리 固城李氏는 中國의 隴西에서 시작되어 동쪽 鰈域(朝鮮)으로 온뒤 鐵嶺君 璜께서 고려말에 우뚝하게 뛰어나 화려하게 本貫을 열었고 그 뒤 文僖公尊庇 文憲公瑀 文貞公嵒 文敬公岡의 높은 名聲 높은 德業과 容軒原 思菴墀의 큰 勳業 높은 벼슬이 앞과 뒤로 계속해 끊기지 않아 앞에서 말한 紹述의 孝思와 敦睦의 嘉風이 族譜 만드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도 스스로 孝思의 갖음이 있고 스스로 嘉風의 지킴이 있었더니 조선조 中葉에 이르러 族이 점점 번성해지고 世가 점점 멀어짐에 文光公靑坡翁께서 특별히 孝思의 간직함이 혹 氏族이 점점 번성하는 사이에서 끊어질까 염려하고 또 敦睦의 지킴이 혹 世代가 점점 멀어지는 사이에서 잃을까 두려워하여 손수 八寸圖를 만들어 우리 李氏의 修譜의 嚆矢가 되어 일가를 敦睦하는 良規를 세우시니 이것이 어찌 부질 없는 杞憂이겠는가? 또 하물며 鰈域의 文運이 크게 열려 姓이 있고 氏族이 있는 이는 甲과 乙의 구분이 없이 族譜가

있지 않는 氏族이 없으니 어찌 홀로 우리 固城李氏만 晏然히 이 修譜가 없겠는가? 이에 우리 李氏의 修譜가 文光公(靑坡)이 세운 良規를 따라 앞사람이 만들고 뒷사람이 이어 오늘에 이르는 동안 丙午譜 癸酉譜 丁卯譜 甲戌譜 乙卯譜 庚辰譜 丙辰譜 등등 무릇 七次의 譜事를 하여 능히 文光公이 세운 良規를 잃치 않으니 아! 多幸한 일이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근래에 와서 동양의 禮義가 서양의 風潮에 파괴되어 지난 날의 承先과 裕後를 찾을 곳이 없게 되었고 또 더군다나 族勢가 巨大한 氏族은 그 數가 萬이 넘어 全体的인 族譜를 하기가 쉽지 않고 修譜가 無用하다는 言과 講睦이 不緊하다는 論이 兼해 생겨 마침내 같은 氏族끼리 혼인 할수 있다는 議가 雨後竹筍 같이 일어남에 이르니 무슨 怪物이 이보다 더하며 어느 恨嘆이 이 보다 깊겠는가? 戊寅 十二월에 思菴公을 派祖로 한 후손으로서 위태한 時況을 근심하는 京鄕의 若干氏가 한자리에 모여 함께 人心이 옛날 같지 않음을 탄식하며 『아무리 無用하다 해도 譜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아무리 不緊하다 해도 睦을 講하지 않을 수 없다』말하며 곧바로 通文을 만들어 諸族에게 널리 알려 不日에 편찬하고 不時에 인쇄했는데 한 질이 三冊으로 頁數가 三千에 가까우니 이것은 우리 思菴公 脚下에서 처음 있는 派譜로서 그 講睦의 苦心은 文光公이 손수 八寸圖를 만들은 것에 뿌리 했고 그 述裕의 赤忱은 지난 날 七次의 修譜를 법 받은 것이다。 願하노니 이번 派譜를 같이 한 사람들은 마땅히 이 책을 받들어 책상 위에 놓고 아침 저녁에 펴보아 오늘날 講睦한 뜻으로 하여금 아침에 가득하고 저녁에 주는 장마물 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編次가 혹 잘못되고 字句가 혹 그릇된 것은 책을 보는 사람들이 掃塵之役의 쉽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용서해 주면 細幸이 되겠지만 背에는 愧汗의 흐름이 없지 않다。

遯齋遺稿跋

此 吾曾王考 遯齋遺稿 一弓 王考慕菴府君 所嘗收拾 而先君東樵府君 所嘗筆寫者也 藏在家篋 已經多年 而爾間 慕菴府君 當國破君亡之世 急於師稿傳後之策 傾家產而成刻板 然而吾家於此事 事鉅而力綿 故王父 蹶蹶之餘 事則成而家則傾矣 因流離轉徙 業印糊口 尚能保其家而守其身矣 不幸庚寅 遭蠻觸之爭 蓄忿鬱氣 因病而逝 東樵先君 身經諸艱 半百而歿 而世故層疊 乾淨無期 奚暇顧夫父祖之繼述哉 歲壬寅 不肖 赤手析箸 寓居大田 而恒慮遺稿之或泯 日 舍兄 責余以繡梓之任 余承父祖之志 將以踐責爲誓 而自語於心 曰不晏不早 將有抖擻精神之隙 當內搜舊篋古紙之堆 外問當日往來之家 則書之草草 宜不至於如今 而怃愒未踐 不仁不明之罪 安可逃諸 又況甲子年間 新都

世庄 不幸見收於國 而家傳圖書 若艮稿板刻 不見保於吾家 而見保於大學 慕菴東樵 兩世冥靈 如有今在者 茹恨曷極 尤況某年 舍兄 遽棄此世 而乃子乃孫 皆從世波 奔蕩東西 而都不知家傳舊籍之爲重 浩歎奈何 不肖煥也 年忽古稀 崦嵫餘日 未知幾何 戰兢之餘 乃以此稿壽傳之策 議於卯君錫健 及家兒炳國 欣然不吝其捐 助其刊役 而乞外手者 竹下鄭東暉之主滅乙也 末付文 若干篇 皆吾父祖所撰 壇碑 譜序 若慮泉成公璣運所撰號記若 後石宋公悌永所撰實蹟碑 先府君所撰譜序 若不肖所撰己卯譜序 而別印則勢難成册 欲棄則情所不忍 玆付于此 共其永傳蓋倣鄭松江集末 付其胤華谷公詩文之例 倘不爲無據否

歲癸未 春 不肖孫 錫煥 泣血謹識

遯齋遺稿跋의 번역문

이는 나의 曾祖考 돈재공이 남기신 한권의 책인데 조부 모암부군께서 일직이 수습하시

고 아버님 동초부군께서 손수 써 두신 것이다。

책장에 보관한지가 이미 오래인데 그동안 모암부군께서 나라가 망하는 세상을 당하여 간재전선생의 문집을 後世에 傳하는데 급하시여 家產을 기우려 刻板을 完成하였다。 그러나 우리집이 이 일을 하는데 일이촉 거창하고 힘이 모자라기 때문에 조부님이 모든 난관을 넘기시며 일은 완성하였으나 가세는 기울어서 떠돌아 이사다니시며 인쇄업으로 생계를 이으면서도 가족을 보호하고 몸을 지키셨는데 불행히도 庚寅년의 난리를 만나 울분함이 쌓여서 병이되여 돌아가시고 아버님께서는 몸소 난리를 겪으시다 五十에 돌아가셨다。 세상의 변고가 연이어서 안정될 기약이 없었으니 어느새에 父祖를 繼述할 틈이 있었겠는가? 壬寅年에 不肖가 赤手로 分家하여 大田에 살면서 항상 증조부님 글이 없어질까 걱정 되었는데 어느날 형님이 저에게 印刷할 것을 책임지었다。 제가 父祖의 뜻을 이어 장차 책임을 실천할 것을 맹서하고 언젠가는 두서를 찾아 정신을 차리면 안으로 책장의 古紙속을 뒤지고 밖으로 당시 왕래하시던 집을 탐문하면 책의 초라함이 지금 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미루다가 실천하지 못하였으니 착하지 못하고 똑똑치 못한 죄 어찌 도망하리요 하물며 甲子年에 신도안 世庄이 불행히도 나라에 收用되어 世傳해 오던 圖書와 艮齋文集板刻을 집에 保管하지 못하고 大學에 보관하게 되었으니 慕菴과 東樵의 영혼이 만일 계시다면 痛恨이 어떠했으랴。 하물며 형님이 세상을 뜨시고 아들 손자들이 世波를 따라 東西로 흩어져서 도무지 대대로 傳해온 서적이 중요함을 알지 못하니 걱정한들 어찌하랴。 불초 저도 나이 七十이 넘어 남은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두려운 나머지 이에 이

책의 壽傳할 대책을 아우 錫健敎授와 자식 炳國에게 의논하니 기꺼히 성금을 내는데 인색하지 않아 印刷하는데 도와주고 밖으로 손을 빌린분은 竹下鄭東暉의 校正이다。 끝에 붙인 몇편의 글은 모두 아버님과 조부님이 지으신 壇碑와 譜序 및 慤泉成公璣運께서 지으신 號記와 後石宋公悌永께서 지으신 實蹟碑와 아버님이 지으신 族譜序文과 不肖가 지은 己卯派譜序등 인데 별도로 인쇄하려면 책이 아니되고 버릴 수도 없어 이에 부쳐 함께 기리 傳하는 것이니 대개 鄭松江集 끝에 그의 아들 華谷公의 詩文을 붙인 例를 모방한 것인데 혹시 근거가 없다고 하지나 않을는지?

檀紀 四三三六年 癸未 四月 十五日印刷
檀紀 四三三六年 癸未 四月 二十日發行

著者 遯齋 李學禧

發行處 大田廣域市中區大興洞二三二의四
以文社
李錫煥
電話 (〇四二)二五二—八五八五

印刷人 瑞進出版社
代表 白鐘欽
大田廣域市東區中洞九—三
電話 (〇四二)二五四—九〇二三

二五六—九〇二三